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989-0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1차 년도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송미령

연구원: 김정섭

김광선

심재헌

최지선

이정연

<요 약 문>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및 성과 분석에 기초한 사업 발전 방안 필요.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사업 성과 파악 및 문제점 개선 등이 필요.

1.2 연구 목표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1차 년도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함.
- 구체적인 연구 질문과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음.

연구의 질문과 분석 도구

연구 질문		분석 도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 목표는 성과 측정의 도구로 적합한가?	→ ←	①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② 지표를 활용한 분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재 사업 내용은 충분한가?	→ ←	①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② 시·군 공무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도 운영상 문제는 없는가?	→ ←	①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② 시·군 공무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	①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도출 ② 외국의 경험

2. 주요 연구 결과

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 EU의 성과지표체계 ‘투입-실적-결과-파급효과’에 따라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함.

2.1.1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예산투입

- 사업 개소 당 총사업비는 78억 원이며, 이 중 84%가 물리적 인프라(H/W) 정비에 투입됨. 예산 세목별로는 복지시설에 전체 사업비의 29%가 투자되어 비중이 가장 높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개편되면서 H/W 투입 비중이 낮아지고, 경상비 사업(S/W)인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투입 예산이 증가함.
- 사업지침에 드러난 사업 목표는 추상성이 높아 성과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움.

○ 사례 사업 성과 분석

- 공공적·상업적 시설 투자에 비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비 투자가 적음.
- 읍·면소재지(중심지)사업의 성과는 해당 읍·면의 여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투입을 편성하는가에 크게 좌우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패턴을 보임.
-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읍·면 주민들이 느끼는 수요의 양과 질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구상하며 서비스 전달 조직까지 구성하는 치밀한 계획과 역량강화 활동이 동반될 경우,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짐.

-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읍·면 중심지의 상업시설, 교통시설, 경관 등을 ‘관광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재편하거나 보완해 성과를 높임.

2.1.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예산 투입

- 사업 개소 당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이 중 H/W에 76%가 투입됨. 예산 세목별로는 관광시설에 전체 사업비의 34%가 투입됨.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세부사업 편제가 재편된 후, H/W 투입 비중이 감소함.

○ 사례 사업 성과 분석

- 권역당 총 사업비의 77%를 H/W에 투입함. 용도별 투입 내역을 보면 ‘도농교류센터’, ‘다목적회관’ 등 관광시설 조성에 총 사업비의 46%가 투입됨.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결과 지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출액’, ‘방문객 수’, ‘일자리’ 등을,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만족도’와 ‘문화·복지·체육시설 이용량’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문화·복지·체육시설: 대부분의 권역에서 문화·복지·체육 관련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없었으며, 시설 이용량이 측정되지 않고 있음.
- 기초생활인프라: 주민 면담을 통해 노후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표: 권역들에서 매출액, 일자리 등 관련 자료를 축적해두고 있으며, 권역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가 및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 사업의 주요 성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인프라 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지역특화발전 도모 등의 목표 달성도는 높은 것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인구 유지 목표 달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 유형별로는 읍·면 소재지(중심지)사업은 기초생활수준 향상에, 마을 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은 지역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 중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농촌지역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 성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농촌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가장 크게 개선된 문제는 개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 부재와 사업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 소규모 분산투자, 사업 신청 준비단계의 난이도와 비용, 사업지침 또는 추진과정 복잡성 등임.
 - 시·군 내 또는 부처 내·외에서 사업들 간의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율성 및 창의성과 사업의 적절한 평가 및 환류체계 부재를 가장 개선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재편되면서, 사업 추진 주체로서 주민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시·군 담당자들에게는 중앙정부와 시·도의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인식됨.

- 사업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 사업의 추진 단계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사업계획 수립: 지역 자체 역량 부족(예비계획), 주민 참여 부족과 갈등(기본·시행계획).
 - 사업 실행: 지역 역량 및 주민들의 참여 부족.
 - 사후 관리: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예산 부족, 사업 완료 후 주민들의 관심 저하, 지속할 만한 프로그램 부족 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 구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두 의견의 비중이 높음.
 - 중심지, 마을, 역량, 인프라 등 유형별 사업부문 구분만 유지하고 세부적인 사업부문 구분 폐지.
 - 포괄보조금 사업 취지에 맞게 하나의 통합된 사업으로 운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다음 항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추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확대.
 - 예비계획서에 준비 절차 간소화 및 내용 기준 완화.

2.3 우수사례 지역의 성공요인 분석

- 핵심 성공요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의 구체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성공요인이 주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도출된 핵심 성공요인과 주요 성과 부문은 다음과 같음.
 - 성공요인: 사업추진주체 및 지원조직 요인,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요인,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요인, 사업추진 네트워크 요인, 외부환경 요인 등 여섯 가지임.

- 주요 성과: 인구·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공간개발 성과.

○ 우수사례 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주민들이 이해집단별로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야 함.
- 당장의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지역발전의 중·장기적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의 목표 수립과 내용 구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마을과 권역에서 사업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 내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가야 함.
- 사업 지역의 인근 시·군까지 참여시키는 후방연계를 구축하고, 역외의 전문조직이나 전문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교육, 선진지 견학 외에도 주민의 문화역량과 공동체 문화 활동이 인적 자원 개발과 역량강화에 중요함.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설정

- 농촌정책의 목표는 농촌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며, 다음 두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 등가치적 생활여건 확립: 전국 어디에서나 기초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농촌 가치의 복원과 확산: 농업·농촌의 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복원 및 확산하여 농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함.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편

- ‘중심도시-중심지-작은 중심지-마을’ 등 정주체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기존 세부유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고, 배후마을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기존의 세부유형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단순화함. 역량 단계별 지원방식은 유지하되, 사업기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칭)농촌작은중심지육성사업을 도입하여 소생활권에 중심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작은 거점을 조성.
- 기존 새뜰마을 사업을 취약 마을 개조사업으로 승계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설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보완

- 포괄적 지역활성화 사업을 도입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대상 123개 시·군에 배분하고, 각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공간적 범위를 선정하도록 존중.
- 특히 그간 소홀했던 농촌 가치의 복원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농업 유산의 보전, 산림이나 하천의 보전, 전통적 농촌 경관의 복원 등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문화·복지 등의 특화복지모델 실현 등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 제정.
- 시·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지원 부서를 만들도록 유도.
- 지역의 역량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RAISE 기능을 보완하여, 사업대상지의 주요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 전부터 완료까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평가에 기반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R&D 강화.

Summary

1. Title :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y Improvement

2. Research Purpose

- The study aims are:
 -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CRDP) and analyze critical success factors of the best practices
 - to identify major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the CRDP and suggest ways to improve CRDP

3.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 The main questions are:
 - (1) What are the major outcomes of the CRDP?
 - (2) What are the main problems of the CRDP regarding its structure and contents?
 - (3) What are th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RDP?
- The research methods are:
 - (1)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for rural development experts and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 (2) case studies of 16 villages and 14 town centers
 - (3) analysis of Rural Areas Information Service(RAISE) data base
 - (4) time-series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project areas

4. Policy Suggestions

- Redefining CRDP goals
 - ensuring the infrastructural prerequisites for decent living conditions across the nation
 - conserving cultural values in rural areas
- Reforming the CRDP
 - (1) Town Center Development Project(TCDP)
 - unifying different types of the TCDP
 - fostering connections between service center and rural hinterland.
 - (2) Village Development Project(VDP)
 - unifying different types of the VDP
 - simplifying the project guidelines: villages design and implement projects based on their capability levels without content restrictions.
- Introducing new projects in CRDP
 - (3) Small Center Development Project in small towns
 - promoting the role of small town center in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to surrounding villages
 - (4) Block Grant Development Project
 - allowing cities and counties to spend an allocated budget without any regulations or restrictions on spatial scope and project contents

- Fostering CRDP support system
 - providing legal and financial support at city level to enhance the role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CRDP process
 - promoting local people and field activists to organize groups and participate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CRDP projects
 - organizing a dedicated unit within a city municipality responsible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CRDP
 - building CRDP monitoring and evaluating system and providing incentives and penalties based on the project evaluation
 -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RAISE
 - strengthening R&D investments in CRDP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정책 및 연구 동향	9
제1절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	11
제2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8
제3장 농촌지역 발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3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태	41
제1절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및 분석 방법	43
제2절 분석결과	44
제3절 사업 추진 전후의 마을 발전 정도 비교	52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63
제1절 성과평가 개요	65
제2절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8
제3절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77
제6장 설문조사를 통해 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	8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89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90

제7장 우수사례 지역의 성공요인 분석 111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선정 113
제2절 성공요인 분석 개요 117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공요인 12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46

제8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 ... 155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과 여건 157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 159

<참고문헌> 171

<부록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변천 177
<부록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178
<부록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담당자 설문조사 190
<부록 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사업(포괄보조금사업) 198
<부록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123개 시·군 199
<부록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개요(2017년, 2018년 계획) 201

<표 차례>

제1장

(표 1-1) 1차 년도(2017) 연구 내용 및 범위	7
--------------------------------------	---

제2장

(표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	20
(표 2-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I	21
(표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성과 평가지표	23
(표 2-4)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26

제3장

(표 3-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성(연간 10조 원)	35
(표 3-2)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36
(표 3-3)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 시·군자율편성사업 평가 결과	38
(표 3-4) 연구의 질문과 분석 도구	39

제4장

(표 4-1)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41종	43
(표 4-2) '10~'17년 세부 기능별 내역사업 국비 투입량 상·하위 10위 ..	45
(표 4-3) '1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46
(표 4-4) '15~'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량 및 사업비 ·	48
(표 4-5) 지역 유형별 지역발전성과	51
(표 4-6)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가구 수 변화	57
(표 4-7)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농업 비율 변화	58
(표 4-8)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버스 운행 횟수 변화	59

(표 4-9)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쓰레기 처리 방법	60
(표 4-10)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각종 공공 및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 변화	61
(표 4-11)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도농 교류 참여 활동 변화	62

제5장

(표 5-1)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실적	70
(표 5-2)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73
(표 5-3)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례지역 투입 분야별 결과	75
(표 5-4)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79
(표 5-5)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81
(표 5-6)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결과	84
(표 5-7)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유형별 예산 투입 현황	85

제6장

(표 6-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목표별 달성 정도	91
(표 6-2) 전문가가 바라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문별 주요 목표 달성 정도	92
(표 6-3) 시·군 담당자가 판단하는 농촌지역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업유형	93
(표 6-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변화 여부	95
(표 6-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변화	97
(표 6-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 사업부문별 사업량 변화에 대한 인식	98

(표 6-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시·군담당자들의 이해도 인식 수준 ...	99
(표 6-8) 시·군의 지역 현장 실태 파악 방법	100
(표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단계’ 주요 문제점(복수응답) ...	101
(표 6-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의 주요 문제	102
(표 6-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단계’ 주요 문제점(복수응답) ...	103
(표 6-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총액 대비 세부 사업별 현재 비중과 향후 바람직한 비중	105
(표 6-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통합 및 세분화 정도 적절성	106
(표 6-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 방향 중요성(복수응답)	108
(표 6-15)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지표의 적절성 평가	109
(표 6-16) 성과지표(안)의 사업부문별 및 세부 내역사업별 적절성 평가 ...	110

제7장

(표 7-1) 우수사례 1단계 선별: 사업추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준공 사업	114
(표 7-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우수사례 후보	114
(표 7-3)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우수사례 후보	115
(표 7-4)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선정 결과	116
(표 7-5) 우수사례의 공통 핵심성공요인	118
(표 7-6)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조사의 구조와 내용	119
(표 7-7)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부문과 세부내용 ...	120
(표 7-8) 왕인촌권역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유치 현황	132
(표 7-9) 가시리마을의 문화역량으로 다져진 동아리들	135
(표 7-10) 성공요인의 주요 성과에 대한 영향	148
(표 7-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부분별 성공요인	149

제8장

(표 8-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	161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및 추진 방법	8
---------------------------------	---

제2장

<그림 2-1> 연대별 정책 환경 변화와 농촌 개발의 전개	13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투자 추이	15
<그림 2-3> EU 농촌개발정책의 목표 및 평가지표 체계	25
<그림 2-4> 평가지표의 위계적 구조와 논리적 관계(예시)	27
<그림 2-5> 핵심성공요인과 주요성과지표의 관계와 특성	30

제4장

<그림 4-1> 기능별 세부 사업 변화 추이	44
<그림 4-2> '1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포도	47
<그림 4-3> '15-'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포도	49
<그림 4-4> 성과 유형별 시·군수	50
<그림 4-5> 성과 유형별 분포	50
<그림 4-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 개요 및 내역사업 공간정보 분포	54

제5장

<그림 5-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71
<그림 5-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80

제7장

<그림 7-1> 성공요인 분석 추진 과정	120
<그림 7-2> 정선읍소재지정비사업의 문화·복지향상과 공간개발 성과	126
<그림 7-3> 삼기권역 내 마을의 신규사업 추진	129
<그림 7-4> 칠갑산권역(알프스마을)의 경제적 성과 창출 구조	130
<그림 7-5> 칠갑산권역(알프스마을)의 사업추진 네트워크	140
<그림 7-6> 칠갑산권역의 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140
<그림 7-7> 왕인촌권역의 사업추진 주체 구성	142
<그림 7-8> 가시리권역의 사업추진 조직	144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 증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예산 규모가 큰 정책 사업이라 그 성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2010년 이후 매년 1조 2,000억 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됨. 국고 8,700억 원, 지방비 3,700억 원 정도가 투입됨(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에서 종합정비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되었으며, 소득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경관개선·지역역량 강화 예산은 증가 추세임.
 - 장기간 투자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가 꾸준히 확장되었다고 평가됨(심재현 외, 2017). 그러나 농산어촌 주민의 고령화와 과소화,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수십 년 동안 심각하게 전개된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이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 결과, 추진 체계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빈번하게 등장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물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하여 애초의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있음(김영주 외, 2014; 박수진 외, 2013; 양주필 외, 2016; 심재현 외, 2017; 원광희, 2016).

- 사업 추진 대상지 농산어촌 주민의 역량이 성과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역량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홍철, 2013: 51-52; 심재현 외, 2017).
-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 체계가 미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부처(부서) 간 ‘칸막이’ 문화로 인하여 계획 수립이나 사업 실행의 통합적 접근을 가로막거나(송미령 외, 2013), 추진 체계상 여러 이유로 인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임(정광석, 2016; 김영주 외, 2014: 2).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사업 완료지구 현장을 점검하여 얻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음.

- 주민 대표를 면접 조사하여 주민 역량, 주민 참여도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 소득사업을 추진할 법인 구성·운영 및 환원 여부,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 현황, 1억 원 이상 지원된 건축물의 활용 여부, 관리 상태,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그러나 해당 자료에 대한 활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사업의 실제 성과를 분석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틀이 필요함.

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및 성과 분석에 기초한 사업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얻은 성과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사업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사업 성과 분석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됨.

- 사업 성과가 사업실적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함.

○ 장기간에 걸친 사업 실행 경험을 토대로 개선점과 교훈을 발견해내고 사업 내용 및 추진 체계에 반영하려면, 사업이 추진된 대상지에서 이루어진 계획, 실행 과정, 사후 단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함.

- 사업 추진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함.

- 정부 교체기와 맞물려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그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및 요구사항도 검토해야 함.
-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정부 부처의 포괄보조사업 및 새로운 정책 기획에 있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함께 관찰하여야 함.
 - 이른바 ‘3+1 구조’로 정부 부처별 사업 추진 대상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바¹⁾, 도시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의 사업 추진 방식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1)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도시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가 각각 포괄보조사업을 관리한다. 여기에 더해 낙후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서 기초인프라를 보강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 연구 목표(1차 년도)

- 1차 년도 연구 과제 추진의 목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종합 및 세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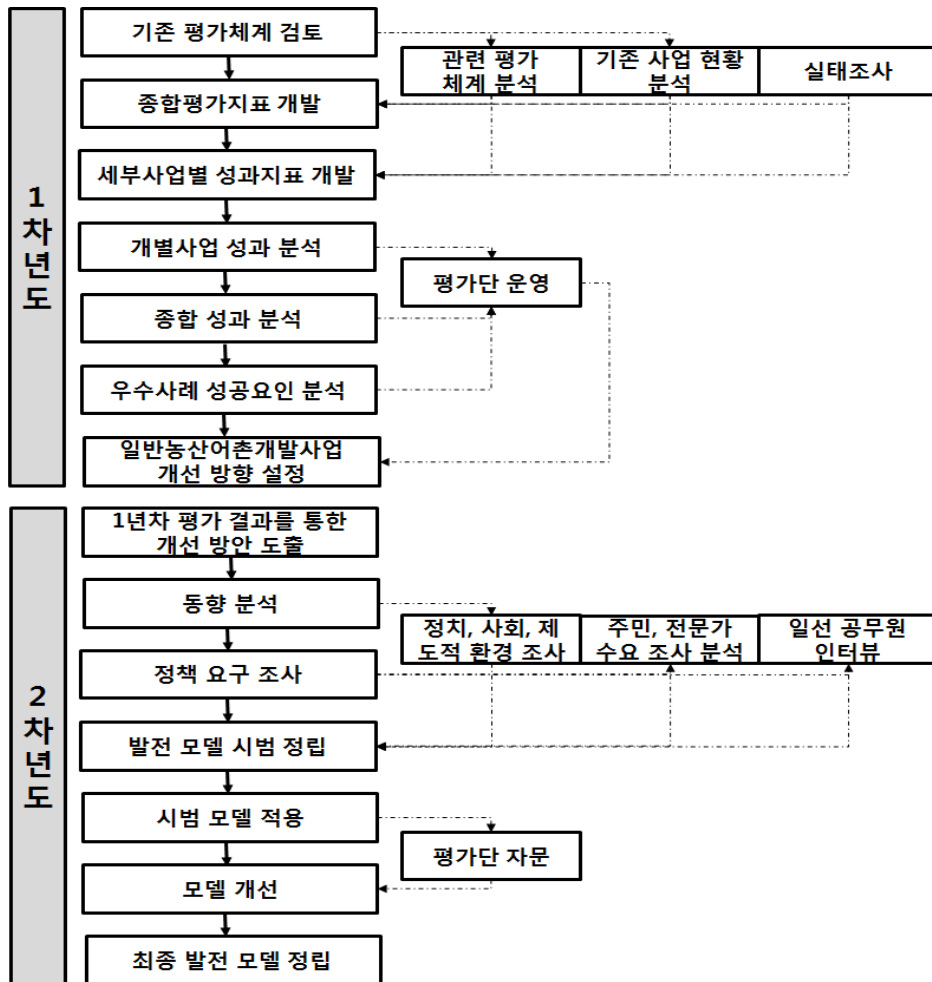
-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 둘째, 우수사례 조사·분석 및 성공요인 분석.
 -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표 1-1) 1차 년도(2017) 연구 내용 및 범위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범위
<p>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종합평가 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농촌개발정책 평가체계 검토 · 종합 평가지표 체계 개발 · 평가체계 구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별 사업 성과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활성화사업 평가지표 개발 · 권역사업 평가지표 개발 · 신규마을사업 평가지표 개발 · 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개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별 사업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별 평가자료 수집·조사 및 분석 · 사업 완료지구 운영 및 활용도 분석 · 착수지구 추진 경과 조사 및 분석 · 사업추진체계 실태 조사 및 분석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종합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사업 성과 분석 결과 · 공간데이터를 결합한 파급효과 분석
<p>우수사례 조사·분석 및 성공요인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조사 및 성공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별 조사대상 사례 선정 · 사례 조사 및 분석 ○ 확산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우수사례 검토 · 확산방안 제안
<p>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체계에 따른 평가 결과 분석 · 사례조사 결과 분석 · 공무원 인터뷰 조사 분석 ·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개선방안 도출

2. 연구 추진 방법

- 2년에 걸쳐 수행할 본 연구의 추진 체계는 <그림 1-1>과 같음. 1차년도에는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한 평가지표 개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분석,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한 사업 성과 파악과 문제점 분석, 우수사례 성공요인 분석 등을 수행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및 추진 방법

제 2 장

정책 및 연구 동향

제2장 정책 및 연구 동향

제1절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의 변화

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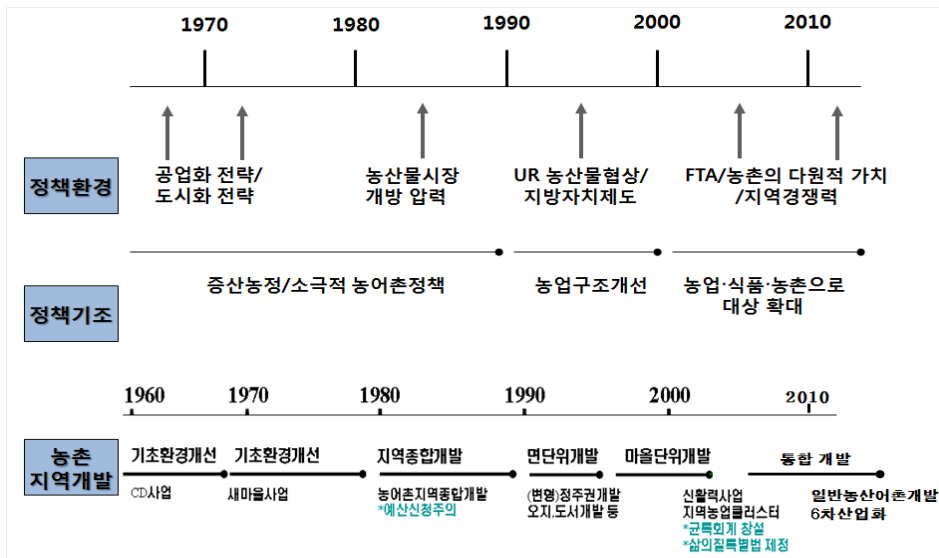
- 1980년대 초반 농촌형 정주체계에 따른 농촌 중심지(시·군청소재지 및 읍·면소재지)와 배후지 마을의 체계적 개발 방식에 입각한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이 제기됨(최양부 외, 1982).
 - 최양부 외(1982)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을 제안하면서, 활력 있는 자활적 지역사회를 실현하려면 첫째, 도시와 균형된 소득이 보장되는 다원화된 농산어촌 경제, 둘째,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시화되고 복지화된 정주환경, 셋째, 민주화되고 개방화된 농산어촌 사회 등 경제·사회·정주환경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함.
 - 1985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이 발족하여 강진군, 공주시, 청송군에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에 입각한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특별시범사업을 시도함.
 - 그 결과 1990년대 읍·면소재지 중심의 소도읍사업 등으로 농촌정주생활권 사업이 구체화됨.

-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농업·농촌 정책은, ‘농촌정주생활권’ 개념이 제기되고 통합적 농촌개발의 실험들이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인들을 위한 소규모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농촌개발이 동일시되었음.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농업생산 확대를 기조로 하는 농업정책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정됨.
 - 당시 국가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거점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특히 성장거점정책의 틀 속에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한 국토 대부분의 주변부 지역, 특히 농촌 지역이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머물게 됨. 국토 전반에서 불균등 발전이 진행되면서 주로 농촌인 저발전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저하됨.

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농촌정책의 변화

- 2000년대 들어 주요 정책 기조로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됨. 기존의 단핵형 국토공간구조를 다극화하려는 목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혁신·기업도시 개발 등 지역분산 정책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내생적 발전론과 지역혁신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이 시도됨.
- 2000년대 이후의 농촌정책에서는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공간의 통합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주체들의 연계를 강조하는 방식이 도입됨.
- 2000년대 중반 이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이때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두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특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됨.
 - 10여 개 중앙정부 부처의 210개에 달하는 개별 사업이 균특회계에 따른 지역발전정책으로 편제되었는데,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부처들의 유사 사업이 중복 실행되어 예산과 인력 투자의 낭비와 지자체 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후, 지역 차원의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지지·육성하기 위해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에 분산 추진되던 다양한 농촌발전 정책사업도 이러한 체계에 통합됨.
 - 지역발전정책은 2009년 이후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됨(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각 지자체가 지역의 역량과 조건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 시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제도적 기반으로 포괄보조사업을 도입한 것임.

- 2009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함.
 - 기존의 210개 지역개발사업을 24개의 사업군인 포괄보조사업으로 묶어 통폐합함. 이 중 20개 사업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4개 사업(3+1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함.
 -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식품부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행자부가 소관 부처가 되어 사업을 관리함.
- 광특회계 도입 이전에 제각기 추진되던 15개의 별도 농산어촌 지역발전 사업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편제됨.



자료: 심재현 외(2015), 제14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발표 자료.

<그림 2-1> 연대별 정책 환경 변화와 농촌 개발의 전개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14.3) 기존의 광특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계정은 각각 '생활기반계정'과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함.
 - 이에 따라 지특회계는 경제발전계정(구, 광역발전계정), 생활기반계정(구,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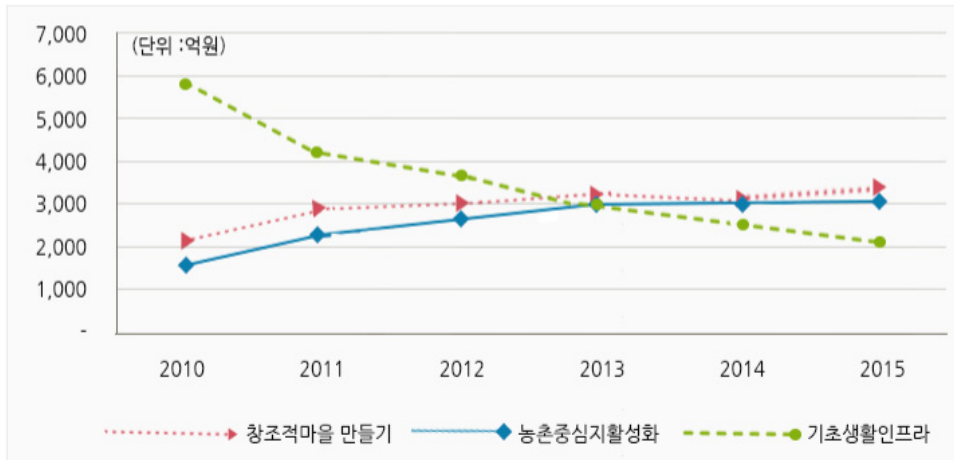
-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 사업으로 매년 약 8,700억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됨.
 - '농산어촌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주민의 소득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를 증진하여 농산어촌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포괄보조사업이 본격 실행된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국고 7조 2,439억 원이 투입되었음.
 - 2017년 기준 123개 농촌 시·군에 중심지 569개소, 마을·권역 1,34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음.
 - 포괄보조사업으로 개편된 이후, 국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10)9,737억 원 → ('12)9,305억 원 → ('14)8,723억 원 → ('15)8,733억 원 → ('16)8,723억 원 → ('17)8,723억 원.

- 2015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개편하여 현재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등 4개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임.
 -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농촌 중심지를 육성하고, 배후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함.

-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 마을단위종합개발,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경제(체험·소득)/환경(경관·생태)/신규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
- **시·군역량강화:** 창의적인 S/W 중심 사업을 추진해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사업 효과의 시·군 전체 파급과 시·군 자체의 역량 강화.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빈집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www.raise.go.kr>).

<그림 2-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투자 추이

KREI 2016

- 3 7 10
- , ,
- 가 가 , 가
- 가 가
- 가 , ,
- ,
- 가 ,
- ,
- ,
- 가 ,
- 가 가 가
- ,

: 2016

- . ,
- . ,
- 가, . 가,
가 .
- 가 , 가 ()
- ' ' .
- .
- ,
- .
- 가 ().
- 가 , 가 ,
- ' ' .
- . ().
- . ().
- , (: EU LEADER).
- (: ,) ()
- . / 가
가
: 2016 가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가. 농촌지역개발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국내 농촌지역개발정책 평가 관련 연구를 평가체계 개발에 관련된 연구와 사업 성과 분석에 관련된 연구로 나눌 수 있음.

-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연구로는 김경량 외(2006), 이한성(2006), 한경수 외(2007), 이민수(2014), 강석보(2016) 등이 있음. 이 연구에서는 평가지표 및 체계를 사전 평가, 중간 평가, 사후 평가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제시함. 사업 완료 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평가체계 연구가 부족함.
 - 이한성(2006)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및 항목을 제시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과정)을 활용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서 시행되며, 1단계의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임. 김경량 외(2006)와 한경수 외(2007)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중간평가 지표를 고안함((표 2-1)과 (표 2-2)). 김경량 외(2006)에서 AHP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평가목표별 중요도를 도출함. 한경수 외(2007)는 서면 및 현장 평가용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시범 평가를 통해 검증함.
 - 강석보(2016)는 사업 실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단계별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3단계 지표체계를 고려하였으나, 제주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 분석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는 못함. 이때 3단계 지표 체계는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정책 평가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본뜬 것으로 산출(output) 지표, 결과(result) 지표, 파급효과(impact) 지표로 구분됨.

- 우리나라 농촌지역개발정책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예산 집행 실적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정도로 정책을 평가하고 있어, 공공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이민수, 2014).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함.
 -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여 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데에 혼란이 생김.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목적이 상벌보다는 교육이 우선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모델’이 아닌, ‘확산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역 주민이 사업 평가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함.
 -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증명해야 함.

(표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

평가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소득기반확충	추진실적	계획대비 추진실적(공정)
		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사업의 성과	주민의 만족도
		타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지역 파급효과의 가능성
	운영능력	운영계획 수립 여부
자발적 운영기금 조성 여부		
수익성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여부		
생활여건개선	추진실적	계획대비 추진실적(공정)
		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사업의 성과	주민의 만족도
		타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운영능력	운영계획 수립 여부
지역역량강화	추진실적	계획대비 추진실적(공정)
		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사업의 성과	주민의 만족도
	운영능력	운영계획 수립 여부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주민의 호응	주민의 참여도
	사업추진체계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여부
		문제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여부
		자발적 모니터링체계 구축 여부
		원활한 자금관리 체계 구축 여부

자료: 김경량 외(2006:69).

(표 2-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평가지표 II

	평가목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서면평가	추진 실적 및 내실화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실적(과정)
			사업비 집행실적
	주민의 참여도	주민역량강화	리더교육
			주민교육
		마을운영관리 및 주민만족도	추진위원회 운영
			사무장 채용
			주민만족도
			주민참여도
	경영관리능력	경영능력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사업별 수익금 활용 계획 수립
			권역내 사업과 지역자원간 연계 실적
			지역 홍보실적
		관리능력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과 및 공무원 조직 구성
	지역성장동력	지역사회의 활성화	비전달성도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 및 사업실적			
신규 전출입인구			
현지점검평가	사업목표 이행의 충실도	기본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에 따라 시행계획(세부설계)이 수립되고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각종 계획 및 전략의 실현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계획	
		사업별 수익금 활용계획	
		추진위원회 운영 수준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수준	
인구유입을 위한 계획(전략)			

자료: 한경수 외 (2007:123,124).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및 분석에 관련된 연구들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이성우·윤성도(2008), 이상호 외(2011), 김제안·채종훈(2010) 등이 있음.
 - 이성우·윤성도(2008)는 해체기법 등 통계 모형을 적용하여 정책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함. 정책 실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성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이상호 외(2011)는 인구 및 가구 유입 효과, 방문객, 소득효과, 인력육성 효과, 친환경농업 등 5개의 핵심 성공 측면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전체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함(표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량적 지표가 사업의 개입 효과만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함.
 - 김제안·채종훈(2010)은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전남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함. 파급효과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등 4가지 측면에서 측정함. 총투자지출액 2,414억 3,600만 원이 투자유치 유발액 총 6,965억 7,000만 원과 고용 창출 인원 총 3,850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거시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으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사회적 목표 및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개별 사업지구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함.

(표 2-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성과 평가지표

핵심 성공측면	세부 성과 평가지표
인구 및 가구 유입 효과	(전입인구-전출인구)/마을인구수
	(전입가구-전출가구)/마을가구수
방문객	방문객 증가인원(연간)
소득효과	직접소득(농촌마을사업비가 지원된 법인소득사업)
	간접소득(체험, 관광, 농산물 판매 등)
인력육성 효과	외부전문가 초청교육(교육, 자문, 평가 등) 횟수
	권역주민의 외부교육 수료 횟수
	권역주민의 내부교육(S/W 관련) 횟수
친환경농업	재배작물과 인증면적

자료: 이상호 외(2011:186).

- 정성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김강섭·전택기(2009), 최영완 외(2011), 김정연·김은순(2013) 등이 있음.
 - 김강섭·전택기(2009)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1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고찰함. 주요 개선 방안으로 사업 계획에 소득 창출 및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을 포함시키고, 예산의 일정비율을 인재 육성에 투입하며, 공동이용시설 계획에 친환경적 개념을 적용하고,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자고 제안함.
 - 최영완 외(2011)는 농촌 지역과 중산간 지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남.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 간의 협조와 노력을, 중산간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예산 지원을 지목하여 지역 유형별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만족도 조사는 사업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업 지구의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김정연·김은순(2013)은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정성적 분석을 하였으며,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함. 첫째, 중심지 유형별로 차별적인 정비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 목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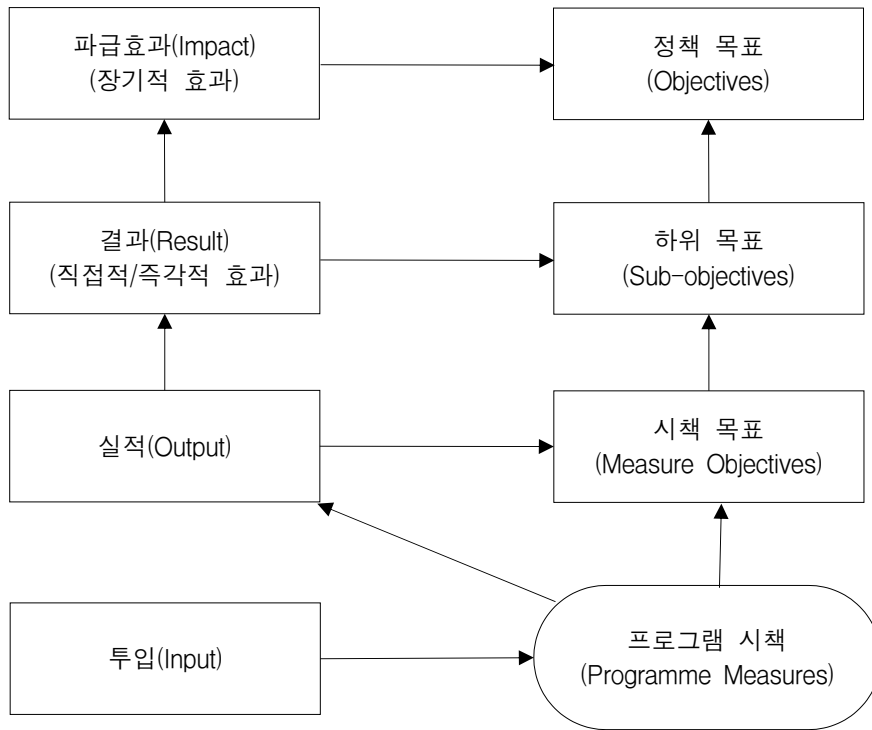
거점기능 및 결절기능 강화를 포함하고, 농촌경제활동 다각화를 견인할 활동거점 기능을 강화해야 함. 셋째, 시·군 기본계획 또는 시·군 농어촌발전종합계획 등을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상위계획으로 설정하여, 본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 넷째, 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고 유연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담보해야 함.

- 국내에서 농촌지역개발 정책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거나, 사업 완료 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제안한 연구는 거의 없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장기간 추진하면서 많은 개선 조치가 있었으나, 엄밀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분석의 결과라기 보다는 다수 전문가나 농산어촌 주민의 제언 및 건의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임. 선행연구에서 자주 지적되었듯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없고 정치적·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근거도 없는 상황임.

나. 유럽연합(EU)의 농촌개발정책 평가 체계 검토

-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농촌개발정책 사업들에 대한 평가체계(지표, 조직, 평가 절차 규정 등)를 정비하면서, 사업 추진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개발한 바 있음. 즉, 단순히 예산집행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정책 사업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당연한 전제하에, 정책사업과 무관한 환경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결과를 성과로 집계하는 오류도 피하면서 정책 투입과 성과 사이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는 방식의 평가체계를 고안한 바 있음.
 -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투입(input), 그 결과로 직접 발생한 산출(output), 단기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룬 성과(result),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초래된 파급효과(impact) 등의 요소들을 명확하게 구분한 사업평가 방식을 채택함. 이러한 구분은 각 요소들 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높일 개선점을 찾는 데 필수적임.
- EU 농촌개발정책 평가 지표는 위계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위계 구조 속

에 자리한 계층별 평가 지표는 농촌개발정책의 계층별 목표와 상응 관계를 이루며, 정책 개입의 논리로 설명됨. 정책 개입의 논리란 정책 프로그램과 기대된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서술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도식적 표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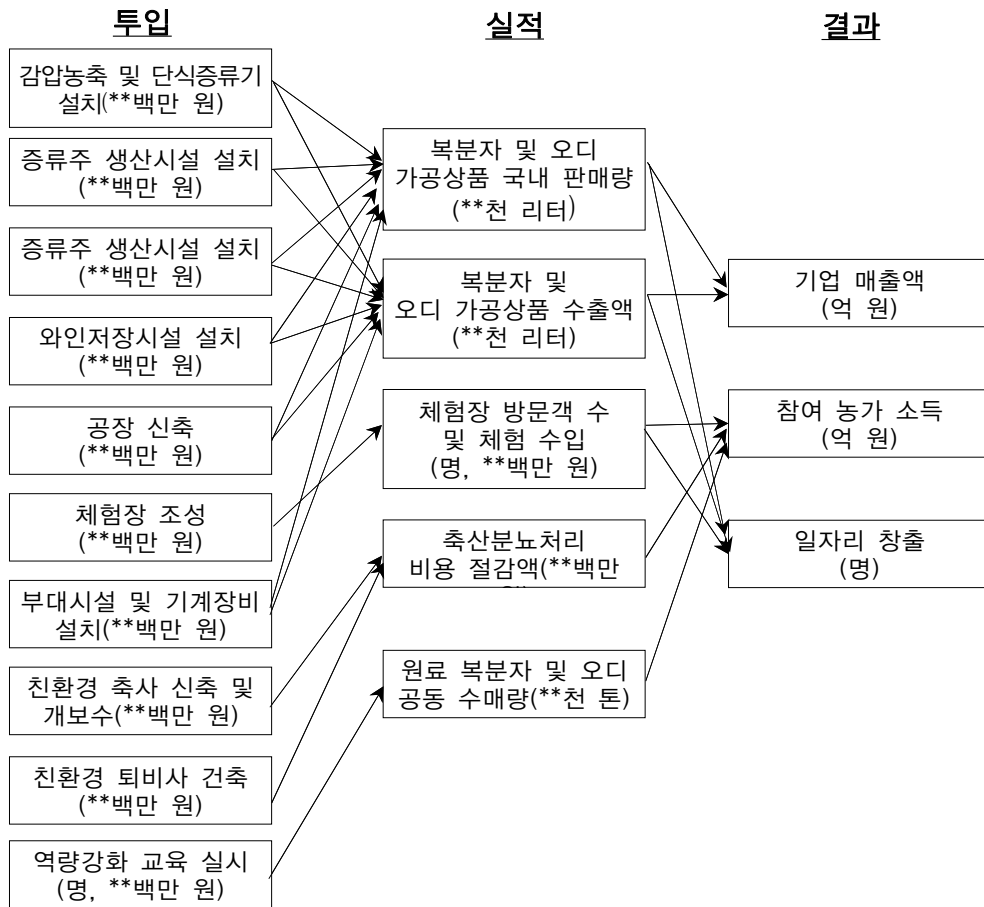
자료: IDEA Consult and ECORYS-NEI(2005:6).

<그림 2-3> EU 농촌개발정책의 목표 및 평가지표 체계

(표 2-4)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지표의 단계별 구분	설명	예시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 각각에 할당되는 자원 또는 예산과 관련된 지표 	사업별 예산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을 통해 직접 실행된 활동을 측정 	보조금을 받은 농가 수, 투자 총액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측정 •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의 행위나 역량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 	사업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고용 증가량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 수준을 넘어 지역에 전반적으로 끼친 영향을 측정 • 해당 지역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 • 정책사업의 간접적 효과를 고려 	지역의 고용변화, 농업생산성 증가
기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와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 	고용률, 소득

자료: 송미령 외(2008: 150).



<그림 2-4> 평가지표의 위계적 구조와 논리적 관계(예시)

- 지표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의 지표가 다른 지표의 원인인 경우를 찾을 수 있음. 예컨대 ‘역량강화 교육’이나 ‘수출 실적’은 ‘기업 매출액’이나 ‘참여농가 소득’에 선행하는 활동의 결과임. 역량강화 교육을 충실히 하여 수출 실적을 올린다면 기업 매출액이나 참여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임. 즉, ‘역량강화 교육’과 ‘수출’은 ‘매출액’이나 ‘소득’이라는 결과를 낳는 전 단계의 실적에 해당됨. 이런 논리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위계적인 구조를 갖는 지표체계로 도식화·재구성한다면 <그림 2-4>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임.
- 이 같은 평가지표 체계는 다양한 세부 정책사업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수준의 농촌개발정책 사업을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개발한 것인데, 4개의 개별 사업으로 구성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구조, 투입된 예산 항목 각각이

의도한 실적 특성이 다양한 개별 사업의 구조, 추진 대상 지역에 따라 사업의 목표 성격이 달라지는 개별 사업의 다양성 등 구성이 복잡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음.

다. 우수사례 성공요인 분석 방법론 관련 연구

- 사업 유형별, 개별 사업별 비교 가능한 객관적 성공요인 분석 모형이 필요함.

- 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공요인 제시의 기존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음.
 - 각 개별사업 추진 사례에 대한 주먹구구식 성공요인 제시의 문제
 - 함평나비축제: “이러한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축제의 성공요인이다.”
 - 불분명한 성공요인 제시
 -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김영주 등, 2014): 관련기관 및 마을 협조, 관광자원 활용, 방문고객 관리 철저, 열악한 환경 극복, 도농교류, 자연경관 이용, 마을리더 역할 등.
 - 애매모호하거나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별 성공요인 제시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우수사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 생각과 규칙을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 자기개혁능력과 끝없는 도전 등(김봉원, 2016).

- 따라서 유사 지역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공요인 분석 기법을 발굴·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해당 성과의 달성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필요.
 - 즉 성공요인은 성과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요인들의 작용 실태와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어야 함.
 - 동일 유형의 지역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함으로써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공요인’ 분석 기법 개발 필요.

- 성공요인 분석은 경영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 방법론 중 ‘핵심 성공요인 분석 기법(CSFs: Critical Success Factors)’이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됨.
- 핵심 성공요인 분석 기법은 기업 또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기법임.
 - 기업과 같은 개별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산업 부문의 성공요인 분석에도 활용됨.
 - 개인, 기업, 조직, 산업의 성공을 위한 여러 요인들 중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 즉 핵심 성공요인만을 도출하여 분석·평가.
- 성공 여부 또는 성공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성공요인 분석.
 - 핵심 성공요인 분석 기법은 <그림 2-5>와 같이 주요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공의 요인을 제시할 수 있음.
 - 예로, 주요 성과지표가 개인, 기업, 조직, 산업 등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핵심 성공요인 분석은 각 주체가 무엇을 해야 성공하게 되는가라는 성공요인을 제시함.



자료: www. BSCDesigner.com 최종확인: 2017.5.8.

<그림 2-5> 핵심 성공요인과 주요 성과지표의 관계와 특성

- CSFs는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효율적 분석기법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적은 인력으로 빠르게 수행 가능(효율성).
 - 목표 달성을 나타내는 성과지표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 매우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성공요인 분석 가능(효과성).
 - 개인, 기업, 조직, 산업 등이 내부적으로 갖춘 성공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적용 및 활용해야 할 성공요인까지 고려 가능(포괄성).
 -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성공요인 분석 가능(유연성).

- CSFs를 활용한 핵심 성공요인 분석기법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 SOC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요인 분석(강상균, 2004)
 - 민간 사업자 관점에서 본 SOC 프로젝트 핵심 성공요인 분석.
 - 민간 부문의 핵심 성공요인 4개와 공공 부문의 핵심 성공요인 4개를 도출한 후, 각 핵심 성공요인의 성공요인 세부 항목도 제시.
 - 사회적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 분석(유병규·김동열, 2011)

- 사회적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을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 경영여건, +알파(사회적 가치) 등 5개로 구분.
- Michael E. Porter의 경쟁력이론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하여 다이아몬드 플러스(+) 모델로 명명.
- 각 핵심 성공요인에 포함되는 세부 성공요인 항목 제시.

제 3 장

**농촌지역 발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3장 농촌지역 발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지역발전 관련 사업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MB정부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왔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MB정부 들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만든 정책 사업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의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하나임. 읍·면지역을 포함한 농촌 시·군 중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3-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성(연간 10조 원)

구분		생활기반계정 (4.6조)	경제발전계정 (4.9조)	세종계정 (0.1조)	제주계정 (0.4조)
지자체 자율편성 (포괄 보조금)	시·도	시·도 자율편성사업 ¹⁾ (2.8조)	-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²⁾ (1.8조)	-		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수행
부처 직접편성 (국가 보조금)		-	직접편성사업 (4.9조)	직접편성사업	직접편성사업

주1: (목적) 광역단위·특정지역 산업 육성 / (방식)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부처 의견 제시.

주2: (목적) 지역 균형발전·기초서비스 제공 / (방식)계속소요 자율편성·신규소요 부처 검토.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조 2,439억 원의 예산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집계됨. 이 중 읍·면소재지 대상 중심지 정비 569개소, 마을·권역 대상 1,344개소 정비 등이 이루어짐.
- 총 예산 규모는 2010년 9,737억 원에서 2017년 8,723억 원으로 감소.

(표 3-2) 2010~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수, 억 원

유형별	2010~2014		2015		2016		2017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3,174	46,259	723	8,733	720	8,723	810	8,723
농촌중심지활성화	297	9,340	78	3,110	91	3,931	103	5,845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 포함)	652	16,833	203	3,120	196	2,849	293	976
시군역량강화	82	29	118	239	122	205	137	309
기초생활인프라	2,057	19,552	308	2,160	293	1,648	257	1,498
기타·협업 사업	86	505	16	104	18	90	20	95

주1: 매년 신규로 추진되는 물량 기준(계속 사업에 대한 물량 제외)이며, 사업비는 당해 투자된 국비 총액.

주2: 일반농산어촌개발 제도 개편 전('14년)까지의 사업은 현 사업체계 기준으로 유형을 재분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긍정적 성과가 상당히 나타났으며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도 남아 있음. 긍정적인 성과로 ① 농촌 인구 유지·증가, ② 농촌의 기초 인프라 정비, ③ 농촌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④ 지역 통합적 계획의 필요에 대한 인식 확대, ⑤ 지자체 공무원의 기획 역량 제고, ⑥ 다양한 관련 민간 조직 활동 유도 등을 들 수 있음.
- 농촌 인구 증가: 2005년 876만명 → 2010년 876만명 → 2015년 939만명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귀농·귀촌 가구 증가: 2013년 29만 가구 → 2014년 31만 가구 →

2015년 33만 가구(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 과소화마을 감소: 2005년 2,048개 → 2010년 3,091개 → 2015년 1,270개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 농촌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 2014년 46% → 2016년 56%(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촌 협업·자율 조직 증대(소득법인, 운영조직 등): 770개 → 1,351개(2010~2015)(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마을리더 육성 프로그램 참여: 2012년 671명 → 2016년 3,395명(누적)(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주민 참여 농촌현장포럼: 2012년 37개 → 2016년 1,457개(누적)(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음. ① 기초 인프라·문화·안전 등 생활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며 주민 체감도도 낮고, ② 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으며, ③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도 부족해 보임. 또한 ④ 지역 자율성 제고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관련 민간단체 등 상호역량이 부족하여 갈등이 상존하며 성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고, ⑤ 시설의 사후관리 역시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농촌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도시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마을·권역단위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은 도시재생 사업에 비해 주목받지 못함.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특회계 사업 평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함.

(표 3-3)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 시·군자율편성사업 평가 결과

단위: 점수, %

포괄보조사업명	총합계		평점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점수	%		점수	%	점수	%	점수	%
일반농산어촌개발	117	100.0	79.4	23	19.7	74	63.2	20	17.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84	100.0	73.3	16	19.0	53	63.1	15	17.9
특수상황지역개발	32	100.0	71.7	6	18.8	21	65.6	5	15.6
성장촉진지역개발	50	100.0	70.5	10	20.0	32	64.0	8	16.0
소하천정비	148	100.0	68.9	27	18.2	93	62.8	28	18.9
총합계	431	100.0	72.7	82	19.0	273	62.9	76	18.1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내부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몇 가지 질문과 관점이 분명해져야 할 것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는 어떠한가? 현재 사업의 목표는 인구 유지, 주민소득 증대, 기초생활인프라 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공동체 활성화, 계획적 개발, 지역특화발전 도모 등임. 그리고 사업별 성과목표는 성과를 파악하기에 적절한가?
 - 농촌 시·군의 여건을 고려할 때, 중심지, 마을, 역량강화, 기초인프라 정비 등 유형의 사업만으로 충분한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에 폐기하거나 혹은 보다 강화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사업은 어떤 것인가?
 - 중앙의 지원 역할을 위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가?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농어촌공사 및 관련 민간 조직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 추진 사업의 성과 확대(기 추진 시설 활용도 제고 등)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표 3-4) 연구의 질문과 분석 도구

연구 질문		분석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 목표는 성과 측정의 도구로 적합한가? 	→ ←	①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② 지표를 활용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재 사업 내용은 충분한가? 	→ ←	①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② 시·군 공무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도 운영상 문제는 없는가? 	→ ←	①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② 시·군 공무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	①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도출 ② 외국의 경험

- 이러한 관점하에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살펴본다. 대략의 성과를 파악한 후에 성과지표에 의한 분석, 전문가 및 시·군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도출 등을 추진함.

제 4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태**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태

제1절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및 분석 방법

가.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 개요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산어촌 활용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자체의 지역개발 기획 기능을 지원하려고 구축한 시스템임.
- RAISE에는 농산어촌에서 시행 및 완료된 사업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고 상세정보(개요 정보, 세부사업, 예산정보)와 참조자료(기본계획, 시행계획, 준공정산 등)등을 함께 제공함.

(표 4-1)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 41종

분류	공간정보
지역개발사업 (33)	선도지구 / 일반지구 /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 / 거점면소재지개발사업 / 소도읍육성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 / 어촌마을종합개발 / 산촌생태마을조성 /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 주거환경개선 / 전원마을조성 / 신규마을조성 / 마을단위(생태)경관 / 마을공동 소득창출 / 마을공동 문화복지 / 권역단위 종합개발 / 마을단위 종합개발 / 경관보전직불사업지구 /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 시군창의 / 농촌생활용수개발 / 농촌생활환경정비 / 개발촉진지구사업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 소규모용수개발사업 / 신활력지역지원 / 살기좋은도시만들기 / 녹색농촌체험마을 / 어촌체험마을사업 / 농촌빈집정비 / 농어업기반정비 / 산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산어촌 (8)	농촌어메니티 / 농어촌인성학교 / 농촌체험마을 / 전원마을분양정보 / 지역발전지원기관 / 마을현황 / 마을자원 / 우수마을사례

자료: 심재현 외 (201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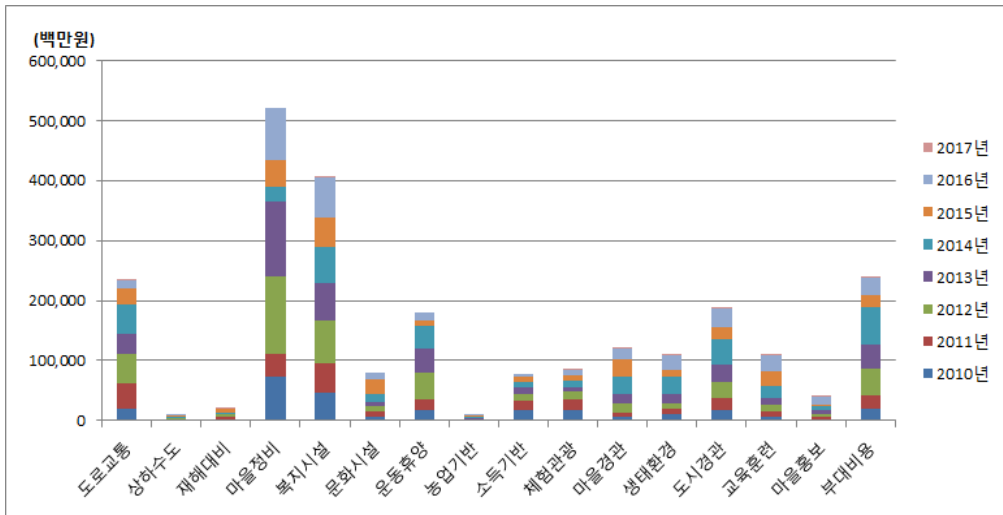
나. 분석 방법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을 통해 RAISE의 자료를 협조받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황을 도식화하고 그 분포 패턴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태를 파악함.

제2절 분석결과

가. 지역개발사업의 내역 세부 사업별 국비 투입량

○ 기능별로는, 마을 정비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약 5,206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으며, 복지시설의 경우 동 기간 4,650억 원이 투입됨.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sie.go.kr). 최종 확인: 2017. 7.19.

<그림 4-1> 기능별 세부 사업 변화 추이

- RAISE 분류를 기준으로 삼으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97개 세부 기능별 내역사업이 추진되었음.
 - 다목적회관, 연결도로, 가로경관정비, 기본계획수립, 생태공원 조성, 지역주민 교육훈련, 운동시설 등에 가장 많은 국비가 투입됨.
 - 반면에,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기계화경작로, 마을사무장 양성 등에는 국비가 가장 적게 투입되었음.

(표 4-2) '10~'17년 세부 기능별 내역사업 국비 투입량 상·하위 10위

단위: 백만 원

상위 순위	기능별 사업명칭	'10-17누적 국비투입량	하위 순위	기능별 사업명칭	'10-17누적 국비투입량
1	다목적회관	668,969	1	문화재지표조사	44
2	연결도로	406,595	2	사전환경성검토	80
3	가로경관정비	313,672	3	재해영향평가	91
4	기본계획수립비	296,511	4	기계화경작로	193
5	생태공원조성	192,886	5	마을사무장양성	364
6	지역주민 교육훈련	164,109	6	생울타리조성	371
7	운동시설	161,932	7	공동이용 전산기기	538
8	미분류	148,840	8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	851
9	마을재정비	130,069	9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	871
10	주차장	113,616	10	귀농프로그램	884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sie.go.kr). 최종 확인: 2017.7.19.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0~'14년 투입 실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4년까지는 읍면소재지종합정비, 권역단위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등의 유형별로 추진됨.
 - 읍면소재지종합정비는 291개 읍·면에서 추진되었으며 권역단위종합정비는 406개소,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은 72개소,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는 46개소가 추진됨.

(표 4-3) '1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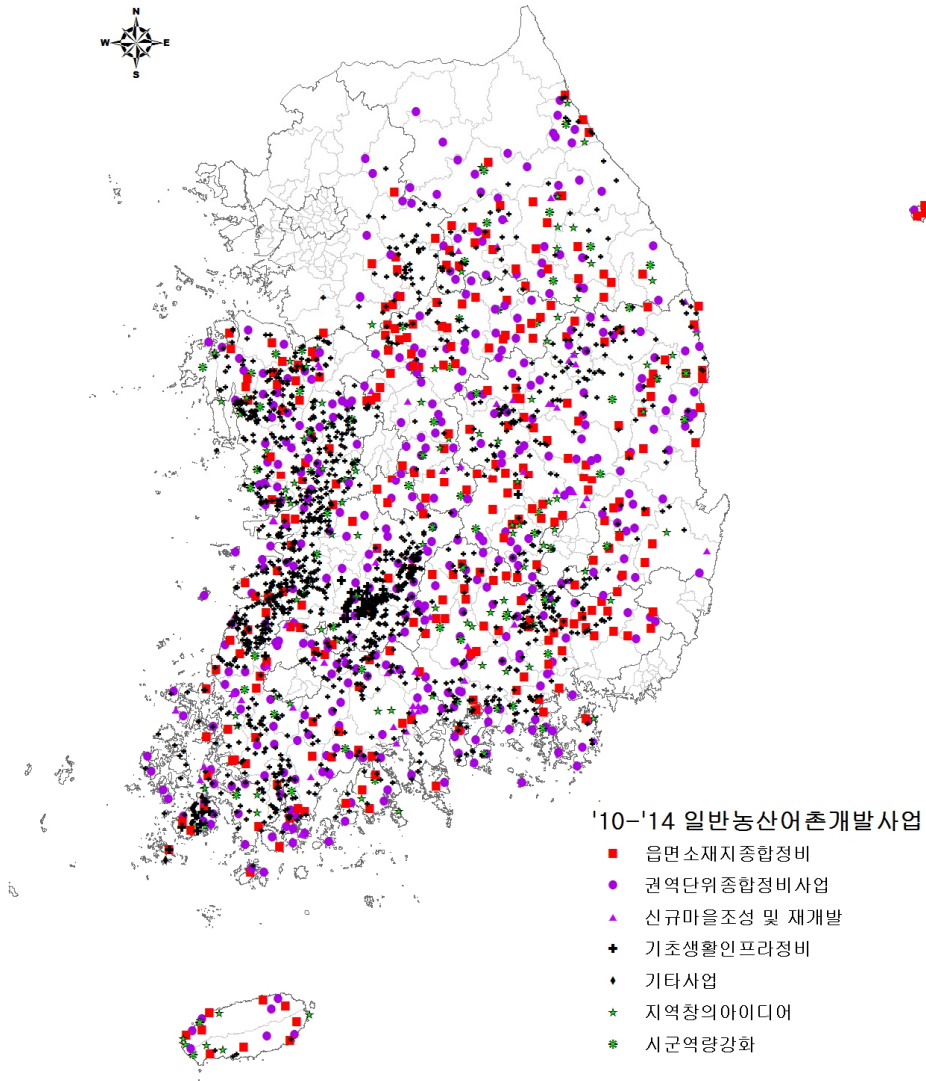
단위: 개소

사업유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합계
읍면소재지종합정비	24	34	67	73	93	291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	16					16
소도읍육성사업	8	1				9
읍면소재지종합정비		33	67	73	93	266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89	85	83	75	74	406
권역단위종합정비		53	82	75	71	28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4					64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23	22				45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2	10	1		3	16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	10	3	25	18	16	72
신규마을조성사업			25	17	16	58
전원마을조성사업	8					8
주거환경개선사업	2	3		1		6
기초생활인프라정비	3	4	16	23	1315	1361
개발촉진지구사업						0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4	23	645	37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2	1	1			4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	2			385	388
어촌체험마을사업						0
농촌빈집정비					114	114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	1		53	55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100	100
소규모용수개발사업					16	16
기타사업					2	2
기타사업	6	2				8
경관보전직불사업지구	6	2				8
시군역량강화					74	74
시군지역역량강화사업					74	74
지역창의아이디어				25	92	117
지역창의아이디어(경관)					41	41
지역창의아이디어(기타)					27	27
지역창의아이디어(문화)				13	12	25
지역창의아이디어(소득)				12	12	24
총합계	132	128	191	214	349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sie.go.kr) 원자료 가공.

최종확인: 2017.7.19.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단,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은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몰려 있는 경향.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sie.go.kr)의 공간정보 원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그림.

<그림 4-2 > '10~'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포도

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5~'16년 투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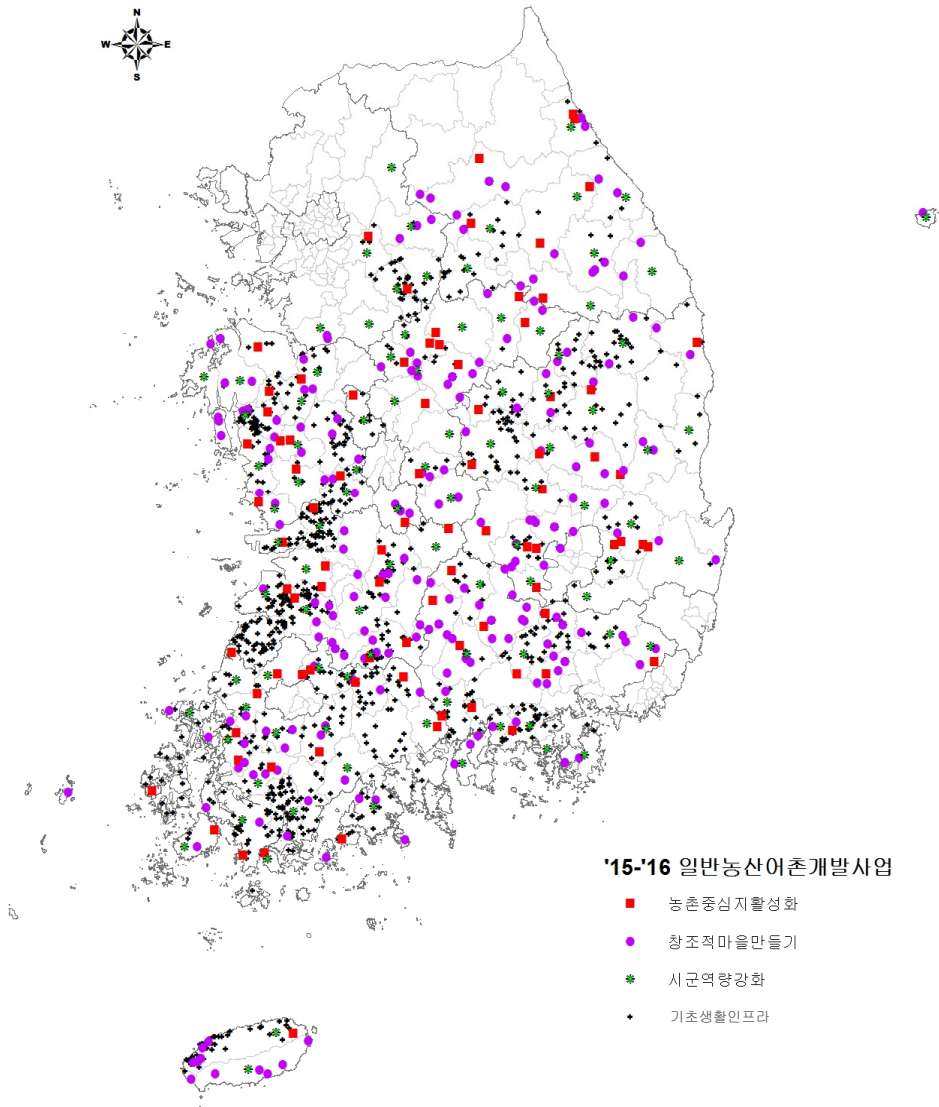
- '15~'16년간 중심지활성화사업에 총 169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399건 등이 투입됨.
 - 사업 선정 지역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

(표 4-4) '15~'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개소, 억 원

유형별	2015		2016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723	8,733	720	8,723
농촌중심지활성화	78	3,110	91	3,931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 포함)	203	3,120	196	2,849
시군역량강화	118	239	122	205
기초생활인프라	308	2,160	293	1,648
기타·협업 사업	16	104	18	90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sie.go.kr) 원자료 가공.
최종확인: 2017.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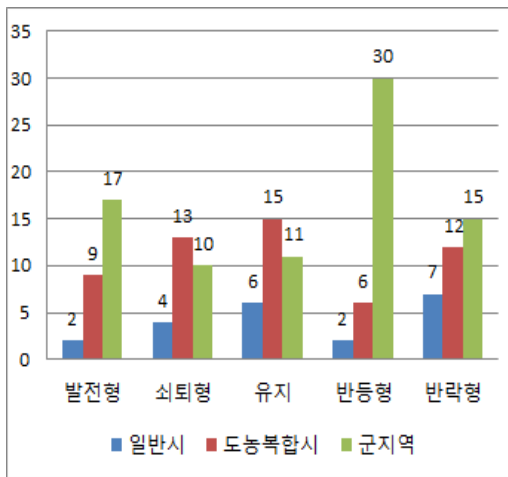


주1: '15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사업은 RAISE에서 미구축.
 주2: '16년 기초생활인프라는 RAISE에서 미구축.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sie.go.kr)의 공간정보 원자료를 사용하여 연구진이 직접 그림.

<그림 4-3> '15~'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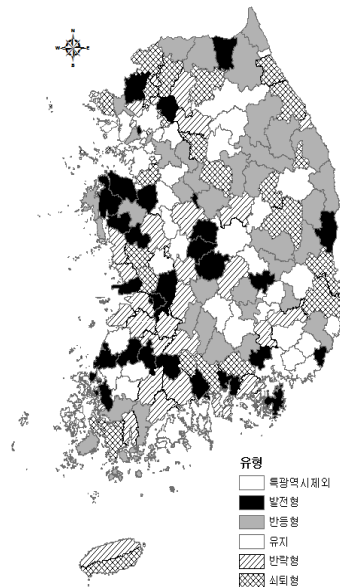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지역에서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²⁾ 2009년, 2012년, 2016년의 3개년 시계열 비교 결과 83개 군 중 47개 군이 발전의 양상을 보임.
 - 일반시 21개 중 4개 시(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전주시)만이 발전형 혹은 반등형이며 11개가 쇠퇴형 혹은 반락형으로 나타남.



자료: 연구진이 직접 작성.

<그림 4-4> 성과 유형별 시·군수



자료: 연구진이 직접 작성.

<그림 4-5> 성과 유형별 분포

2)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는 시·군의 삶의 질 여건 및 발전 정도 진단, 계획 목표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을 위해 지역통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송미령 외의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제언 방안”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임. 지역발전지수는 4가지 부문별 지수의 합으로 정의되며, 매년 혹은 격년으로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상위권 시·군을 발표하고 있음. 지수 산출에 필요한 자료는 공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부문별 지수는 다음과 같음. 지역발전지수 = 생활서비스 지수 + 지역경제력 지수 + 삶의 여유공간 지수 + 주민활력 지수.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중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의 3가지 지역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RDI가 발전하거나 반등한 시·군은 55.4%, 쇠퇴는 9.5%.
- 도시활력증진지역 중 RDI가 발전하거나 반등한 시·군은 25.0%, 쇠퇴는 20.8%.
- 특수상황지역 중 RDI가 발전하거나 반등한 시·군은 46.6%, 쇠퇴는 40.0%.

(표 4-5) 지역 유형별 지역발전성과

	발전형	쇠퇴형	유지	반등형	반락형	총합계
도시활력증진지역	12.5%	20.8%	29.2%	12.5%	25.0%	100.0%(24개 시군)
일반농산어촌지역	20.3%	9.5%	14.9%	35.1%	20.3%	100.0%(74개 시군)
협업	17.4%	19.6%	30.4%	8.7%	23.9%	100.0%(46개 시)
특수상황지역	13.3%	40.0%	0.0%	33.3%	13.3%	100.0%(15개 시군)

주1: 도시활력증진지역과 일반농산어촌지역의 협업이 가능한 시·군은 협업으로 분리.
 주2: RDI가 특광역시를 제외했기 때문에 세종시가 제외되어 일반농산어촌지역이 122개임.
 자료: 연구진이 직접 작성.

제3절 사업 추진 전후의 마을 발전 정도 비교

가. 분석 개요

○ 분석 자료

- 마을(행정리) 수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전후 변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통계자료로는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조사 자료가 유일함.
- 단일 행정리, 몇 개의 행정리나 법정리가 묶여 추진되는 권역, 읍·면 중심 소재지, 행정리 묶음 등 사업에 따라 공간 범위가 다양함.
- 대표적 통계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읍·면·동 수준에서 자료를 제공하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공간 범위보다 커 사업의 효과를 비교하는 데 적절치 못함. 따라서 마을(행정리)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 마을의 변화를 비교함.
-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는 5년 단위로 조사되고 공표됨. 2005년, 2010년, 2015년 자료가 공표되었음.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는 2015년 기준으로 36,792개 행정리의 가구수, 농·림·어가 수 및 비율, 읍·면사무소 소재지 유무,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 대중교통 이용 여부 및 운행횟수, 빈집 수, 31개의 각종 생활 및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³⁾, 경제활동 시설 및 접근성, 생활기반시설, 경제활동 조직(작목반, 어촌계, 산림계, 농어업법인 등), 도농교류 활동(자매 결연, 체험관광, 직거래, 직판장, 음식물 판매 및 숙박제공, 주말 농원 임대 및 분양 등), 쓰레기 처리 방법, 경작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마을(행정리) 비교의 대상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에 시작된

3) 생활서비스시설로서 교육(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입시보습학원, 예능도장, 체육도장), 의료(약국, 보건소, 보건진료소, 병원·한의원, 종합병원), 문화복지(상설영화관, 도서관, 어린이집, 전시·관람시설,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금융(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기타 편의시설(음식료품위주 소매점, 재래시장, 백화점·대형할인점,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미용실, 목욕탕, 119안전센터, 파출소)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한정하였음. 마을이나 지역의 현황을 비교하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가 2015년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임.

○ 자료 구축 방법

- RAISE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내역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이 자료에는 사업 지구의 정확한 행정리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누락된 경우도 종종 나타나 분석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RAISE의 공간 정보(Spatial Data)⁴⁾ 중 내역 사업별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지구에 대한 주소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RAISE의 공간 정보는 크게 사업 개요 정보와 내역사업에 관계된 정보로 구분됨. 사업 개요 자료는 사업별로 1개의 위치 정보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여러 행정리나 법정리에 걸쳐 시행된 곳의 정보를 정확히 얻어낼 수 없음(<그림 4-6>의 동그란 점). 내역사업 개요는 개별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들이 추진된 여러 마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그림 4-6>의 작은 점).

4) 다른 말로 지리정보(GIS,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라고도 함.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는 읍·면 수준의 자료로만 공표됨. 따라서 행정리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통계청 MDIS(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⁶⁾에 요청하여 원시 자료를 구득하였으나, 외부에 제공하는 원시 자료에는 행정리명이 삭제되기 때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들을 찾을 수 없었음. 다행히 MDIS의 원격 접근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부에서 행정리명을 확인할 수 있어 2010년부터 2014년에 사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된 법정리에 속한 1,985개의 행정리를 확인하여 분석하였음.⁷⁾

○ 분석 방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첫 시점이거나 사업 추진 이전 시점인 2010년 현황 자료와 사업 추진 완료 혹은 추진 중에 있는 시점인 2015년 현황 자료를 비교함.

5) 해당 기간 동안('10~'14) 사업유형 중분류상 1,403개 법정리에 총 1,452개 사업이 시행, 총 47개 법정리에서 2개의 사업이 시행되었고, 1개 법정리(강위 평창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3개의 사업(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지역창의아이디어(소득))이 추진됨.

6) <https://mdis.kostat.go.kr/index.do>

7) 2015년, 2010년은 행정리 구역의 변경이 있어서 2015년에 분리 된 행정리는 2010년 기준으로 합치고, 2015년에 합쳐진 행정리는 2010년 행정리를 합쳐서 데이터를 구축함.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마을의 변화 실태

-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작된 행정리(마을)에서 2015년에 대체로 가구 수가 2010년에 비해 증가했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남.
 - 2010년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한 행정리(마을)는 모두 1,164개로 전체 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58.6%를 차지하며, 가구 수가 감소한 행정리(마을)는 3.2%에 불과함.
 - 사업을 시작한 지 상대적으로 오래된 행정리에서만 가구 수 증가가 있었는지, 사업을 시작한지 2~3년 밖에 안된 행정리에도 가구 수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함. 그 결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2010년과 2011년에 시작한 행정리와 2012년, 2013년, 2014년에 시작한 행정리 사이에 큰 차이 없이 모두 가구 수 증가 경향이 나타남.

(표 4-6)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가구수 변화

단위: 행정리 개수

2015년 2010년	20 가구 미만	20~ 39	40~5 9	60~7 9	80~ 99	100~ 149	150~ 199	200~ 299	300~ 499	500 가구 이상	총 합계
20 미만	31 (7)	54 (20)	4 (1)	1	2 (2)		2 (2)	1		1 (1)	96 (33)
20~39	2	236 (68)	202 (62)	31 (11)	8 (5)	1	1		1 (1)	1 (1)	483 (148)
40~59	1	6 (1)	180 (62)	212 (86)	45 (17)	20 (7)	3(1)	3(1)			470 (175)
60~79		1 (1)	5 (3)	82 (28)	130 (49)	76 (33)	4(2)	4(1)			302 (117)
80~99				7 (2)	30 (6)	105 (33)	14 (8)	3 (3)	1 (1)		160 (53)
100~149				1 (1)	3 (2)	78 (24)	79 (26)	24 (7)	3 (1)	1	189 (61)
150~199					1 (1)	3	21 (6)	57 (17)	10 (3)	2 (1)	94 (29)
200~299				1 (1)	1	3	7 (2)	31 (7)	36 (13)	4 (2)	83 (26)
300~499					1(1)	2	2 (2)	8 (3)	42 (22)	18 (8)	73 (37)
500 이상						1	3 (3)	1	4	26 (14)	35 (21)
총합계	34 (7)	297 (90)	391 (128)	335 (129)	221 (83)	289 (100)	136 (52)	132 (39)	97 (45)	53 (27)	1985 (700)

주1: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행정리를 기준으로 2010년~2015년을 연계.

주2: ()의 숫자는 2010년과 2011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행정리수로 사업완료 및 마무리 단계의 마을과 시작 및 중간 단계의 마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시.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2010~2015 원자료 가공.

- 그런데 2010년부터 2014년에 사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작한 행정리의 농업 비중 변화를 보면 대체로 농업 활동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위축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표 4-7)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농업 비율 변화

단위: 행정리 개수

2015년 2010년	~10% 까지	~25% 까지	~50% 까지	~80% 까지	~80% 이상	미상	총합계
~10%까지	150	18	1	0	0	1	170
~25%까지	76	157	10	1	0	0	244
~50%까지	7	182	287	19	1	0	496
~80%까지	6	46	583	308	1	0	944
~80%이상	0	3	0	3	3	4	13
미상	14	2	0	0	0	0	16
총합계	253	408	881	331	5	5	1985

주: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행정리를 기준으로 2010년~2015년을 연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2010~2015 원자료 가공.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 대중교통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운행 횟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후 버스가 운행된다는 행정리가 142개로 늘었고, 버스가 운행되다가 이제는 운행하지 않는다는 행정리가 66개 생겼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 중 2015년 기준으로 버스가 3회 이하 운행되는 행정리는 20.1%에 달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서나 다른 연계사업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표 4-8)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버스 운행 횟수 변화

단위: 행정리 개수

2010년 \ 2015년	대중교통 운행안함	3회 이하	4~10회 이하	11~30회 이하	30회 초과	총합계
대중교통 운행안함	70	30	43	30	39	212
3회 이하	11	112	88	17	2	230
4~10회 이하	29	106	505	148	25	813
11~30회 이하	18	19	152	236	51	476
30회 초과	8	6	47	79	114	254
총합계	136	273	835	510	231	1985

주: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행정리를 기준으로 2010년~2015년을 연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2010~2015 원자료 가공.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에서는 각종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이 매립이나 소각에서 분리수거로 변화됨.

(표 4-9) '10년~'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쓰레기 처리 방법

단위: 행정리 개수

2015년 2010년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일반 생활 쓰레기 처리방법				
	분리	매립	소각	기타	합계	분리	매립	소각	기타	합계
분리수거	663	91	15	160	929	1333	21	145	37	1536
매립	92	57	7	95	251	28	1	4	1	34
소각	10	4	4	5	23	236	4	83	8	331
기타	293	168	23	298	782	71	2	9	2	84
총합계	1058	320	49	558	1985	1668	28	241	48	1985

주: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행정리를 기준으로 2010년~2015년을 연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2010~2015 원자료 가공.

- 일반농산촌개발사업 전후로 사업 추진 행정리(마을)와 그 행정리가 속한 읍·면소재지에 있는 공공 및 생활 서비스 시설 증감 추이를 비교해 본 결과,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도 행정리 내에는 다음의 서비스 시설들이 증가하지 않고 대체로 감소함. 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읍·면 소재지에는 병의원·한의원, 도서관, 어린이집, 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등이 2010년에 비해 미미하게 늘어났음.

(표 4-10)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각종 공공 및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 변화

단위: %, (행정리 개수)

	행정리 안에 있음		읍면소재지에 있음	
	2010	2015	2010	2015
유치원	18.3(364)	14.2(281)	52.5(1043)	49.5(982)
초등학교	18.8(373)	14.2(281)	53.9(1069)	53.1(1054)
중학교	18.7(372)	9.5(188)	58.4(1160)	42.9(852)
고등학교	10.7(213)	5(100)	45.1(895)	20.8(412)
입시보습학원	10(198)	6.8(135)	31.7(630)	20.6(408)
예능학원	11(219)	7.5(148)	27.7(549)	23.2(461)
체육도장	11(219)	6.1(122)	27.1(537)	22.8(453)
약방	17.7(352)	13.1(261)	47.2(936)	44.7(888)
보건진료소	11.3(224)	4.8(95)	31.1(617)	29.6(587)
보건소	15.6(309)	7.1(141)	59(1171)	56(1112)
병의원한의원	13.1(261)	11.1(220)	34.5(684)	35.6(707)
종합병원	0.8(16)	0.5(10)	3.3(66)	2.8(56)
상설영화관	0.4(8)	0.4(7)	2.2(44)	1.8(36)
도서관	6.6(132)	5.8(116)	24.6(488)	24.6(489)
어린이집	14.4(285)	11.1(221)	36.1(717)	38(754)
협동조합(지소포함)	18.5(367)	7.5(148)	63.2(1254)	64.6(1283)
우체국	16.3(324)	7.6(150)	65.3(1297)	65.4(1298)
새마을금고	7.5(149)	2.9(58)	26.6(529)	24.9(494)
은행	2(40)	2.6(52)	9(178)	13.6(269)
119센터	11.9(236)	5.2(103)	42.1(835)	41.6(826)
파출소	16.6(330)	7.3(144)	64.4(1278)	61.2(1214)

주1: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행정리를 기준으로 2010년~2015년을 연계.

주2: 10-14년에 일반농산어촌 사업이 추진된 1985개 행정리를 대상.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2010~2015 원자료 가공.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2010년에 법인이 1개도 없던 경우가 전체 1,985개 행정리 중 98.1%를 차지하는 1,948개였음(법인이 있는 행정리는 37개). 2015년에도 95.8%인 1,901개 행정리에 농업회사 법인이 없지만, 53개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농업회사 법인이 생겨난 것으로 파악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에는 대상 행정리 중 1,549(78.0%)개가 도농교류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사업 시작 후에는 1,256개(63.3%)가 도농교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시작한 행정리(마을)들에서는 도농교류 활동이 증가하였음.

(표 4-11) '10~'14년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행정리의 도농교류 활동 변화

단위: 행정리 개수

2015년 2010년	도농교류 활동없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총합계
도농교류 활동없음	1,084	303	109	43	7	3	0	1,549
1가지	118	85	44	9	3	2	0	261
2가지	26	25	17	6	3	1	0	78
3가지	17	13	4	11	5	0	0	50
4가지	10	7	6	4	1	1		29
5가지	1	1	1	0	4	3	3	13
6가지	0	1	1	0	3	0	0	5
총합계	1,256	435	182	73	26	10	3	1985

주: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행정리를 기준으로 2010년~2015년을 연계.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편 2010~2015 원자료 가공.

제 5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제1절 성과 평가 개요

가. 성과 지표체계에 따른 평가

- 투입(input)-실적(output)-결과(result)-과급효과(impact) 등의 지표 체계에 따른 성과 평가

나. 분석 목적

- 예산 투입 결과 나타난 실적 유형 분류
 - 예) 물리적 인프라 형성·정비 예산(H/W) vs 경상적 성격의 예산(S/W).
 - 예) H/W 분야 예산 투입의 세부 실적 유형: 도로 등 교통시설, 복지시설, 상업시설, 공원, 경관조성, 간판, 관광시설 등.
 - 결과(result) 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

- 실적 유형별 예산 비중 변화 검토
 - 동일한 사업에서 특정 유형의 실적을 산출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변화했는가, 혹은 변화하지 않았는가?
 - 예) 권역정비사업에서 소득시설 조성에 사용된 예산의 변화 추이.

- 투입 대비 실적 비율 검토
 - 같은 유형의 실적을 산출하는 데 쓰인 예산 투입이 연도에 따라서, 혹은 사업 실행 대상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연도별 차이가 많은 경우 해당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는 도중에 추진 방향에 상당한 변경이 있었음을 뜻할 수 있으며, 대상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경우 사업 실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음.

다. 분석 대상 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2014년까지 추진되었고, 20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재편됨. 다른 내역사업과 비교할 때 두 사업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함께 분석하였음.
 - RAISE에 기본계획이나 예산집행 내역이 등록된 사업 중 141개를 연도별로 층화 추출(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99개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2개소).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2010년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이 있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됨. 2015년 이후 ‘창조적마을만들기’라는 범주 안에 권역 단위와 마을 단위의 구분이 생기고, 마을 단위 사업은 다시 여러 가지로 세분되는 등 큰 변동이 있었음.

-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시작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91개를 연도별로 총화추출하여 분석함.
- 2015년과 2016년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중 ‘권역단위’사업만을 표본으로 추출함.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 RAISE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2,300개의 사업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데, 2014년과 2015년에 시행된 사업이 2,243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관련 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1,134개소),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169개소), 농촌빈집정비사업(208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689개소), 소규모용수개발사업(29개소), 지표수보강개발사업(71개소) 등 총 6개 사업.
- 농촌빈집정비,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RAISE에 기본계획이나 예산집행 내역이 등록된 전 사업을 분석함.⁸⁾
 - 농촌빈집정비사업(2014년 13시군, 2015년 14시군), 소규모용수개발사업(21개소), 지표수보강개발사업(52개소).
- 나머지 세 개 사업은 2014~2015년 사이에 시행된 사업 대상지 658개소의 자료를 표본으로 삼아 분석함.
 -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243개소),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87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328개소).

8) 농촌빈집정비사업의 경우,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이 시군단위로 등록되어 있음.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의 경우, 2010년-2015년 시행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11개소가 2014-2015년 사업임.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경우, 2008-2015년 시행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23개소가 2014-2015년도 사업임.

제2절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가. 예산 투입

- 사업 개소당 총사업비는 78.1억 원이며, 그 가운데 물리적 인프라 정비에 투입된 예산이 평균 65.9억 원으로 84.3%를 차지함.
 - 컨설팅,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홍보, 운영 지원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은 평균 3.7억 원으로 4.7%를 차지함.
 -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외에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상의 경비(예: 계획수립 비용, 잡지출 등)는 평균 8.5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10.9%.

-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 세목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시설’ 조성 비용임. 평균 22.9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9.3%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도로 및 교통 시설’ 조성 비용 14.8억 원(19.0%), ‘경관’ 조성 비용 12억 원(15.4%), ‘공원’ 조성 비용 8.6억 원(11.0%) 등의 순임.
 - 복지시설, 도로 및 교통시설, 경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전체 사업비의 74.7%가 투입되었음.
 -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예산으로 평균 1.7억 원(2.2%)이 투입되었음. 그밖에 ‘컨설팅’, ‘홍보’, ‘운영 지원’ 등의 세목으로 투입된 예산의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었음.

-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비교할 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입 비중이 다소 낮아졌음.
 - ‘도로 및 교통시설’ 그리고 ‘경관’에 대한 투입이 대폭 줄었고,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이 크게 늘었음.
 -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입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도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투입은 근년에 큰 폭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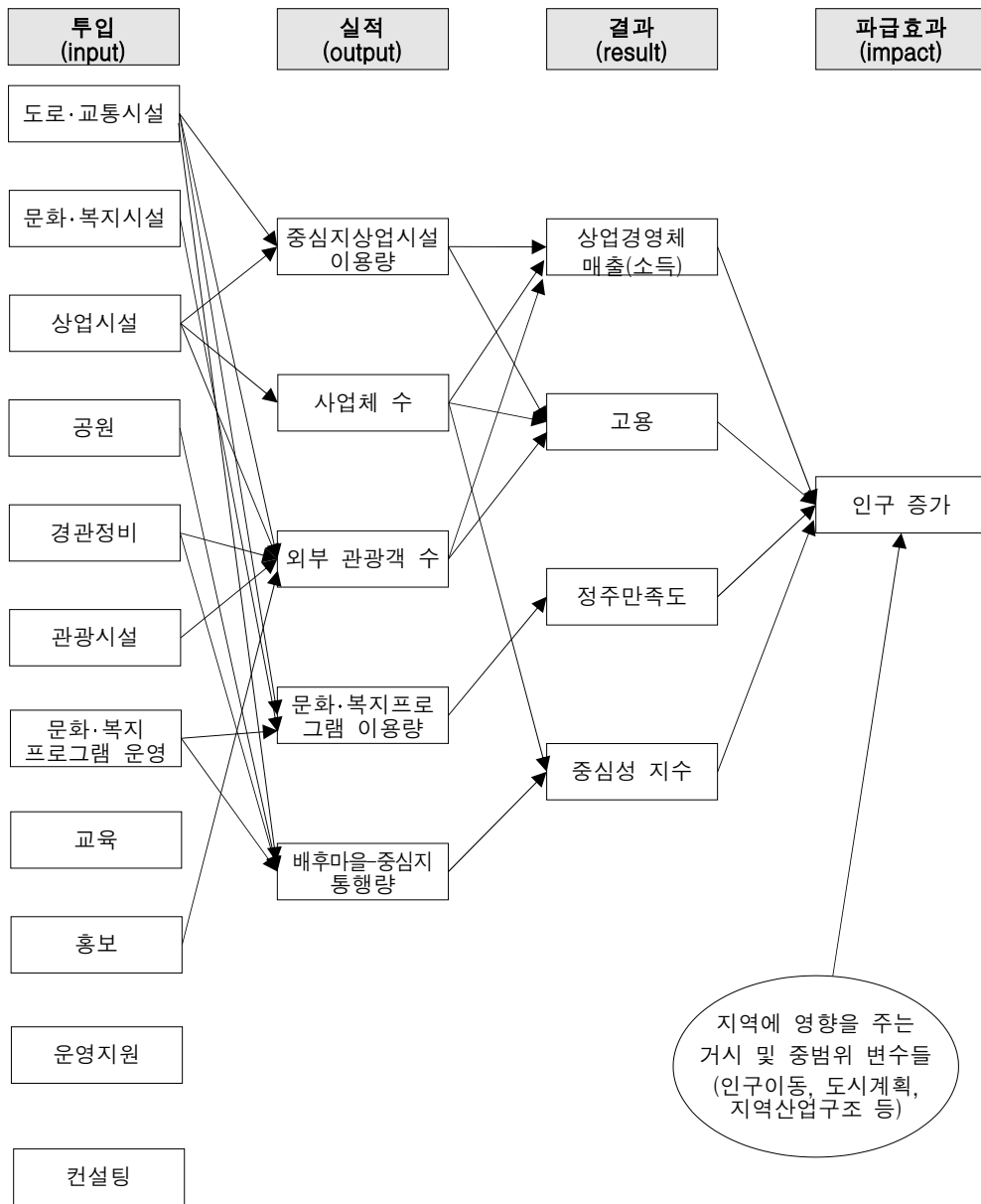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정 평가 때에 문화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한 경우 가점을 주기로 한 조치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측됨.
 - 2016년 사업시행지침에서 “S/W와 H/W가 결합된 복합사업으로 계획하되, H/W사업보다는 S/W사업을 적극 발굴(예: 복지회관사업→복지회관건립(H/W)+공연·교육프로그램(S/W)+복지회관 운영·관리(S/W)”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이 같은 변화는 큰 폭은 아니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민들이 중심지에 소재한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임.
- 문화 및 복지 시설 등을 확충하는 일에 대한 투입이 증가하는 경향은 중심지에서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로소 활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통상적인 관념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같은 서비스 전달에는 계속해서 경상운영비가 소요될 것임.
 - 시설 규모에 걸맞은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사업시행지침이 제시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적은 성과 평가 측면에서는 추상성이 높아서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움.
- 평가 지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별도로 제시한 것도 아님.
 - “목적: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표 5-1)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실적

단위: 백만 원

투입 항목9)	전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사업비	7,813	7,000	7,063	7,896	8,834	7,158	7,346	6,320	8,012
물리적인프라 (H/W)	6,590 84.3%	5,197 74.2%	5,773 81.7%	6,764 85.7%	7,554 85.5%	6,052 84.5%	6,215 84.6%	5,098 80.7%	6,025 75.2%
경상비 (S/W)	369 4.7%	493 7.0%	364 5.2%	292 3.7%	214 2.4%	271 3.8%	352 4.8%	541 8.6%	1,056 13.2%
제경비	854 10.9%	1,311 18.7%	926 13.1%	840 10.6%	1,066 12.1%	835 11.7%	779 10.6%	681 10.8%	931 11.6%
도로·교통	1,482 19.0%	446 6.4%	120 1.7%	1,585 20.1%	2,653 30.0%	1,595 22.3%	1,458 19.8%	707 11.2%	836 10.4%
기타인프라	176 2.3%	0 0.0%	0 0.0%	19 0.2%	16 0.2%	6 0.1%	0 0.0%	6 0.1%	0 0.0%
복지시설	2,291 29.3%	2,511 35.9%	1,764 25.0%	1,898 24.0%	2,090 23.7%	2,047 28.6%	2,210 30.1%	2,503 39.6%	3,773 47.1%
상업시설	379 4.9%	294 4.2%	1,103 15.6%	804 10.2%	362 4.1%	215 3.0%	258 3.5%	351 5.5%	252 3.1%
공원	861 11.0%	516 7.4%	507 7.2%	1,265 16.0%	966 10.9%	679 9.5%	526 7.2%	508 8.0%	561 7.0%
경관	1,202 15.4%	1,431 20.4%	545 7.7%	1,033 13.1%	1,333 15.1%	1,221 17.1%	1,601 21.8%	843 13.3%	604 7.5%
간판	65 0.8%	0 0.0%	375 5.3%	110 1.4%	49 0.6%	60 0.8%	127 1.7%	23 0.4%	0 0.0%
관광시설	133 1.7%	0 0.0%	1,360 19.3%	49 0.6%	85 1.0%	230 3.2%	36 0.5%	157 2.5%	0 0.0%
컨설팅	62 0.8%	183 2.6%	45 0.6%	40 0.5%	45 0.5%	59 0.8%	49 0.7%	81 1.3%	67 0.8%
교육·문화·복지	173 2.2%	236 3.4%	116 1.6%	106 1.3%	103 1.2%	109 1.5%	151 2.1%	271 4.3%	776 9.7%
홍보	56 0.7%	70 1.0%	160 2.3%	82 1.0%	48 0.5%	44 0.6%	49 0.7%	55 0.9%	142 1.8%
운영지원	30 0.4%	5 0.1%	43 0.6%	24 0.3%	16 0.2%	17 0.2%	22 0.3%	57 0.9%	72 0.9%
기타 경상비	47 0.6%	0 0.0%	0 0.0%	40 0.5%	2 0.0%	42 0.6%	81 1.1%	78 1.2%	0 0.0%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에 등록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서 또는 시행계획서 예산내역을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임.



<그림 5-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 9) 다음과 같이 항목을 범주화함. 도로·교통 시설(보도, 가로등, 도로, 주차장, 자전거 주차타워, 진입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가로 정비 등), 기타 인프라(상수도 노후관 교체, 주거단지 조성 등), 복지시설 (자치센터, 문화센터, 휴게시설, 게이트볼장, 풋살장, 목욕탕, 화장실, 쉼터 등), 상업시설(장터 정비, 시장환경 개선, 상점가 정비 등), 공원(근린공원, 체육공원, 정원, 광장, 녹지 및 부대시설, 수변생태공원 등), 관광시설(관광 목적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시설, 소규모 테마공원), 교육·문화·복지(리더교육, 주민교육, 국내외견학, 문화복지프로그램, 스토리텔링 수업, 공동체 교육 등), 홍보(브랜드 개발, 홍보 물제작, 축제, 안내지도 제작 등), 운영지원(사무장 인건비, 추진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비 등).

나. 사례 사업 성과 분석

- 사업이 완료된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 투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5-2).
- 사업이 투입된 읍·면 중심지(소재지)마다 평균 72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됨.
 - 최대값은 약 102억 원이었고, 최소값은 50억 원이었음.
 -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평균적으로 총사업비의 85.3%, 경상비에 4.7%, 제반 부대경비에 10.0%가 배분됨.
- 내용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복지시설’ 건립으로 평균 17.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24.8%).
 - 그 다음으로는 ‘도로·교통’으로 17.2억 원(24.0%)였고, 이어서 ‘경관’ 9.5억 원(13.3%), ‘공원’ 8.5억 원(11.9%) 등의 순이었음.
 - ‘상업시설’과 관련된 예산 투입은 4.9억 원(6.8%)에 불과하였음.
- 읍·면 중심지 또는 소재지의 활성화는 해당 지역에 입지한 공공적·상업적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빈도 증진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을 지원할 경상비 투입은 현저하게 적은 편임.
 - 교육·문화·복지 분야의 서비스 제공 등에 투입되는 경상비 지출은 약 1.0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1.5% 수준이었음.
- 도로 및 교통에 대한 예산 투입이 주민의 중심지 접근성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도로 신축보다는 확포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그 필요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표 5-2)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단위: 천 원

투입 항목 ¹⁰⁾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
총사업비	7,155,578	10,232,552	5,000,000	7,000,000
물리적인프라 (H/W)	6,105,448 85.3%	9,840,418	3,900,000	5,824,000
경상비 (S/W)	336,174 4.7%	950,000	0	309,840
제경비	713,956 10.0%	1,538,700	0	767,500
도로·교통	1,716,651 24.0%	6,198,146	0	1,380,000
기타인프라	25,813 0.4%	372,000	0	0
복지시설	1,777,167 24.8%	4,061,376	0	1,913,500
상업시설	485,209 6.8%	4,263,532	0	0
공원	853,923 11.9%	3,392,000	0	568,250
경관	952,611 13.3%	5,017,000	0	630,208
간판	53,125 0.7%	322,000	0	0
관광시설	240,949 3.4%	2,128,343	0	0
컨설팅	86,506 1.2%	625,000	0	39,550
교육·문화·복지	104,849 1.5%	286,000	0	107,000
홍보	44,575 0.6%	177,000	0	10,100
운영지원	17,144 0.2%	72,000	0	8,500
기타 경상비	83,100 1.2%	700,000	0	0

주: 총 16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또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대상 소재지는 다음과 같음: 고현면, 남상면, 능주면, 도안면, 백사면, 시종면,
 양남면, 춘양면, 엄정면, 오수면, 이서면, 정선읍, 진부면, 표선면, 해미면, 홍산면.
 자료: 현장 면담조사 결과.

- 읍·면 중심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사업은 해당 읍·면의 여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투입을 적절히 편성하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됨. 두 가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읍·면 주민들이 느끼는 수요의 양과 질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구상하며 서비스 전달 조직까지 구성하는 치밀한 계획과 역량 강화 활동이 동반될 경우,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짐(예: 남상면, 도안면, 춘양면).
 -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읍면 중심지의 상업시설, 교통시설, 경관 등을 ‘관광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재편하거나 보완해 성과를 높임(예: 춘양면, 양남면, 정선읍).

10) 다음과 같이 투입 항목을 범주화하였음. 도로·교통 시설(보도, 가로등, 도로, 주차장, 진입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가로 정비 등), 기타 인프라(상수도 노후관 교체, 주거단지 조성 등), 복지시설(자치센터, 문화센터, 휴게시설, 게이트볼장, 풋살장, 화장실, 쉼터 등), 상업시설(장터 정비, 시장환경 개선, 상점가 정비 등), 공원(근린공원, 체육공원, 정원, 광장, 녹지 및 부대시설, 수변생태공원 등), 관광시설(관광 목적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시설, 소규모 테마공원), 교육·문화·복지(리더교육, 주민교육, 국내외견학, 문화복지프로그램, 공동체 교육 등), 홍보(브랜드 개발, 홍보물제작, 축제, 안내지도 제작 등), 운영지원(사무장 인건비, 추진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비 등).

(표 5-3)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례지역 투입 분야별 결과

단위: 만 원, 명[연인원]

읍면	복지 시설	공원	경관	도로 교통	관광	상업 시설	교육문화 복지 프로그램	역량 강화	일자리, 매출액, 방문객
거창군 남상면	3,000명 ¹⁾ 1080만원 ²⁾ 상 ³⁾	상	상					하 ⁴⁾	상용(1)/일용(20) 매출(25,80만원) 방문객(2712명)
증평군 도안면	상 ¹⁾	상							상용(1)
충주시 엄정면								하	
영암군 시종면	하 ¹⁾		중					하	
회순군 능주면	중 ¹⁾	하 ²⁾	하 ³⁾	하 ⁴⁾	하 ⁵⁾			하	상용(1)
서귀포시 표선면	중 ¹⁾			상 ²⁾	중 ³⁾				상용(1)
서산시 해미면			상 ¹⁾					상 ²⁾	상용(1)

남상면: 1) 다목적센터 이용 연인원, 2) 체육시설 연간 이용료 수입, 3) 면민 행사장소로 자주 이용, 4) 동아리활동을 기획했으나 성과 없이 끝남.

도안면: 1) 다목적 회관을 조성해 노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로 제공, 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 주민자치 위원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문화여가 활동 전개, 2) 폐축사를 철거한 자리에 지역 역사 인물을 테마로 한 공원 조성

시종면: 1) 복지회관 리모델링 후 주민 이용률 현저하게 저하, 게이트볼장을 정비했으나 주민 이용률 낮음.

능주면: 1) 면민도서관을 신축했으나 이용률이 매우 낮고, 리모델링한 마을목욕탕은 어느 정도 활용됨. 게이트볼장을 정비했으나 이용률 낮음, 2) 수변공원을 조성했으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음, 3)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낡은 전봇대와 전선이 남은 구역이 많음, 4)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이용률이 매우 낮음, 5) 객사를 정비하면서 전시관과 숙박시설을 확보하였으나 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없어 활용률이 낮음.

표선면: 1)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노인회 사무실, 체력단련실, 결혼피로연장소 등의 용도로 사용함. 주민숙원사업이어서 만족도는 높으나, 공간활용의 비효율이 있음, 2)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장례식장 주차장을 설치해 만족도 높음, 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 만족도 높음, 3) 지역의 어린이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하여 이용되고 있음.

해미면: 1) 전산주 지중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음, 2) 일본 교토 등 역사유적이 있는 지역의 경관규제에 관한 선진지 견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는 데 주민들이 적극적이었음.

자료: 현장 면담조사 결과.

(표 5-3)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례지역 투입 분야별 결과(계속)

단위: 만 원, 명[연인원]

읍면	복지 시설	공원	경관	도로 교통	관광	상업 시설	교육문화 복지 프로그램	역량 강화	일자리, 매출액, 방문객
봉화군 춘양면	상 ¹⁾				상 ²⁾	상 ²⁾	상 ¹⁾	상 ²⁾	
경주시 양남면				상 ¹⁾	상 ²⁾	상 ²⁾			
정선군 정선읍			상	상	상	상		상	방문객증가 (9만명+) 상용(1)
평창군 진부면				중 ¹⁾					
이천시 백사면				상 ¹⁾					

춘양면: 1) 주민문화자치센터를 건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배치, 봉화군은 맞춤형복지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차량을 이용해 접근성이 불리한 마을 및 이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전달(예: 찾아가는 이동한글학교), 2) 재래시장을 정비하면서 '시장활성화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을 결합,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추진, 주말문화장터(야시장) 성황리에 운영.

양남면: 1) 관광명소인 주상절리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해 발생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 2)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방문객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경관 및 관광시설을 정비해 관광객 증가에 기여.

정선읍: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전선지중화, 주차장 조성, 상인 등 주민 교육을 통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내용 전체를 정선5일장을 찾는 관광객에 대응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편성함.

진부면: 1) 주차장을 설치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의 방문객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백사면: 1) 산수유축제 때에 지역을 찾는 20만 명 정도의 방문객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

자료: 현장 면담조사 결과.

제3절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가. 예산 투입

- 사업 개소당 총사업비는 44.8억 원, 그 가운데 물리적 인프라에 투입된 예산은 평균 34.1억 원으로 76.2%를 차지함.
 - 소프트웨어 부문 사업 예산은 평균 3.3억 원으로 7.4%의 비율임.
 - 계획 수립 및 사업 실행 과정상에 투입되는 경비는 평균 7.4억 원(16.4%)임.

-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 투입 세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광시설’임. 평균 15.3억 원으로, 사업비의 34.1%를 차지함.¹¹⁾
 -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복지 시설’ 조성 비용 8.8억 원(19.7%), ‘경관’ 조성 비용 4.5억 원(10.1%),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비용 2.8억 원(6.2%),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조성 비용 2.2억 원(4.8%) 등의 순이었음.
 - 소프트웨어 부문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교육 훈련’ 비용으로 평균 1억 원(2.3%)이 투입됨.

-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투입 비중이 2014년 이후 상당히 감소했음.
 - 특히 2015년에 ‘창조적마을만들기’라는 명칭으로 세부사업 편제가 재편된 이후, ‘기초생활인프라’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부문 투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임.
 - 사업 편제 재편과 더불어 권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 단위에서 공동 문화복지 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같은 투입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추측됨.

11) 도농교류센터, 방문객센터, 다목적회관을 모두 ‘관광시설’로 분류하였음. 단, 다목적회관 중 시설 조성 비용이 5억 원 미만으로 소규모인 것은 ‘문화체육복지시설’로 분류함.

- 191개 분석 대상 권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산 투입 세목은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으로, 190개 권역에서 이 세목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 다음으로는 ‘관광시설’인데 191개 권역 중 182개 권역에서 예산을 투입하였음(95.3%).
 - 이어서, ‘문화·체육·복지시설’ 조성에 166개 권역(86.9%), ‘경관’ 조성에 165개 권역(86.4%), ‘농산물가공·유통시설’ 조성에 82개 권역(42.9%)이 예산을 투입하였음.
 - 소득시설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일정 비율 자부담을 하도록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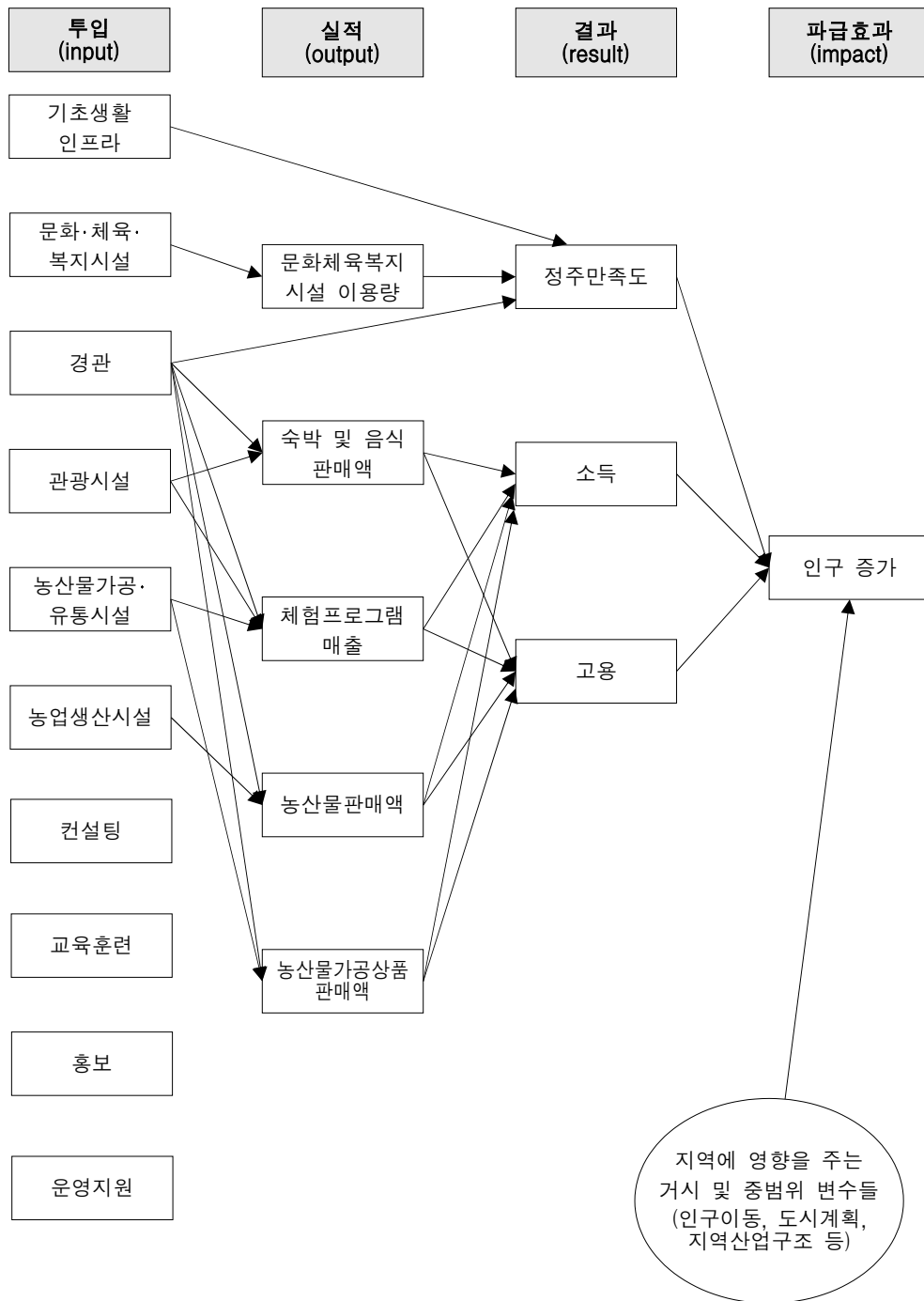
(표 5-4)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단위: 백만 원

투입항목 ¹²⁾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사업비	4,484	5,493	4,812	4,004	3,782	3,605	3,475
물리적 인프라 (H/W)	3,416 76.2%	4,219 76.8%	3,700 76.9%	3,034 75.8%	2,829 74.8%	2,721 75.5%	2,723 78.3%
경상비 (S/W)	333 7.4%	373 6.8%	328 6.8%	330 8.2%	297 7.9%	343 9.5%	205 5.9%
제경비	735 16.4%	901 16.4%	784 16.3%	640 16.0%	656 17.4%	541 15.0%	548 15.8%
기초생활 인프라	277 6.2%	417 7.6%	293 6.1%	192 4.8%	258 6.8%	80 2.2%	- 0.0%
문화체육복지	882 19.7%	793 14.4%	1,114 23.1%	1,007 25.1%	745 19.7%	526 14.6%	423 12.2%
농업생산	59 1.3%	84 1.5%	133 2.8%	14 0.3%	9 0.2%	34 1.0%	- 0.0%
가공·유통	217 4.8%	361 6.6%	206 4.3%	207 5.2%	95 2.5%	114 3.2%	462 13.3%
관광	1,528 34.1%	2,137 38.9%	1,503 31.2%	1,229 30.7%	1,149 30.4%	1,575 43.7%	1,565 45.0%
경관	452 10.1%	427 7.8%	451 9.4%	385 9.6%	572 15.1%	391 10.8%	274 7.9%
컨설팅	72 1.6%	73 1.3%	77 1.6%	69 1.7%	69 1.8%	80 2.2%	31 0.9%
교육/훈련	102 2.3%	109 2.0%	87 1.8%	112 2.8%	101 2.7%	109 3.0%	64 1.8%
홍보	65 1.4%	93 1.7%	58 1.2%	58 1.4%	52 1.4%	54 1.5%	43 1.2%
운영지원	65 1.4%	70 1.3%	63 1.3%	68 1.7%	57 1.5%	62 1.7%	68 2.0%
기타 경상비	28 0.6%	27 0.5%	42 0.9%	23 0.6%	17 0.5%	38 1.1%	- 0.0%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에 등록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기본계획서 또는 시행계획서 예산내역을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임.

12) 다음과 같이 투입 항목을 범주화하였음. 기초생활인프라(마을간 연결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재해대비 시설, 가로 정비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운동시설,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쉼터, 정자, 다목적회관(5억 원 미만) 등), 농업생산시설(축사, 공동육묘장, 농업용관배수로 등), 농산물가공·유통시설(저온저장고, 장류제조 및 저장시설 등), 관광시설(직판장, 체험장, 마을안내관, 도농교류센터, 방문객센터, 다목적회관(5억 원



<그림 5-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평가 지표 구조

이상)), 경관(담장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공원, 산책로, 등산로, 꽃길조성 등).

나. 사례 사업 성과 분석

- 사업이 완료된 13개 권역을 대상으로 예산 투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5)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예산 항목별 평균 투입

단위: 천 원

투입 항목 ¹³⁾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
총사업비	5,390,715	6,929,000	3,380,000	6,057,000
물리적 인프라 (H/W)	4,150,454 77.0%	5,795,975	2,553,000	4,039,000
경상비 (S/W)	310,308 5.8%	456,400	0	371,000
제경비	929,953 17.3%	1,943,000	0	845,601
기초생활 인프라	182,956 3.4%	380,000	0	224,000
문화체육복지	369,281 6.9%	852,584	0	260,949
농업생산	45,846 0.9%	596,000	0	0
가공·유통	263,070 4.9%	1,179,000	0	215,342
관광	2,468,061 45.8%	4,079,000	1,020,000	2,581,000
경관	672,265 12.5%	1,960,000	0	675,440
컨설팅	47,835 0.9%	153,000	0	0
교육/훈련	148,975 2.8%	480,000	0	161,200
홍보	59,299 1.1%	186,000	0	0
운영지원	48,534 0.9%	130,000	0	45,946
기타 경상비	154,640 2.9%	456,400	0	0

주: 총 13개 권역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대상 권역은 다음과 같음: 가시리, 경천애인, 곰내미, 동부오리, 둔덕, 백마강, 사평, 삼기, 신리, 왕인촌, 추평호, 칠갑산, 화암.
자료: 현장 면담조사 결과.

13) 다음과 같이 투입 항목을 범주화하였음. 기초생활인프라(마을간 연결도로, 마을안길, 상하수도, 제

- 권역당 약 54억 원의 예산을 총사업비로 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77.0%(약 41억 원)를 투입함.
 - 경상비에 5.8%(약 3억 원), 계획수립 용역 등 제반 부대경비에 17.3%(약 9억 원)를 투입함.

- 용도별 투입 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관광시설 조성’이었음. 평균 25억 원 가량(45.8%)의 예산을 투입함.
 - 이 항목의 대부분은 이른바 ‘도농교류센터’, ‘다목적회관’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건물임.
 - 농촌체험관광을 이례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하는 권역(예: 가시리, 칠갑산, 경천애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관광시설을 조성한 것은 재무성 측면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인 투자임.
 - 권역마다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는 ‘도농교류센터’ 등과 같은 건물 외에도 경관 조성, 역량강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 평균 3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었음. 그런데 평균 매출액이 연 4억 원 정도에 불과함.
 - 관광사업 용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행사, 교육,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 부문 매출액이 평균 이하인 권역에서 해당 시설을 문화·복지·교육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곳은 거의 없음. 주민 편의시설로도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도입하는 데 평균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 대체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개보수하는 데 투입됨.
 - 노후 시설을 보수하는 데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면담 조사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다목적 회관이나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큰 규모로 도입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음. 시설 이용 수요, 시설을 활용한 각

해대비시설, 가로 정비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운동시설, 건강관리실, 마을회관, 쉼터, 정자, 다목적회관(5억원 미만) 등), 농업생산시설(축사, 공동육묘장, 농업용관배수로 등), 농산물가공·유통시설(저온저장고, 장류제조 및 저장시설 등), 관광시설(직판장, 체험장, 마을안내관, 도농교류센터, 방문객센터, 다목적회관(5억원 이상)), 경관(담장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공원, 산책로, 등산로, 꽃길조성 등).

중 서비스(프로그램) 공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계획하지 않은 체 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임.

- 경관 조성에 평균 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주변 숲길을 정비하거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권역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가 많음.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결과 지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출액’, ‘방문객 수’, ‘일자리’ 등을,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만족도’와 ‘문화·복지·체육시설 이용량’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음.
 - 문화·복지·체육시설 이용량을 측정해 자료를 축적한 권역은 한 곳밖에 없었음(임실군 둔덕 권역). 그런데 둔덕 권역과 가시리 권역을 제외한 사례 권역 대부분에서 문화·복지·체육 관련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없었음.
 -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만족도 지표 역시 주민 설문조사 등을 따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정량적 측정은 불가함. 그럼에도 주민 면담을 통해 노후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개보수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 경제적 지표의 경우 권역들에서 자료를 축적해 두고 있어 참고할 수 있었는데, 사업 결과(result)는 권역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음. 매출액이 0원인 곳에서부터 20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일자리 창출 역시 최대 31명까지 연간 고용을 유지하는 권역도 있었음.

(표 5-6)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결과

단위: 천 원, 명

권역명	방문객 수	수입 (매출)	일자리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만족도	문화·복지·체육시설 이용 정도
가시리	367,997	421,000	6		*청소년공부방 운영 *주민 동아리 증가
곰내미	-	30,000	-		*사과선별시설 이용률 높음 *다목적회관 이용률 낮음
동부오리	3,000	90,000	-		
둔덕	2,542	44,690	-		*마을학교(연100회) *주민회의 수시 이용
백마강	6,925	350,000	-	*마을안길 정비 만족도 높음(5개 행정리)	
사평	-	-	1 (사무장)	*하수도, 배수로 정비 만족도 높음	*쉼터 이용률 높음 *도농교류체험관 이용률 낮음
삼기	23,039	121,000	1 (사무장)		*경로당 리모델링 만족도 높음
신리	3,600	108,000	-		
경천애인	44,111	1,440,000	12		
왕인촌	14,343	133,000	-		*마을회관리모델링 만족도 높음 *체육시설 이용률 낮음 *쉼터 만족도 높음
용봉산	2,995	24,120	1 (사무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만족도높음 *커뮤니티센터 이용률 낮음
칠갑산	300,000	2,000,000	31		
평균	64,046	394,808	4.3		

자료: 현장 면담조사 결과.

다. 예산 투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에는 여러 개의 세부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부 투입 내역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임.
- 주로 농지까지 접근하는 농로 및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농업 및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수로 개설, 저수지 제당 축조, 취수원 (관정 등) 설치 등의 내용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전형적인 농업용수 관개 목적의 토목사업으로서,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사업 내용이어서 지자체 재량에 많이 맡기는 포괄보조금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표 5-7)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유형별 예산 투입 현황

단위: 백만 원, km, 동

사업유형	예산	투입 항목				사업수
		도로·농로	용수관로	제당	빈집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64,196	307.84				243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15,130		177.54			87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84,735	82.17	46.79			328
소규모용수개발사업	58,163	6.98	42.34	1.31		21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37,813	11.62	189.38	6.42		52
농촌빈집정비	5,333				2,730	27 ¹⁾

주: 농촌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시군단위로 자료가 등록되어 있어 사업개소수가 아닌 시군수임.

자료: 농산어촌지역개발 업무지원 시스템(www.raise.go.kr)에 등록된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의 기본계획서 또는 시행계획서 예산내역을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임.

제 6 장

**설문조사를 통해 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

제6장 설문조사를 통해 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

- 전문가조사 및 공무원조사 내용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성과, 문제점과 개선점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수렴함으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 조사 대상 및 방법

- 농촌지역개발정책 분야 전문가 41명
 -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및 시도 연구원 박사급 연구자, 농촌지역개발 컨설팅 기업 대표, 농촌지역개발정책 관련 공공기관 임원급 근무자 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담당자 48명
 - 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담당자
- 전문가와 시·군 담당자의 특성을 고려한 설문 조사지를 따로 작성하고 전문가에게는 직접 배포 또는 이메일 송부 후 수거하였고,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취합하였음.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는 관련 정부 문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주민 소득 증대, 기초생활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인구 유지, 공동체 활성화, 계획적인 개발, 지역특화발전도모 등으로 종합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 중장기계획(안)(2013~2019):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 도모.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6.27점을 주고 있고 시·군 담당자들은 이보다 조금 높은 6.63점을 주고 있음.

- 주요 목표별로 나누어 볼 때 전문가들은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7.63점)>만이 목표 달성 정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반면 시·군 담당자들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메니티 증진(7.71)>,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7.62점)>, <지역특화발전도모(7.02점)> 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한편, 전문가와 시·군 담당자 모두 <주민소득 증대>와 <인구 유지>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장 낮게 평가함.
 - 전문가보다 시·군 담당자의 표준편차가 커, 시·군마다 목표 달성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표 6-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목표별 달성 정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목표	목표 달성 정도(목표 달성 효과)	
	전문가 평균 점수(표준편차)	시군 담당자 평균 점수(표준편차)
주민소득 증대	5.24(2.06)	4.94(2.51)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	7.63(1.04)	7.62(1.60)
어메니티 증진(경관, 주거공간 등의 개선 포함)	6.61(1.53)	7.71(1.62)
인구 유지(도시민 유입 포함)	5.51(1.79)	5.42(2.39)
공동체 활성화(지역역량강화 포함)	6.66(1.87)	6.92(2.09)
계획적인 개발	6.39(1.60)	6.98(1.86)
지역특화발전 도모	5.90(1.76)	7.02(2.11)
종합평가	6.27(1.53)	6.63(1.95)

주1: 목표 달성 정도(효과) 평가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기준으로 함.

주2: 전문가 41명,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교·분석.

자료: 설문조사.

- 전문가들에게 사업 부문별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질의한 결과 사업 부문별로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과 <계획적인 개발> 등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타 사업 부문과 비교 시 가장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목표 달성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역시 <공동체 활성화> 목표 달성에,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조성은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 목표에 상대적으로 달성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표 6-2) 전문가가 바라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문별
주요 목표 달성 정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목표	목표 달성 정도(목표 달성 효과) 평균 점수			
	중심지 (농촌중심지)	마을 (창조적마을)	역량강화 (시·군 역량)	기초생활 인프라
주민소득 증대	5.15	6.05	5.08	4.69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	7.35	5.83	4.58	7.33
어메니티 증진 (경관, 주거공간 등의 개선 포함)	6.48	6.40	4.83	5.90
인구 유지(도시민 유입 포함)	5.83	5.55	4.73	5.10
공동체 활성화(지역역량강화 포함)	6.00	6.78	6.93	4.90
계획적인 개발	6.83	6.08	5.20	5.75
지역특화발전 도모	5.73	6.58	5.75	4.68

주1: 목표 달성 정도(효과) 평가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기준으로 함.

주2: 전문가 41명의 의견을 정리.

자료: 설문조사.

- 시·군 담당자들 역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시·군 담당자에게는 전문가 설문 문항과 달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시·군 농촌지역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선정하게 하였음.
 - 창조적마을만들기 중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 권역종합개발사업 순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표 6-3) 시·군 담당자가 판단하는 농촌지역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업 유형

단위: %

유형별 사업부문	비중
농촌중심지활성화	43.8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마을 단위' 사업	22.9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권역 단위' 사업	12.5
시·군역량 중 '시·군 창의' 사업	0
시·군역량 중 '시·군 역량강화' 사업	8.3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업	12.5
합계	100

주: 시·군 담당자 48명의 1순위 의견을 집계·정리.

자료: 설문조사.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성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 많은 전문가들이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
 - 개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 부재와 사업 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 부처 간 또는 동일 부처 내 사업들 간 조정 부족,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저하, 사업 간 유사·중복성 심화, 소규모 분산투자 심화, 적절한 평가 및 환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대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전문가들은 <개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 부재와 사업 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과 <소규모 분산투자>가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함.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저하>, <사업 간 유사·중복성>, <적절한 평가 및 환류체계 부재>, <부처 간 또는 동일 부처 내 사업들 간 조정·부족>의 문제는 오히려 다소 심화(악화)되었다고 평가함.
 - 시·군 담당자들은 <시·군 내 사업 간 또는 지역 간 연계 효과>를 제외하고는 (표 6-4)의 9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되었다는 의견

- 이 70%를 초과함.
- 특히, <사업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과정의 난이도와 비용>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93.8%에 달하고 있음. 이외에도 <정부의 사업지침이나 규정, 사업추진 과정의 복잡성>, <사업 선정을 위한 시·군 간 경쟁> 등의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적절한 평가 및 환류 체계가 부재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군 담당자들은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부 평가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2%에 달해, 평가에 대해 전문가와 시·군 담당자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음.
 - 시·군 담당자의 경우도 전문가들이 <부처 간 또는 동일 부처 내 사업들 간 조정·부족>의 개선 효과를 낮게 평가한 것과 같이 <시·군 내에서 사업 간 또는 지역 간 연계 효과>의 개선 효과가 낮다고 평가함.

(표 6-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변화 여부

단위: %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요 문제		훨씬 악화	다소 악화	비슷한 수준	다소 개선 (A)	매우 개선 (B)	개선 계 (A)+(B)
전문가	개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의 부재와 사업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	0.0	0.0	24.4	58.5	17.1	75.6
	부처 간 또는 동일 부처 내 사업들 간 조정·부족	0.0	4.9	36.6	48.8	9.8	58.5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저하	2.4	14.6	31.7	41.5	9.8	51.2
	사업 간 유사·중복성	0.0	4.9	29.3	51.2	14.6	65.9
	소규모 분산 투자	0.0	2.4	24.4	63.4	9.8	73.2
	적절한 평가 및 환류체계 부재	2.4	4.9	46.3	39.0	7.3	46.3
시군담당자	시·군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예산	0.0	0.0	22.9	39.6	37.5	77.1
	시·군의 사업구성 및 예산편성 자율성	0.0	0.0	25.0	50.0	25.0	75.0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구성의 복잡성	0.0	2.2	23.9	39.1	34.8	73.9
	사업선정을 위한 시·군 간 경쟁	0.0	0.0	18.8	37.5	43.8	81.3
	정부의 사업지침이나 규정, 사업추진 과정의 복잡성	0.0	2.1	14.6	47.9	35.4	83.3
	사업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과정의 난이도와 비용	0.0	0.0	6.3	54.2	39.6	93.8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부평가	0.0	4.2	16.7	43.8	35.4	79.2
	시·군내에서 사업 간 또는 지역 간 연계 효과	0.0	4.2	35.4	43.8	16.7	60.4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의 가능성	0.0	2.1	18.8	56.3	22.9	79.2
	전반적인 농촌지역개발정책의 개선정도	0.0	0.0	22.9	50	27.1	77.1

주1: 전문가 41명, 시군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주2: 시군담당자 조사의 척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5점 기준으로 함. 0점은 '변화없음'으로 기준점임.

주3: -5점~-4점은 훨씬 악화됨, -3점~-2점은 다소 악화됨, -1점~1점은 비슷한 수준, 2점~3점은 다소 개선됨, 4점~-5점은 매우 개선됨으로 분류.

자료: 설문조사.

-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금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도입은 사업추진 주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시·군담당자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주민조직의 형성·운영>이 증가하였다는 데에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포함.
 - 그 다음으로 전문가들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주체로서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되었다는 점과,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민간부문 및 제3섹터 부문>의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동의함.
 - 반면 시·군 담당자 응답에서는 <시·도의 영향력>,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후 변화가 다소 증가했거나 크게 증가했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함.

(표 6-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변화

단위: %

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변화	인식 수준					
	크게 감소	다소 감소	비슷한 수준	다소 증가 (A)	크게 증가 (B)	증가 비율 (A+B)
기획부서의 역할	0.0	17.5	45.0	25.0	12.5	37.5
	2.1	4.2	39.6	27.1	27.1	54.2
사업부서 다양화	2.5	15.0	50.0	27.5	5.0	32.5
	0.0	0.0	47.9	29.2	22.9	52.1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의 역할 분담 및 부서간 협조·협력 체계 구축	2.5	17.5	45.0	30.0	5.0	35
	2.1	2.1	41.7	29.2	25.0	54.2
행정 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팀이나 관련된 새로운 조직의 창설	0.0	15.0	52.5	20.0	12.5	32.5
	0.0	0.0	43.8	20.8	35.4	56.2
시·군 행정 내에 부서 간 협조·협력체계 구축 증가	0.0	17.5	52.5	27.5	2.5	3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민간부문 참여도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정도	0.0	2.5	42.5	50.0	5.0	55
	0.0	0.0	45.8	35.4	18.8	54.2
민간부문 또는 제3섹터 부문의 참여 증가	0.0	7.5	50.0	40.0	2.5	42.5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참여도	0.0	7.5	50.0	35.0	7.5	42.5
	0.0	0.0	47.9	35.4	16.7	52.1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조직의 형성·운영 및 주민들의 발언권이나 영향력	0.0	0.0	45.0	40.0	15.0	55
	0.0	0.0	8.3	50.0	41.7	91.7
중앙정부의 영향력	0.0	10.0	60.0	22.5	7.5	30
	0.0	2.1	22.9	43.8	31.3	75.1
시·도의 영향력	0.0	12.5	62.5	22.5	2.5	25
	0.0	2.1	20.8	52.1	25.0	77.1

주1: 전문가 41명,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교·분석, 음영은 시·군담당자 비중을 표시한 것.

주2: 5번과 7번 문항은 전문가 조사에만 수행되었음.

주3: 전문가조사는 0점(전혀동의하지 않음)부터 10점(전적으로 동의함)의 11점 척도이며, 이를 0점~1점(크게 감소), 2점~3점(다소감소), 4점~6점(비슷한 수준), 7점~8점(다소 증가), 9점~10점(크게 증가)로 변환함. 이는 전문가 질문이 예컨대 기획부서의 역할 강화가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라고 질의하였기 때문에 동의도가 없는 것은 반대로 감소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환한 것임.

주4: 시군담당자 조사의 척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5점 기준으로 함. 0점은 '변화없음'으로 기준점임.

주5: -5점~-4점은 크게 감소, -3점~-2점은 다소 감소, -1점~1점은 비슷한 수준, 2점~3점은 다소 증가, 4점~-5점은 크게 증가로 분류.

자료: 설문조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 가장 확대된 사업 부문은 <중심지 개발사업>, 가장 축소된 사업 부문은 <기초생활인프라정비>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였음.
 - 마을·권역개발사업은 축소되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역량강화사업은 비교적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평가됨.

(표 6-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 사업부문별 사업량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유형별 사업부문	가장확대	가장축소
중심지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	63.4	2.4
마을·권역개발(창조적마을만들기)	24.4	31.7
역량강화(시·군 역량)	9.8	12.2
기초생활인프라정비	2.4	53.7

주: 전문가 41명의 의견을 정리.

자료: 설문조사.

- 과거 세분화된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던 대부분의 농촌지역개발 사업과 비교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기본·시행계획)의 구속력 또는 실행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계획 구속력 또는 실행력이 과거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전문가는 17.5%이며, 다소 높아졌다는 의견의 전문가(60.0%)를 합하면 77.5%에 이룸.
 - 반대로 사업계획의 구속력 또는 실행력이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는 의견은 5.0%에 그치고,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전문가는 17.5%임. 매우 낮아졌다는 의견은 없음.

다. 시·군 담당자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실태 파악 수단 조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방법, 관련 제도, 정부 지침이나 규정, 사업 내용 등을 전달하는 데 있어 시·군 담당자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대체로 어렵다는 의견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음.
- 다만, 일선 시·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한 경험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높지 않았음.

(표 6-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의 이해도 인식 수준

단위: %

구분	이해불가	이해하기 어려움	이해할 만함	이해됨	명료하게 이해됨
추진체계, 제도, 관련 지침, 규정 사업 내용에 대한 전달력	0.0	16.7	41.7	37.5	4.2

주1: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주2: 시·군 담당자 조사의 척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기준으로 함.

주3: 0점은 이해불가, 1~3점은 이해하기 어려움, 4~6점은 이해할만함, 7~9점은 이해가 됨, 10점은 명료하게 이해됨으로 구분.

자료: 설문조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주로 담당 공무원이 추진위원회, 현장포럼 등에 직접 참여하여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고, 용역업체 또는 컨설팅조직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그 뒤를 따랐음.

(표 6-8) 시·군의 지역 현장 실태 파악 방법

단위: %

시·군의 주민 수요 및 현장 실태 파악 방법	성공요인의 중요성		
	1순위	2순위	1,2순위 합
주민 추진위원회의 모임 활성화 지원	33.3	19.6	52.9
시·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실시	0	4.3	4.3
용역업체 또는 컨설팅조직을 통해 파악	22.9	32.6	55.5
담당 공무원이 추진위원회, 현장포럼 등에 직접 참여	35.4	26.1	61.5
행정주도 회의 활용(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4.2	8.7	12.9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역 내 제3섹터 조직(마을기업, 공동체 회사, 사회적 기업 등) 활용	4.2	8.7	12.9
합 계	100	100	-

주: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자료: 설문조사.

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점과 개선 수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비계획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자체역량 부족>을 가장 큰 문제라고 선택하였으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시에는 <주민들의 계획 수립 참여와 갈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함.
 - <내역사업 세분화로 인한 계획수립 경직성>은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있어 모두 두 번째 주요한 문제로 선택됨. 역량 부족이나 주민 참여 부족 등 조정하기 어려운 부문도 있지만, 계획 수립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단계' 주요 문제점(복수응답)

단위: %

사업계획 수립 단계 주요 문제점	사업계획 단계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내역사업의 세분화로 인한 계획수립 경직성	13.8	18.3	14.4
중앙정부(부처·청)의 간섭이나 통제	6.4	6.5	2.2
도(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이나 통제	0	5.4	2.2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자체역량 부족	21.3	9.7	5.6
컨설팅 업체의 계획수립 지원 부족	0	1.1	1.1
계획수립 절차와 단계의 복잡함	8.5	15.1	10.0
계획수립 시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11.7	5.4	12.2
주민들의 계획수립 단계 참여 부족과 주민 갈등	10.6	19.4	24.4
중간지원조직,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네트워크 부족	1.1	2.2	1.1
사업계획 수립에 드는 과도한 비용	4.3	2.2	1.1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자원 특화형 사업계획 수립의 제한	5.3	4.3	11.1
위원회 등 사업 관련 주민조직 구성의 어려움	7.4	1.1	6.7
리더의 부재나 리더의 역량 부족	9.6	9.7	7.8
합 계	100	100	100

주1: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주2: 기타 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기타응답/전체응답 비중은 예비(1/95), 기본(1/94), 시행(2/92)임.

주요 기타 의견은 사후관리 예측 부족임.

자료: 설문조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 및 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 부족>을 꼽았고, 시·군 담당자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부족과 갈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시·군 담당자 조사 시에는 <사업추진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사업 계획 및 추진을 위한 지역 역량 부족>을 분리하여 질의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됨. 전문가 조사처럼 지역의 역량 부족으로 묶는다면 시·군 담당자들도 역량 부족을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체계의 부족>과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에 한계 존재>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선택한 응답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55.0%로 나타남.

- 시·군 담당자들의 응답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부족과 갈등>과 더불어 역량 부족과 관련한 문제를 합치면 46.7%에 달하고 있고, 내역사업의 <세분화로 인한 경직성>,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복잡함>, <부지확보의 어려움>까지 더하면 81.2%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지역의 역량 부족과 주민참여의 미흡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시·군 담당자들은 여기에 더하여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그밖에 기타 의견으로 <지역의 수용 역량을 초과한 사업 공급 과잉> 문제와 <사업의 유사성 및 동질성 증대> 문제가 제시되었음.

(표 6-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의 주요 문제

단위: %

주요 문제	전문가	시군 담당자	주요 문제	전문가	시군 담당자
내역사업의 세분화로 인한 경직성	5.0	12.0	주민 참여 활성화 촉진에 한계 존재/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부족과 갈등	11.3	21.1
중앙정부(부처)의 간섭이나 통제	7.5	6.0	예산편성 절차의 복잡함/예산확보의 어려움	0.0	2.3
도(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이나 통제	1.3	0.8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잦은 계획 변경	3.8	-
국비지원의 감소	1.3	-	사업대상지의 부적절한 입지/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0.0	10.5
사업추진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	14.3	적절한 성과평가체계의 부족	6.3	-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한계 존재	7.5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체계의 부족	17.5	-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복잡함	5.0	12.0	사업추진과정의 불법 및 편법 만연	1.3	3.8
사업 계획 및 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 부족	26.3	11.3	리더의 부재나 리더의 역량 부족	-	6.0
계획적인 개발 추진에 한계 존재	6.3	-	기타	0.0	0.0

주1: 전문가 41명,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주2: 조사 대상에 따라 설문지 문항에 차이가 있어 항목 간 직접 비교는 어려움.

자료: 설문조사.

- 한편 사업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시·군 담당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후관리 예산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사업 준공 후 주민들의 관심 저하>, <사업 준공 후 지속할만한 프로그램 부족> 등을 문제로 들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된 뒤에도 꾸준히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확산되려면 주민 스스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6-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단계’ 주요 문제점(복수응답)

단위: %

사후관리 단계 주요 문제점	비중
정부의 사업평가체계 경직성 및 부적절성	5.1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후관리 예산 부족	21.0
사업의 사후관리를 책임질 주체의 불명확성	10.9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부족	0.7
사업 준공 후 주민들의 관심 저하	18.8
사업 준공 후 지속할 만한 프로그램 부족	15.9
중앙정부(부처·청)의 간섭이나 통제	0
도(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이나 통제	0
주민들 간 갈등 또는 지역 내 갈등의 발생	13.0
리더의 부재나 리더의 역량 부족	9.4
사업추진의 불법·편법으로 인한 법적·행정적 문제	0.7
본래 계획과 다르게 추진된 사업 결과로 인한 문제	4.3
합 계	100

주1: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주2: 139개(복수응답) 응답 중 기타 응답 1개 제외. 총 138개 복수응답 분석.

자료: 설문조사.

-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세부 내역사업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소관 부처 확대와 세부 사업 증가 추세는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금 사업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대해 80.5%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전문가의 73.2%, 시·군 담당자의 52.2%는 <변화의 결과 및 영향이 어떠하든,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 지역에 대한 고려이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부처·청을 주로 고려한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 전문가의 다른 7.3%와 시·군 담당자의 15.2%는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 지역의 사업추진 혼란 및 제약을 초래하는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 및 차이를 고려한 바람직한 변화(전문가: 7.3%, 시·군 담당자 13.0%)>, <부처·청의 전문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변화(전문가: 4.9%, 시·군 담당자: 13.0)>라는 긍정적 의견 비율은 각각 전문가 12.2%, 시·군 담당자 26.0%이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변화가 아니다>는 중립적 의견은 전문가가 7.3%, 시·군 담당자는 6.5%에 불과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산 총액 대비 현재의 세부 사업별 비중과 향후의 바람직한 세부 사업별 비중을 비교한 결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현격히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92.7%(41명 중 38명)에 달했으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평균 비중도 현재의 비중보다 13.6%p 정도 낮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예산 비중을 비교적 크게 낮추는 대신 권역단위종합개발과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외의 다른 모든 사업의 예산비중을 비교적 골고루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임.
 - 시·군 담당자의 경우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사업 확대 요구가 그 뒤를 이었음.

(표 6-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총액 대비 세부 사업별 현재 비중과
향후 바람직한 비중

단위: %

유형별 사업부문	세부 내역사업	전문가			시·군 담당자
		(A) 현재 비중	(B) 향후 바람직한 비중	(B)-(A)	
농촌중심지 활성화	①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5.9	10.4	4.5	16.7
	②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46.7	33.1	-13.6	
창조적마을 만들기	③ 마을단위종합개발	1.7	3.5	1.8	41.7
	④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1.7	3.6	1.9	
	⑤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0.8	3.3	2.5	
	⑥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3.1	4.1	1.0	
	⑦ 마을단위신규마을	1.9	2.9	1.0	
	⑧ 권역단위종합개발	16.4	12.6	-3.8	6.3
시군 역량	⑨ 시군역량강화	1.2	5.8	4.6	12.5
	⑩ 시군창의	3.2	5.8	2.6	4.2
기초생활 인프라	⑪ 기초생활인프라	17.5	15.1	-2.4	14.6
기타(공공주도형 신규마을 조성 사업, 농촌마을리모델링)		-	-	-	4.2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국비지원 총액	849,041백만 원	100.0	100.0	0.0	

주1: 전문가 41명,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주2: 시·군 담당자에게는 '산림휴양치유마을사업',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도
질의 했으나 확대의견이 없었음.

자료: 설문조사.

- 포괄보조사업의 도입 의미를 고려하여 시·군 담당자의 입장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통합 및 세분화 방안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유형별 사업부문만 제시하여 관리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사업 구분은 없애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6-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통합 및 세분화 정도 적절성

단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통합 또는 세분화 적절성	비중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계획과 예산편성에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7.8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형별 사업부문과 세부 내역사업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	19.0
유형별 사업부문만 제시하여 관리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사업 구분은 없애야 한다.	69.8
현재보다도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3.4
합 계	100

주: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자료: 설문조사.

-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 중 개편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농촌 소생활권/낙후지역 작은 거점>, <경관·생태분야 강화> 등의 의견이 사업 부문과 관련한 의견으로 주목할 만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구성(구조) 개편과 관련해 <자본보조형의 중심지사업과 경상보조형의 시·군역량강화, 그리고 자본+경상보조가 혼합된 시·군창의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사업부문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이 외에도 읍·면간 연계 지역개발, 취미·여가활동 증대,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육성, 시·군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포괄보조금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나의 통합된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유형별 사업 부문의 구분(중심지, 마을, 역량, 인프라)

만 유지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업구분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높은 비중으로 제시함.

- 유형별 사업 부문 구분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 비율은 61.0%임.
-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완전히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비율은 17.1%로 나타남.
-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형별 사업 부문과 세부적인 사업 구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하며,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무함.

- 시·군 공무원들에게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들을 종합하여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의한 결과, <사업추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와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강화>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더불어 예비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예비계획서보다는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 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음.

(표 6-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 방향 중요성(복수응답)

단위: %

개선 방향	비중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강화	17.0
예비계획서 준비 절차 간소화 및 내용 기준 완화	14.9
예비계획서 보다는 지역·주민·참여주체 등 역량강화 실태를 중심으로 사업선정	13.8
사업선정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을 고려한 정부지원	6.4
공모경쟁 완화와 성과평가 강화	4.3
현장점검과 현장평가 강화	0
사업추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22.3
개별 시·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시·군 특성화사업 유형 발굴·확대	5.3
중심지, 권역, 마을 등의 공간단위 공동체 중심 사업보다는 육아, 교육, 가공 등 이슈 공동체 중심의 사업 유형 확대	6.4
대규모 사업 지원규모 줄이고 사업 대상지를 늘려 사업기회 확대	9.6
합 계	100

주: 시·군 담당자 48명의 의견을 정리.

자료: 설문조사.

마.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지표와 추진사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 부문의 경우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아래 (표 6-15)과 같은 지표를 통해 점검하고 있음. 이들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지만 7점 전후의 보통 이상 점수로 평가함 (10점 만점).
 - 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기대효과> 지표가

신규사업의 사업성 검토지표로서 적절성이 가장 낮게 평가됨.

-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성, 기존 시설의 복합화 가능성, 타 사업 선정 경험 여부 등도 신규사업의 사업성 검토지표로 기타 의견에 제안됨.

(표 6-15)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지표의 적절성 평가

신규사업의 사업성 검토지표	주요 내용	사업성 검토 지표의 적절성 평균 점수
사업대상지 입지의 적절성	중심성 및 생활권 분석, 부지확보 수준 등	7.37
추진 의지	시장군수, 공무원,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의 사업추진 의지 등	7.37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	7.93
역량강화	지역주민과 사업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노력, 마을역량진단, 현장포럼과 같은 사전준비단계 등	7.59
추진체계	발전협의회, PM단, 중간지원조직, 추진위원회와 협의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	7.15
기대효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기대효과	6.37
유지관리	지속 및 실현가능한 시설물과 S/W 계획 수립 여부,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등	7.39
정책협조도	사업포기, 대상지 및 주요사업 변경, 예산불용, 국정과제 이행 협조도, 공간정보시스템(RAISE) 협조 실적 등	6.51

주: 전문가 41명의 의견을 정리.

자료: 설문조사.

○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평가에 활용할 성과지표를 세부 내역사업별로 구분하여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하였음.

- <사업 관련 조직에 대한 주민 참여도>와 <정주여건 주민 만족도>가 가장 많은 세부 내역사업에서 비교적 적절한 성과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성과지표로는 <정주여건 주민 만족도>, <문화·복지시설 이용량 변화>, <사업 관련 조직에 대한 주민 참여도>, <사업과 관련해 결성된 주민 조직수>, <문화, 복지, 평생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여 주민 수 변화> 등으로 나타남(이상 전문가 평점 7.0 이상).
- 마을·권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 관련 조직에 대한 주민 참여도>와 <정주여건 주민 만족도>가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로

인식되고 있음.

- 창조적마을만들기의 문화·복지 분야 마을사업, 경제(체험·소득) 분야의 마을사업, 환경(경관·생태) 분야의 마을사업은 모두 소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사업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적절한 성과지표가 상당히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
- 시·군 역량 부문의 경우는 주로 사업과 관련된 <주민 조직 수>와 <주민 참여도> 등 주민의 사업 참여도와 관련된 항목이 가장 적절한 성과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부문에서는 성과지표로서 높은 점수로 평가된 항목이 없으며, 반대로 <고용 변화>와 같은 지표는 적절성이 3.75점으로 평가되어 성과지표로서 비교적 부적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됨.
-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 소득 변화>, <고용 변화>와 <관광객 수> 지표가 성과지표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6-16) 성과지표(안)의 사업부문별 및 세부 내역사업별 적절성 평가

성과지표 예시 항목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 역량	기초 생활 인프라
		마을·권역 종합개발	문화· 복지	경제 (체험· 소득)	환경 (경관· 생태)	신규 마을		
주민 소득 변화	5.00	6.08	4.10	8.15	3.95	3.83	4.70	3.78
고용 변화	5.63	5.75	4.30	8.08	4.48	4.03	4.58	3.75
경관에 대한 주민 만족도	6.98	6.95	4.55	4.88	8.58	6.33	4.60	5.30
정주여건 주민 만족도	8.15	7.78	7.43	6.23	7.95	7.50	5.48	6.85
문화·복지시설 이용량 변화	7.95	6.75	8.50	4.55	4.68	5.53	5.43	5.10
관광객 수	5.90	5.68	4.63	7.35	6.08	4.00	4.68	4.15
사업과 관련해 결성된 주민조직 수	7.00	6.73	6.30	6.93	6.35	5.78	7.63	4.85
사업 관련 조직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입자 수, 비율)	7.53	7.63	7.00	7.20	6.88	6.50	7.70	5.53
지역의 인구 변화	6.80	6.43	5.40	6.28	5.80	6.58	5.13	5.18
문화, 복지, 평생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수 변화	7.15	6.75	8.08	5.68	5.48	5.60	6.80	5.25

주1: 전문가 41명의 의견을 정리.

주2: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

자료: 설문조사.

제 7 장

우수사례 지역의
성공요인 분석

제7장 우수사례 지역의 성공요인 분석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선정

가. 우수사례 선정 단계와 방법

○ 총 4단계로 우수사례 선정

- 1단계: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의 시설물 점검 현황 자료에서 지속적 점검 필요성이 낮은, 즉 사업추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 대상지를 선별.
- 2단계: 1단계 선별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선정한 농촌지역개발 우수사례를 고려하여 2단계 선별.
- 3단계: 우수사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3단계 선별.
- 4단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종합평가지표 및 개별사업 성과지표를 적용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3단계 선별 결과 중 최종 우수사례 선정.

○ 1단계 선별: RAISE에 등록된 내용 중 사업추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

- 2017년 상반기 시설물 점검 대상 2,313개 사업 중 572개의 준공된 사업을 선별. 이 중 사업부문 유형이 분명하고 사업추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346개 사업 선별.
- 이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시작(착공)된 사업 중 현재 사업이 완료(준공)된 149개 선별.

(표 7-1) 우수사례 1단계 선별: 사업추진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준공 사업

유형별 사업부문	포함된 구(旧) 사업명	해당 사업건수 (A)	(A) 중 2010년 이후 시작한 사업 건수
농촌중심지활성화	거점면소재지종합정비, 소도읍육성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 등	64	18
창조적마을 만들기	권역단위종합정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209	111
시·군역량	기타 창의아이디어사업, 창조지역사업 등	16	16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7	4
1단계 선별 계	-	346	149

나. 사업부문별 및 세부 내역사업별 우수사례 후보군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우수사례 후보군

- 2단계 선별과 일부 3단계 선별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21개 후보 선정.

(표 7-2)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우수사례 후보

선별 단계	시·도	대상 중심지	비고
2단계	경기	양평군 양동면	3단계(전문가 회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4~5개 우수사례 선정
	강원	영월군 주천면	
	충북	증평군 증평읍, 진천군 진천읍, 충주시 주덕읍	
	충남	서천군 서천읍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전남	장성군 북이면, 장성군 삼계면, 화순군 능주면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성주군 벽진면, 안동시 풍산읍, 청도군 풍각면, 칠곡군 왜관읍	
	경남	거창군 신원면, 양산시 하북면	
3단계 (전문가 추천)	전북	임실군 관촌면, 진안군 진안읍	
	경남	거창군 거창읍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우수사례 후보군

- 세부 내역사업에 따라 1단계+2단계, 1단계+2단계+3단계 선별을 통해 우수사례 후보 선정.
- 마을·권역종합개발사업 16개소, 공동 문화·복지사업 11개소, 경제(체험·소득)사업 10개소, 환경(경관·생태)사업 10개소 등 47개소 후보 선정.

(표 7-3)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우수사례 후보

세부 내역사업	대상 마을·권역	비고
마을·권역 종합개발 (16)	강원: 원주 섬강매향골권역, 정선 개미들권역, 화천 토고미권역, 홍천 사랑말권역 충남: 부여 백마강권역, 청양 칠갑산권역, 홍성 문당권역, 홍성 내현권역 충북: 괴산 비학봉권역, 옥천 한두레권역 전북: 김제 지평선들녘권역, 완주 경천애인권역, 진안 황금권역 경남: 밀양 화악산동지권역, 하동 북천코스모스권역 제주: 서귀포 가시리권역	3단계(전문가 회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세부 내역사업별로 2개 내외씩 총 10개 우수사례 선정
공동 문화·복지 (11)	충남: 청양 산정리, 홍성 신리, 태안 만대마을 전북: 정읍 원오봉마을, 완주 상호마을 경북: 고령 가얏고마을, 성주 벽진리 경남: 밀양 신안운심 문화마을, 의령 관동리, 함안 원북리, 합천 양촌리	
경제 (소득·체험) (10)	경기: 양평 여물리마을 충남: 아산 죽산리, 당진 백설올미마을 전북: 순창 월곡리, 완주 안덕마을 전남: 광양 신촌리 경남: 산청 부암마을, 진주 조비마을, 합천 신거·덕정리, 합천 양떡메마을	
환경 (경관·생태) (10)	충남: 보령 소릿골마을, 보령 관당리, 홍성 송정리 전북: 진안 두원마을 전남: 무안 차산마을, 영암 모산마을, 담양 무월마을 경남: 양산 삼삼마을, 의령 동동리, 하동 매계마을	

- 시·군 역량강화 부문의 우수사례 후보군
 - 2단계+3단계 선별.
 - 충북 증평군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북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마을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등.

다.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최종 선정

- 우수사례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한 1~3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최종 11곳의 사업추진 사례를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로 선정.
 - 농촌지역개발 전문가 7명을 조사 담당 지역(도)별로 나누고 각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11곳의 우수사례 선정.
- 농촌중심지활성화 3곳, 창조적마을만들기 8곳을 우수사례로 선정 후 지역개발사업 추진 성과와 주요 성공요인 조사.
 - 일부 우수사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입 이전 개별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경우와, 2015년 현 체제로의 개편 이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으로 추진된 경우도 포함.
 - 시·군 역량 부문의 사업은 제외: 우수사례 후보군에 포함된 곳의 수가 적고, 가시적인 성과 및 이에 대한 성공요인 분석이 쉽지 않음을 감안하여 제외.

(표 7-4)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선정 결과

지역	농촌 중심지	마을·권역
경기	-	-
강원	정선군 정선읍	평창군 평창읍 동부오리권역
충북	-	증평군 증평읍 삼기권역
충남	서산시 해미면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권역
전북	-	완주군 경천면 경천애인권역 임실군 오수면 둔덕권역
전남	-	영암군 시종면 왕인촌권역
경북	-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남해군 남면 흥현리 가천 다랭이마을
제주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권역

제2절 성공요인 분석 개요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통 핵심 성공요인(안) 도출

-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선정지역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공통 핵심성공요인(안) 항목 도출.
 - 제1~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RAISE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자료 검토.
 - 우수사례의 공통 핵심성공요인(안)으로 사업 대상지의 입지적 이점,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사업 주체들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등 총 15개 항목 선별 .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통 핵심 성공요인(안)으로 제시한 15개 항목 모두가 성공요인으로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공통 핵심성공요인(안)에 대해 10점 만점 기준으로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1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8.0점 이상, 8개 항목이 7.0점 이상, 그리고 4개 항목이 6.5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음.
 -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사업계획의 적절하고 충실한 수립>, <사업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주체들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마을리더 또는 지역리더의 강한 리더십> 등의 공통 핵심성공요인(안) 항목이 가장 높은 적절성 평가를 받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 시·군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통 핵심성공요인(안)을 12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실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요인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요인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12개 항목 모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요인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7.0점 이상),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및 전문가(전문기관)들의 참여·협력> 항목만 7.0 미만으로 평가됨.

(표 7-5) 우수사례의 공통 핵심성공요인

성공요인 예시 항목	성공요인으로서 적절성	
	전문가	시·군 공무원
(1) 사업 대상지의 입지적 이점	6.74	7.31
(2)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7.84	8.31
(3)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7.63	8.02
(4) 시·군의 지역발전 비전 또는 목표와의 연계 추진	6.85	7.17
(5)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	7.25	7.02
(6) 사업계획의 적절하고 충실한 수립	8.24	8.48
(7)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8.27	9.02
(8) 마을리더 또는 지역리더의 강한 리더십	8.12	8.85
(9)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7.65	6.94
(10) 전문가(전문기관)들의 참여 및 협력	7.55	
(11) 민간기업의 참여 및 협력	6.76	-
(12)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사전 교육	7.52	-
(13) 사업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주체들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8.21	-
(14)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7.22	7.58
(15) 사업완료 후 사후 관리	7.81	7.94

주: 성공요인으로서의 적절성 평가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기준으로 함.

자료: 설문조사.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공요인 분석 개요

- 전문가 협의회와 주요 사업부문별 사례지 방문 조사, 시·군 공무원 방문 조사 등을 통해 (표 7-6)의 ‘우수사례의 공통 핵심 성공요인’을 성공요인 부문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세부 성공요인 제시.
 - 성공요인을 ‘사업추진 및 지원조직’ 부문, ‘사업의 목표와 내용’ 부문,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부문,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부문, ‘사업추진 네트워크’ 부문, ‘외부환경’ 부문, ‘기타 성공요인’ 부문으로 구분.
 - 각 부문별 성공요인 분석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성공요인을 예시하여 전문가들이 지역별 우수사례에 대한 성공요인 분석 시 공통의 조사 항목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표 7-6)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 조사의 구조와 내용

성공요인 부문	세부 성공요인 예시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주민 대의성(代議性) - (사업 준공 후) 법인 등 사업운영조직의 구성과 전문성 - 사업담당 행정조직의 특성과 주요 지원 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유무와 주요 활용 내용
사업의 목표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권역·마을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나? - 반대로, 당면한 현안은 아니지만 지역·권역·마을의 중장기 발전방안이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구체화 되어 있는가? -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해당 사업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정도(혹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활용률이 극히 저조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거나 불필요할 정도의 과한 목표와 내용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 사업추진 전 또는 초기에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민들이 공유해 왔는가?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권역·마을 리더층의 구성과 사업추진 시 주요 역할 - 젊은 층,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 예술인 등의 현황과 역할 - 사무장 등 운용인력 채용 유무와 활용의 특성 -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현황과 활동 특성 - 주민교육의 특성과 핵심내용 - 지역·권역·마을 내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시스템(예: 학습시스템)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자원의 다양성과 차별성 - 기존 6차산업화, 농촌관광 등의 자원활용 실태 - 사업대상지역 내 유휴자원의 분포와 재활용 실태
사업추진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집단과의 협력네트워크(양과 질 모두) - 현장활동가와의 협력관계와 사업추진에서의 역할 - 1사1촌, 자매결연 등 외부 네트워크 - 제3섹터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네트워크 - 인근지역의 시설,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 정도 - 사업대상지역 내 투입된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GIS,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적용 - 정부정책 변화의 영향 - 지역간, 마을간, 지자체간 경쟁구도의 변화 - 사업 대상지 주변의 개발 영향
기타 성공요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설비, 프로그램의 입지적 적절성 (주민 활용의 입지적 적절성과 방문객 등의 접근성) - 기타 담당 전문가가 추가

자료: 연구직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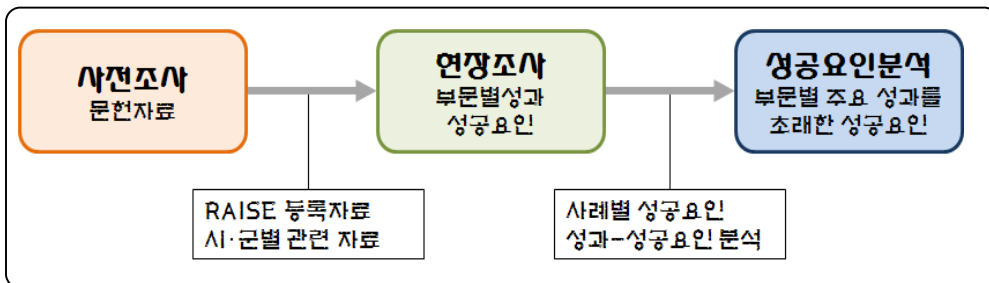
-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상 사업별로 성공요인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성과를 조사·분석.
 - 주요 성과를 ‘인구·사회적 성과’ 부문, ‘경제적 성과’ 부문,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부문, ‘공간개발 성과’ 부문, ‘기타 사업추진 성과’ 부문으로 구성하여 조사.
 - 주요 성과는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이용하여 제시.

(표 7-7)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우수사례의 주요 성과 부문과 세부내용

주요 성과 부문	세부 성과 예시
인구·사회적 성과	사업 추진 지역의 인구 증가, 귀농·귀촌인 증가, 문화·예술인 증가, 전문가 유치,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의 형성, 지역(마을) 리더 육성 등
경제적 성과	사업 추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새로운 사업 창출, 일자리 창출, 소득시설 확충 등
주민 문화·복지향상 성과	새로운 주민 서비스의 창출, 기존 주민서비스의 활성화, 복지 및 서비스 시설 확충 등
공간개발 성과	지역(마을)의 인프라 확충, 경관 개선, 환경 정비 등
기타 사업추진 성과	상기 예시 외 사업추진 성과

자료: 연구진 작성.

- 성공요인 분석은 우수사례별로 문헌자료 등을 이용한 사전조사, 현장 조사, 주요 성과 조사, 주요 성과를 초래한 성공요인 분석 등의 순으로 추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7-1> 성공요인 분석 추진 과정

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공요인

가. 우수사례별 사업추진 개요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농촌 중심지)
 - 사업 구분: 읍소재지 정비사업
 - 대상 지역: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3개 법정리/20개 행정리
 - 사업 기간: 2014년~2017년, 4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확충: 오반천 인도교 건설, 주차장 조성.
 - 경관개선: 정선5일장 아케이드, 전선지중화, 가로경관정비
 - 역량강화: 리더육성 및 주민 교육(마을해설사, 체험지도사),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문화·복지·체험·명품테마상품),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농촌 중심지)
 - 사업 구분: 면소재지 정비사업
 - 대상 지역: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일원
 - 사업 기간: 2014년~2017년, 4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확충: 다목적회관 조성, 이야기광장 조성, 한평쉼터 조성, 녹색 통학로 조성.
 - 경관개선: 중심로 환경정비, 하천산책로 연결 및 보행교 조성.
 - 역량강화: 교육(사회적 기업 육성, 스토리텔링,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 시장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축제·체험·복지·문화, 홍보·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농촌 중심지)
 - 사업 구분: 면소재지 정비사업
 - 대상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일원
 - 사업 기간: 2012년~2014년, 3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확충: 다목적센터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체육광장 조성, 진입

도로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 경관개선: 사색공원 조성, 가로경관 정비, 대산천 경관 조성, 부체도로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로 확·포장
- 역량강화: 리더 및 주민교육, 홍보(마을소식지, 홍보리플릿), 컨설팅(브랜드, 스토리텔링), 정보화(홈페이지, 정보화기기), 마을운영지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동부오리권역(마을·권역)

- 사업 구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노론리, 이곡리, 종동리, 고길리, 지동리 등 5개리 일원
- 사업 기간: 2013년~2016년, 3.5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 건강활력관 및 권역광장, 마을쉼터정비
 - 소득증대: 산채체험학습장, 산채떡가공시설
 - 경관개선: 생태공원조성(주민 및 방문객 휴식공간, 산악레포츠 거점공간), 권역안내관
 -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체험프로그램, 리플릿, 도농교류이벤트, 브랜드), 마을경영지원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삼기권역(마을·권역)

- 사업 구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덕상리, 남차리 일원(6개 행정리)
- 사업 기간: 2011년~2017년, 6.5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연정노인정, 문화복지회관, 주민쉼터, 구석산 등산로, CCTV, 마을 무선방송
 - 경관개선: 수살재 유래비, 돌보 및 목교 설치, 삼기천 경관수 식재.
 - 역량강화: 권역리더 양성, 주민교육, 브랜드 개발, 리플릿, 도농교류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소득사업, 유통, 체험), 정보화, 권역운영지원(권역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권역(마을·권역)

- 사업 구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상 지역: 천장리, 용두리, 서정리, 역촌리, 마치리 일원
- 사업 기간: 2004년~2009년, 6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 마을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도농교류종합센터(폐교 리모델링), 운동장 조성, 산책로 조성, 야외수영장 조성.
 - 소득증대: 장류가공시설, 구기자체험관(이상 소득기반), 장승공원, 웰빙체험농원, 전통문화체험관, 어린이동물체험관, 권역종합안내시스템, 게스트하우스 신축, 농촌체험실습장, 생태하천정비(이상 농촌관광)
 - 역량강화: 리더육성, 주민교육, 친환경재배기술 위탁교육, 지역활성화 및 권역운영 컨설팅, 정보화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경천애인권역(마을·권역)

- 사업 구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상 지역: 경천리, 원가천리 일원
- 사업 기간: 2008년~2015년, 7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 권역활성화센터 신축, 마을회관 재건축.
 - 소득증대: 농촌사랑학교 신축(숙박·체험·교육), 콩나물재배사 신축, 싱그랭이원터 조성(방문객 쉼터), 지역산물가공센터
 - 경관개선: 수변경관산책로 정비, 구룡천 경관길 조성, 돌담 가꾸기 정비, 생태세천 정비, 경관수목 식재.
 - 역량강화: 주민교육,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축제지원, 소득사업 컨설팅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권역(마을·권역)

- 사업 구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상 지역: 용정리, 신기리, 둔덕리, 용두리, 둔기리, 대정리 일원, 6개 법정리 8개 마을
- 사업 기간: 2008년~2012년, 4.5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 마을회관 증축, 마을쉼터 조성, 생태주차장, 마을안길 및 권역 연결도로 정비.

- 소득증대: 블루베리 체험장 및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장(이상 소득 기반), 고가·고택 정비, 우물정비, 종합안내판 및 고가 안내판 (이상 농촌관광)
 - 경관개선: 팔각전망대
 - 역량강화: 리더육성 및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정보화, 컨설팅(체험·축제·블루베리 상품화), 마을경영지원(마을개발협의회, 추진위원회, 사무장)
-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왕인촌권역(마을·권역)
- 사업 구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 대상 지역: 동구림, 서구림, 도랍리 3개 법정리 일원(8개 행정리)
 - 사업 기간: 2012년~2017년, 5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 왕인촌 대동누리관, 올라차차 기찬체육공원, 보행로, 공동시설 리모델링, 쉼터 조성.
 - 소득증대: 전통가마솥 누룽지 가공공장 계획 미추진.
 - 경관개선: 전선지중화, 왕인촌 길라잡이(안내판)
 - 역량강화: 주민교육, 마케팅 컨설팅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마을·권역)
- 사업 구분: 가천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농촌전통테미마을(2002년), 어촌종합개발사업(2008년)
 - 대상 지역: 홍현리 가천마을
 - 사업 기간: 2017년~2018년(창조적마을만들기)
 - 주요 내용
 - 생활기반: 다랭이 문화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랭이 거리전시관, 다랭이 음악당, 스마트 CCTV, 스마트 방송시스템
 - 역량강화: 주민교육, 거리전시 및 음향 컨설팅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권역(마을·권역)
- 사업 구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상 지역: 가시리 일원(1개 법정리)

- 사업 기간: 2009년 ~ 2014년, 5년
- 주요 내용
 - 생활기반: 유채꽃단지 주차장, 저수조, 다목적광장(운동·휴양), 행기머체
 쉼터정비
 - 소득증대: 유채꽃프라자, 농촌산물가공시설, 조형물설치, 권역·마을 안내판
 - 경관개선: 유채꽃단지조성, 꽃길조성 및 돌담정비, 목장정비(목장초지 조성)
 - 역량강화: 리더육성, 주민교육(마을해설사 교육 등),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전시회, 박람회, 축제), 컨설팅(체험프로그램, 상품개발),
 정보화, 마을운영지원

나. 우수사례별 주요 성과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농촌 중심지)

- 인구·사회적 성과

- 사업추진 이후 인구 유지·증가: '14년 13,721명 → '16년 14,817명.
- 정선5일장 이용자 수 '16년 979,948명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
- 정선5일장, 정선아리랑, 마을테마, 주변 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마을해설사와 체험지도자 육성. 이를 통해 광광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명품테마상품 등 개발.

- 경제적 성과

- 정선5일장 년 66억 6,236만 원 매출 창출, 이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
- 주로 밭작물(배추, 무, 콩, 옥수수 등)과 산채(곤드레, 황기, 더덕, 버섯 등) 농가의 소득 향상.

- 주민 문화·복지향상 성과

- 오반천 인도교 조성으로 마을 간 교류가 촉진되고 주민들의 새로운 산책로 형성.
- 마을해설사와 체험지도자의 조직화를 통해 주민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공간개발 성과

- 전선지중화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중심지 변모.
- 정선5일장 아케이드와 도심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민 및 방문자 편의 증가.

<오반천 인도교>



<정선읍 소재지 모습>



자료: 정선군청 건설도시과.

<그림 7-2> 정선읍소재지정비사업의 문화·복지향상과 공간개발 성과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농촌 중심지)

- 인구·사회적 성과
 - 젊은 리더 육성: 51세의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 40대 및 50대 초반의 추진위원들이 육성되어 지역 리더로서 사업추진 주도.
- 경제적 성과
 - 다목적 회관, 서문밖 한평쉼터와 보건서 한평쉼터 등이 도농교류 촉진 및 방문객 쉼터 제공.
 - 새로 조성된 해미천 보행교가 봄꽃·벚꽃 축제길과 성지순례길을 이어주는 명소로 외지인의 지역 방문 촉진.
 - 이러한 효과로 2016년 한해 방문객 22만 명으로 증가.
- 주민 문화·복지향상 성과
 - 이야기광장, 쉼터 등을 조성해 주민 편의 증대.
 - 녹색통학로 조성으로 가로환경의 쾌적성 증대와 범죄 예방 등에 기여.
- 공간개발 성과
 - 재래5일장과 연계한 주차공간 조성으로 중심지 환경 및 경관 개선.
 - 면소재지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거리 정비.
- 기타 사업추진 성과
 - 해미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외부 견학팀 월 2~3회 방문.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농촌 중심지)

- 인구·사회적 성과
 - 다목적 센터 등으로 면소재지 기능 활성화. 이에 사업추진 이후 귀농 귀촌 16명 유입.
- 경제적 성과
 - 풋살경기장, 체력단련실, 배드민턴장 및 다목적 강당 등의 공간대여료 수입 연 2,000만 원.
 - 체육공원 이용료를 통해 다목적 센터를 운영하는 수익모델 창출. 센터에 상근직 1명, 노인일자리사업 비상근 인력 등 고용 창출.
 - 체육공원 이용객 매일 30여 명 방문. 이를 통해 지역 내 식당, 소매점, 주요소 등 매출 증대.
 - 감악산 풍력발전단지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 사업 추진 전 남상면에 풋살동호회 2개, 게이트볼 동호회 1개, 배드민턴 동호회 4개가 있었지만, 사업 후 이들 동호회 회원이 10% 가량 증가했고, 풋살동호회는 7개로, 게이트볼 동호회는 10개로 증가. 생활체육모임 2개, 라인댄스 동호회 1개 등이 신규로 활동.
 - 사업 종료 후 찾아가는 문화공연행사, 남상면 이장 자율회 단합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주민 문화·복지 향상.
- 공간개발 성과
 - 주민 간 교류 거점 공간 형성, 주차 편의 증대.
 - 경관조성으로 대산천이 주민의 산책로로 기능하게 되었고, 방문자에게 랜드마크화 됨.
- 기타 사업추진 성과
 - 선진 사례지로 알려지면서 2016년 22개팀, 2017년 9월까지 21개 팀 등 총 550여명 방문.

○ 강원도 평창군 동부오리권역(마을·권역)

- 인구·사회적 성과
 - 5개 마을이 연계된 농어촌인성학교를 운영하고 공동으로 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전개하는 등 권역 내 마을 간 협력 촉진.
 - 권역 내 마을 간 교류 확대: 2016년 한해 동안 권역 회의 13회 운영.
- 경제적 성과
 - 2017년 상반기 건강활력관 방문객 3,000명, 이로 인한 매출 9,000만 원.
 -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으로 정규직 1명, 계약직 19명, 일용직 232명 고용 ('17년 상반기).

1.		: 1 ()	, 1~4	,	6,000	/	
2.		(가)	: 19	,	1~4	,	1,140 /
3.		()	: 5 ~	,		(806 /232)	,
					6,450	/	

자료: 평창군 농축산과 내부자료.

-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 마을 내 부족한 주민 쉼터공간 확충. 이를 소회의, 소교육 등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결속력 향상.
- 공간개발 성과
 - 농어촌인성학교 시설 정비, 체험 및 떡 가공 공간 조성을 통해 마을환경 개선.
- 기타 사업추진 성과
 -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만족조사 결과 응답자 20명 중 16명 '만족' 이상으로 응답(80%).

○ 충청북도 증평군 삼기권역(마을·권역)

- 인구·사회적 성과
 - 삼기권역 내 인구 감소세 완화.
 -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권역 내 마을들의 자생력 증대와 신규 마을사업 추진.

<덕상리 깨끗한 농업농촌만들기> <남차리 깨끗한 농업농촌만들기>



자료: 증평군 전략사업과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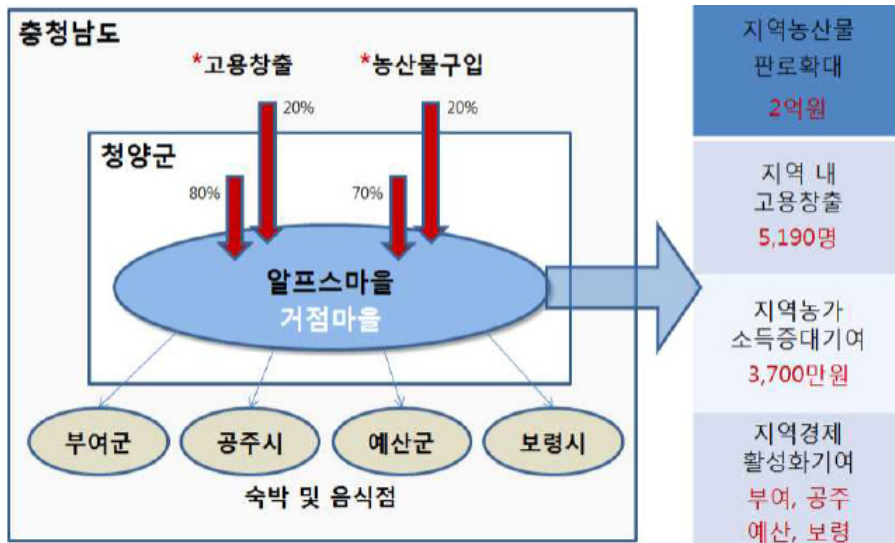
<그림 7-3> 삼기권역 내 마을의 신규사업 추진

- 경제적 성과
 - 2014년부터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의 숙박 제공, 김창체험장 운영, 2017년부터 물놀이장 운영 등을 통해 체험객 증가와 권역사업 매출 증가.
 - 체험객(방문객) '14년 3,000명 → '16년 11,475명 / 매출 3,480만 원 → 1억 2,101만 원.

- 주민 문화·복지향상 성과
 - 문화복지회관,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 권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 공동체 활성화.

○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권역(마을·권역)

- 인구·사회적 성과
 - 운영위원회의 전략적 마을 경영 기반 마련: 권역을 ‘알프스마을’로 브랜드화하고 세계조롱박축제와 지속적인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15)에 전체 40가구 중 30가구가 참가할 정도로 공동체 활성화.
- 경제적 성과
 - 2015년 기준 체험 및 방문객 수 30만 명, 권역 매출액 20억 원, 상용직 15명 및 일용직 5,190명 일자리 창출(일자리는 ’14년 기준).
 - 칠갑산권역 내 농산물은 물론 청양군의 농산물 구입으로 지역경제에 기여. 권역 내 주민 일자리 창출. 인근 시·군에까지 경제활성화에 기여.



자료: 알프스마을(충남 청양군), 2015.

<그림 7-4> 칠갑산권역(알프스마을)의 경제적 성과 창출 구조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애인권역(마을·권역)

- 인구·사회적 성과
 - 사업추진 후 경천면 귀농귀촌 세대 증가: '15년 27세대 → '16년 31세대.
- 경제적 성과
 - 체험객 등 방문객 증가: '15년 41,500명 → '16년 44,111명(숙박 이용객 11,399명).
 - 권역 내 상시고용 창출 총 12명. 이중 권역추진위원회 7명, 즐거운영농조합법인 4명, 싱그래이영농조합법인 1명 고용.
-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 권역사업 추진 시 주민 12명이 참여하는 난타동아리 구성, 주2회 동아리 활동 진행.
 - 경천애인영농조합법인, 즐거운영농조합법인, 싱그래이영농조합법인의 수익금 1%를 펀드로 마련하여 지역 노인 및 영세민 지원, 장학금 지원.
- 공간개발 성과
 - 전형적인 산촌지역이었지만, 권역사업을 통해 활성화센터, 농촌사랑학교, 체류형농원, 영농체험단지, 숙박시설 등을 집적시켜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성화.

○ 전라북도 임실군 둔덕권역(마을·권역)

- 인구·사회적 성과
 - 사업추진 후 귀농귀촌 3가구(7명) 증가.
 - 방문자센터 운영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주민 회의 빈도 증가 및 공동체성 강화.
- 경제적 성과
 - 체험, 음식, 농·특산물 판매 등 권역 매출 '15년 3,526만 원에서 '16년 4,469만 원으로 증가.
 - 방문객 수는 '15년 1,974명에서 '16년 2,542명으로 증가.
-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매주 화·목요일 지역 어르신 대상 건강교실과 한글교실 운영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
 - 마을학교 운영 초기 회비 2,000원이 2017년에는 5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도 자진 납부. 납부된 회비는 사무장이 관리하여 지역 내 공익 목적에 사용.

○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촌권역(마을·권역)

- 인구·사회적 성과
 - 권역 내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유입.

(표 7-8) 왕인촌권역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유치 현황

마을명	성명	전문분야	비고
학암	박*	한지공예	작품판매 및 체험
	최*욱	전통예절	체험 및 강의
	김*순	풍물놀이	공연 및 체험
서호정	현*식	마을해설	강의 및 체험
신흥동	임*수	목공	작품판매, 전시 및 체험

자료: 영암군 왕인촌권역 역량강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2018)

- 경제적 성과
 - 평균 농가소득 '12년 1,101만 원에서 '16년 1,349만 원으로 증대.
 - 권역 내 체험관 매출액 '14년 2,480만 원에서 '16년 3,620만 원으로 약 45% 증가.
-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 왕인촌 대동누리관을 건립해 체험객 및 방문객 편의 제공은 물론, 권역 주민들에게 회의 및 교육 공간, 공동체 활동 공간 제공.
 - 으라차차 기찬체육공원을 조성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공간 제공.
- 공간개발 성과
 - 대동누리관, 으라차차 기찬체육공원 조성으로 도농교류 및 주민복지 인프라 구축.
 - 마을회관 6개소 리모델링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도입해 시설 운영비 절감.

○ 경상남도 남해군 가천 다랭이마을(마을·권역)

- 인구·사회적 성과
 - 최근 임대료 마을 내 머물면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구 증가.
- 경제적 성과
 - 방문객 수 '16년 34만 6,773명에서 '17년 중간집계 46만 8,132명으로 증가 추세. 이중 외국인 1,109명(1박2일 체험객).
 - 2007년부터 사무장 1인을 고용하여 단체방문객 사전예약 및 프로그램 운영 담당.

- 마을의 체험수익과 개별 농가의 숙박, 농산물 및 음식 판매 등을 합해 '17년 연간소득 중간집계 약 7억 8500만 원. 마을소득 중 매년 1천만 원 정도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향후 마을 노인 복지사업 추진 계획 중).
- 마을 내 총 53가구 중 45가구가 관광산업(숙박업 35가구, 일반음식점업 9가구, 잡화점 1가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구 평균 소득은 연간 3,000만 원 이상.
- 주민 문화·복지향상 성과
 -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으나 기 마련된 마을기금으로 노인 복지사업 추진 예정.

○ 제주도 서귀포시 가시리권역(마을·권역)

- 인구·사회적 성과
 - 사업 초기인 2009년 마을 가구·인구 450호 1,173명에서 2017년 10월 기준 569호 1,278명으로 증가.
 - 사업 초기부터 문화·예술인, 출향민 등의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2014년 기준 20가구(34명)가 마을에 유입하여 정착.
 - 2012년 사회적기업 (주)이어도사나와 2013년 마을출자법인 가시리협업목장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 마을조직 형성.
- 경제적 성과
 - 체험·휴양 방문객 수 및 매출액: '14년 15,141명 1억 1,200만 원에서 '16년 60,200명 2억 7,100만 원으로 증가.
 - 마을 상근직이 2009년 1명에서 2016년 10명으로 증가.
 - 주민이 운영하는 개인 음식점 2009년 6곳에서 2017년 13곳으로 증가. 주로 귀촌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7곳 신설.
-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 가시리 문화학교를 통해 주민의 문화역량 강화. 현재 7개 동아리에서 120명 활동. 매년 11월 주민 500명 가량이 참석하는 가시리 문화축제에서 동아리 공연. 이밖에 친목 모임 3개와 생활예술인회가 모임 진행.
 - 체험휴양마을협의회, 협업 목장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마을총회를 거쳐 주민복지에 사용. 2014년의 경우 마을 내 82명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에 운영비 지원. 향후 마을 단위의 리립 양로원 조성을 위해 마을기금 적립 중임.

- 공간개발 성과

-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농어촌마을 부문 최우수상 수상(2012년).
- 유채꽃 프라자 제4회 대한민국 농촌건축대전 대상 수상(2014년).
- 유채꽃단지 조성과 유채꽃 축제 개최로 연간 30만 명 방문.
- 다양한 트레킹코스 개발(가름길 14.4km, 갑마장 길 20km, 쫓붙 갑마장길 10km).

(표 7-9) 가시리마을의 문화역량으로 다져진 동아리들

동아리	주요내용
<p>가시리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 결성~현재 - 멤버 10명(20대부터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 - 베이스, 일렉기타, 건반, 드럼, 트럼펫, 색소폰, 싱어로 구성 - 매주 일요일 연습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공연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음.
<p>타악동아리 “두드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 결성~현재 - 멤버 30명(가시리부녀회원 중심으로 구성) - 모듬북과 풍물북, 장구, 팽과리 구성, - 주민30명으로 구성(초급반, 고급반)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연습
<p>국궁동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9월 결성~현재 - 가시리 중장년남성 15명으로 구성 - 국궁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어 국궁체험으로도 만들어짐.
<p>가시리 댄스스포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녀회 20여명으로 구성 - 살사, 차차차, 룸바 등 다양한 댄스실력으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유 - 매주 월요일 연습, 수요일 연습
<p>기공동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회 40여명 중심으로 회원구성 - A팀: 50대~60대, B팀: 70대~80대 - 농촌에 살면서도 기공으로 삶의 활력과 건강증진에 도움 - 매주 수, 금요일 연습
<p>가시리 어린이 댄스스포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급반(저학년) 12명, 고급반(고학년) 10명 구성 - 엄마들이 선생님이 되어 강습 -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농촌마을에 활력소가 됨.
<p>사진동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9월 결성 - 가시리 주민중 사진을 사랑하는 청년, 중장년층 7명이 자발적으로 결성 - 마을의 사라져가는 문화, 자원, 경관등을 촬영하며 자료 기록중

자료: 가시리 마을 내부 자료.

다. 우수사례별 성공요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농촌 중심지)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이 다소 늦어졌지만 추진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해 주민주도형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목표와 내용
 - 사업추진 목표를 숙원사업이나 생활불편 해소에 두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을 통한 지역매력도 향상에 두어, 5일장 상권 강화, 인구유지 등 바람직한 결과 초래.
- 인적 자원과 역량 강화 시스템
 - 추진된 사업이 주로 하드웨어 개발사업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결합하여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 정선5일장과 정선아리랑이라는 핵심 자원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 곳곳에 활용.
- 기타 성공요인
 - 정선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조양강변에 수변경관 테마거리(아이랑로드)를 조성하여 ‘아리랑’과 결부된 지역 이미지 창출.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농촌 중심지)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사업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 최소화.
 - 추진위원회에 기관 단체장과 군의원을 참여시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넘어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의견수렴 구조 개선.
- 사업의 목표와 내용
 - 과거 남상면종합정비사업 추진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사업 선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유.

- 주민 숙원성 사업에서 벗어나 면소재지 기능 확충을 위해 다목적 기능을 발휘하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주민들의 의견 수렴.
- 사업 준비 당시 주민들은 복지에 관심이 매우 적었지만, 정확한 지역실태 조사를 통해 면소재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가 크게 향상됨.
- 사업추진 네트워크
 - 지역 전문가인 자문교수를 두어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경남도립대에 자문단을 두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음.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자문단과의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갈등 해소.
 - 전문가-행정-추진위원회의 협치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과 공사 시행으로 기본계획의 변경 최소화. 이를 통해 공사 실행 과정에서 낭비되는 사업비 최소화.
- 기타 성공요인
 - 사업 대상지 토지 매입 시, 토지 소유자의 자투리 땅을 함께 매입하여 토지 소유자의 반대를 최소화. 이러한 자투리 땅은 면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공간으로 조성.

○ 충청북도 증평군 삼기권역(마을·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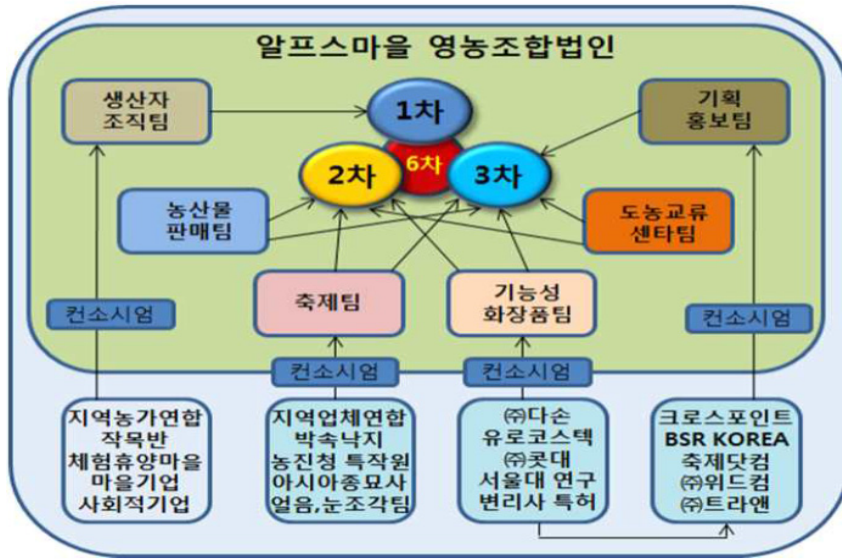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간 유기적 협력: 2013년부터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사업부서 지원. 권역사업을 추진하는 안전건설과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사업추진, 모니터링, 컨설팅, 그리고 사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특히, 권역센터인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외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 미래전략과에서 직접 시행하였던 창조지역사업 ‘김득신 스토리텔링 농촌만들기 사업’을 활용해 삼기권역에 김득신 1박2일 캠프 운영, 독서서당 등 다양한 도농교류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활성화에 기여.
 - 증평군의 중간지원조직인 ‘증평군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충북농촌 활성화지원센터 內)가 각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삼기권역 삼색마을 공동체회관에 집중시켜 동 공동체회관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홍보와 수익 창출에도 기여.

- 인적 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 마을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역량강화교육, 현장포럼, 민관합동워크숍, 100인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채널 운영.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 권역 내 자원인 삼기저수지, 울리 휴양촌, 좌구산 천문대 등의 기존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방문객 증대 및 매출 증대.
- 사업추진 네트워크
 - 유관 사업인 농식품부의 ‘깨끗한 농업농촌 만들기 사업’을 권역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권역 내 환경개선 효과 초래.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신활력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창조지역사업, 생활권선도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군 내 대표적 오지인 울리 및 인근지역에 체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에 따른 사업 시너지 효과 창출.
- 기타 성공요인
 - 권역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삼색마을 공동체회관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추진위원회가 1박2일의 끝장토론회를 통해 권역 최남단 삼기저수지 아래로 결정. 이를 통해 권역의 활성화가 외곽지역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

○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권역(마을·권역)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 권역사업 조직이 기획홍보팀, 생산자조직팀, 농산물판매팀, 축제팀, 기능성 화장품팀, 도농교류팀으로 구성되어 흡사 ‘권역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지향 조직 구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 사업의 목표를 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증대,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목표 실현에 집중.
 - 마을 브랜드화(알프스마을)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이를 유지·확산하기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굴. 계절별 이색체험(여름 조롱박 축제, 겨울 얼음분수 축제)으로 계절별 재방문 유도.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권역사업에 지속적 혁신 창출.
 - 당해 수익을 배분보다는 시설 구축 및 정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재투자에 활용하여 권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 축제 등 다양한 권역사업에 마을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권역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사업 추진.
 - * 2006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최하위로 패널티를 받은 이후 주민의 단결이 공고화되어, 이후 지역주민의 권역사업 참여가 75% 이상에 이룸. 주민 각자가 소썰매 끌기, 고구마 굽기, 빙어 튀기기 등 할 수 있는 일을 맡고, 해가 갈수록 숙련전문화.
 - 마을 주민 일자리 제공, 수익의 재투자 및 지역사회 투자, 지역 내외의 다양한 전문조직 및 기업과의 컨소시엄 등으로 권역 전체의 역량이 강화됨(기업가적 권역 경영).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 지역 자원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상품 및 축제 개발. 하이디 로고 개발, 박에 수능대박 글을 세긴 수능대박 페스티벌 유치, 조롱박 화장품 개발.
 - 권역 내 모든 것을 자원으로 활용. 읍지 지형은 얼음분수 축제장으로 활용, 경사진 산은 눈썰매장으로 활용, 마을어귀 느티나무나 장승은 마을 안내 홍보에 활용, 논은 얼음썰매장으로 활용, 밭은 주차장으로 활용, 가축은 소썰매에 이용, 농기계는 이앙기 기차나 콤바인 제설기로 활용 등.
 - * 농촌에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효용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
- 사업추진 네트워크
 -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과 지역의 농업생산단체, 체험휴양마을 조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 내 조직, 그리고 지역 외부의 다양한 전문 조직 및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컨소시엄) 지역의 농업 자원, 자연·생태자원 등 지역자원을 융복합산업화(6차 산업화)하여 발전 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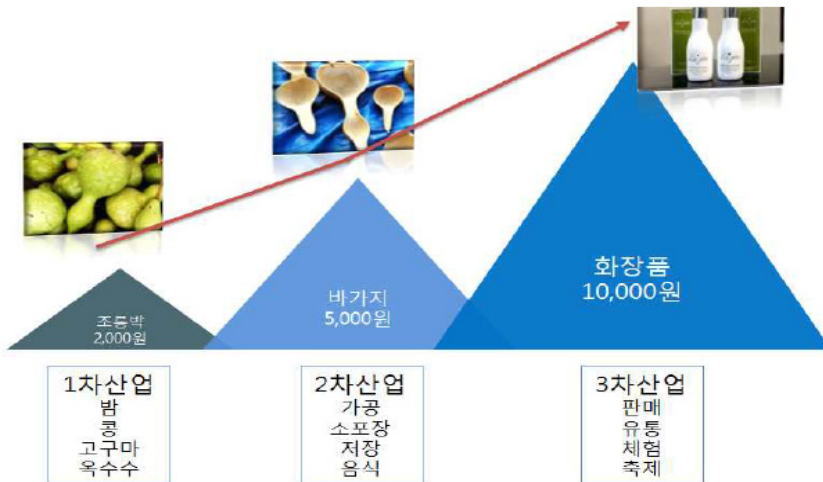


자료: 알프스마을(충남 청양군), 2015.

<그림 7-5> 칠갑산권역(알프스마을)의 사업추진 네트워크

- 기타 성공요인

- 농업생산성이 취약한 마을 권역의 발상 전환. 겨울철 매서운 기후를 이용한 축제 개발.
- 지속적인 혁신 창출. 태풍 피해로 낙과한 조롱박의 화장품 변신.



자료: 알프스마을(충남 청양군), 2015.

<그림 7-6> 칠갑산권역의 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 전라북도 임실군 둔덕권역(마을·권역)

- 사업의 목표와 내용

- 주민의 화합과 단합, 공동사업을 통해 마을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추구.
- 둔덕(둔데기)권역은 이러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주 2회(화·목) 마을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
- 마을학교(둔데기 마을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공동체로서 주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농촌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모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둔덕권역 지역개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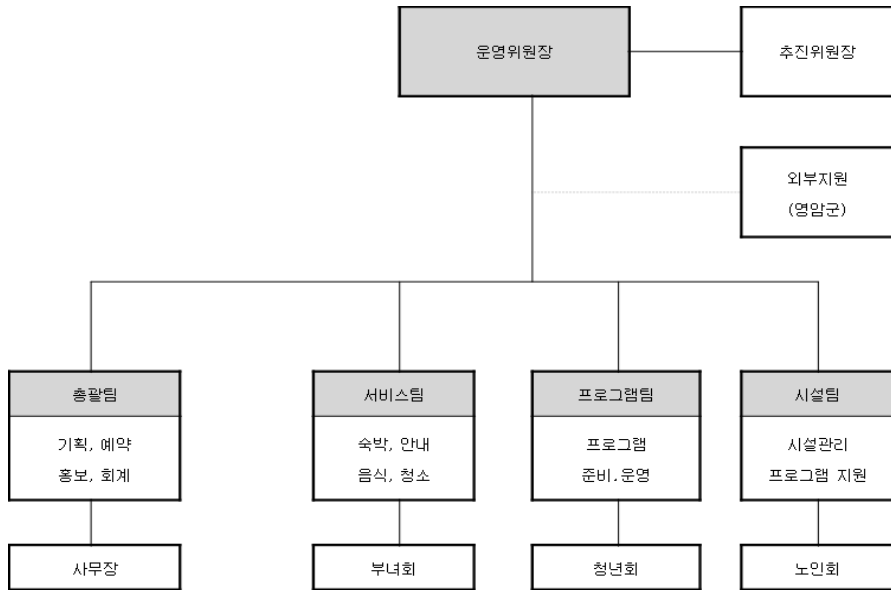
- 둔덕권역 담당 전문가 의견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침상 소득창출 사업보다는 기초생활환경기반 구축, 경관개선 등의 예산 비중이 높는데 일자리, 소득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음.
-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에 집중하는 마을, 생활환경정비에 집중하는 마을 등 여러 여건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성과 지표를 요구하고 있음.
- 일자리, 소득, 방문객, 인구증가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 외에 행정기관에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나 행복지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촌권역(마을·권역)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주민조직의 활용과 조직별 역할 분담 체계 구축.
- 사무장은 총괄팀, 부녀회는 서비스팀, 청년회는 프로그램팀, 노인회는 시설팀을 구성하여 역할분담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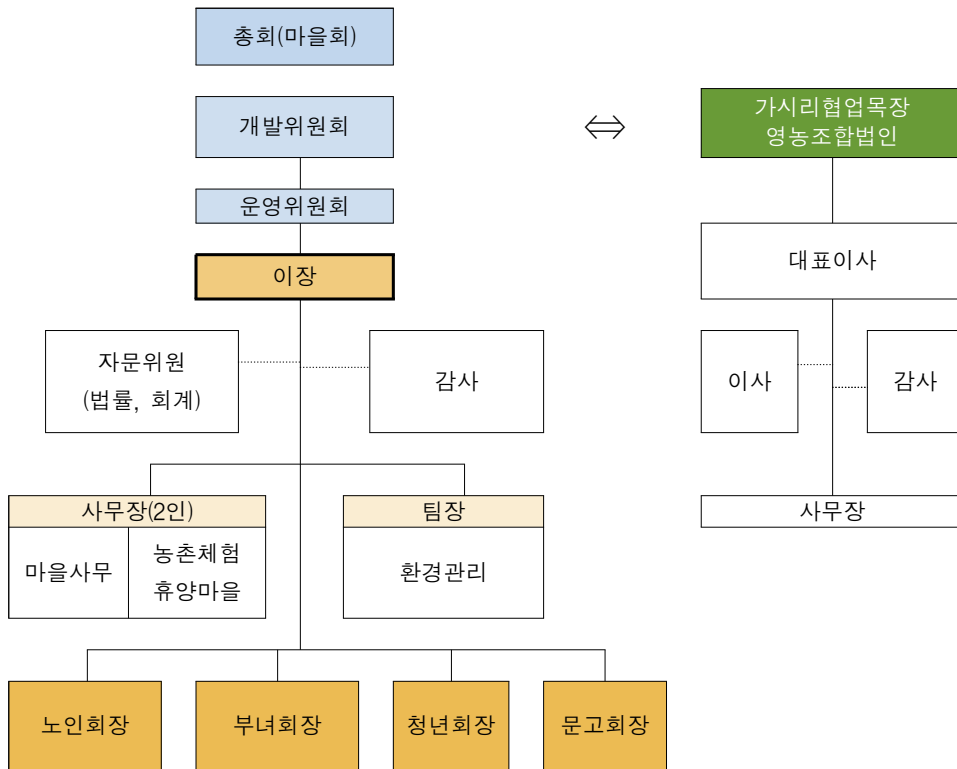
자료 : 영암군 왕인촌권역 역량강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2018)

<그림 7-7> 왕인촌권역의 사업추진 주체 구성

-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 전통문화와 민속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역특성화 역량강화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인적자원 육성 도모.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 왕인촌권역은 백제시대 왕인박사와 같은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마을이며, 500년 전통의 대동계가 현존하고 다양한 전통문화와 민속문화가 전승되는 곳으로, 구림문화보존회와 대동계 등이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와 민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유치로 전통문화와 민속문화 체험활동 촉진.
- 제주도 서귀포시 가시리권역(마을·권역)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 권역사업 시 공간과 사업을 가시리마을과 마을공동목장으로 이원화함과 동시에 연계.
 - 가시리마을의 사업추진 조직은 마을회(총회)를 대의기구로, 사업별 추진 주체와 관리주체를 두고 있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마을회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

- 현재의 가시리권역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정부 사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009-14년, 60억 원)과 신문화공간조성사업(2009-12년, 20억 원)으로 전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했으며, 후자는 문화 전문가를 마을에 거주하도록 영입해 PM을 맡김. PM과 마을 청년, 문화인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박물관과 조랑말 체험공원을 운영하여 안정화시킨 후 2015년 마을회로 경영권 이관.
- 마을이 공동출자해 2013년 설립해 운영하던 가시리협업목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직을 이장이 겸하다 2017년부터 분리. <그림 7-8>과 같은 현재의 사업추진 체계를 정립.
- 현재는 이장을 중심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조랑말체험공원 일대와 가시리문화센터, 창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목장영농조합법인은 유채꽃 프라자, 게스트하우스, 농산물가공센터 등을 운영.
- 가시리권역의 사업추진 주체와 추진 조직의 변화를 보면, 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스템의 정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각 건물 및 시설의 운영시스템과 수익구조 등에 주안점을 두어 보다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사업 운영을 맡도록 하여 성공할 수 있었음.



자료: 가시리마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7-8> 가시리권역의 사업추진 조직

- 사업의 목표와 내용
 - 마을과 목장을 구분해 마을은 문화예술과 생태가 어우러진 ‘생태문화마을 가시리’, 목장은 가시리 목축마을 ‘에코뮤지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가시리의 고유 문화와 현대적 수요를 접목.
 - 권역사업을 주로 수익성에 비중을 두도록 하였지만, 가시리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우선 성장시킨 후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자는 원칙을 따름.
-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 소득사업의 기반이 마을의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원칙하에 마을 문화공동체 확대를 위해 주민의 문화역량을 끌어올려 동아리 활동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가시리 문화학교 운영. 문화학교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전문성 증대.

- 주민의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 1년차에는 주민과 전문가(문화전문가) 사이의 소통과 마을의 자존감 교육을 중심으로, 2년차에는 마을 사업에 대한 교육과 주민 참여 증대를 목적으로, 3년차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계층별 주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를 도모함.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 제주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가시리의 경우는 마을과 마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마을공동목장 소유. 조선시대 갑마장이 있던 현 목장은 갑마장을 매개로 목축문화를 복원해 마을 최초의 리립(里立) 조랑말 박물관과 체험공원을 조성하고 스토리화함.
- 사업추진 네트워크
 - 사업추진 초기 사업의 안정화에 최우선순위를 두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가시리 마을회, 목장영농조합법인, 외부 전문가 집단의 협력체계를 갖춘 사업추진 네트워크 운영이 권역의 성공에 기여.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외에도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친환경생태공간조성사업(행안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등을 연계하여 권역의 지속가능성 증대.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과와 성공요인 간 관계

-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관련 사업의 성공요인을 주로 이장이나 위원장 등 리더의 헌신적인 노력, 사무장의 봉사정신, 주민의 화합, 담당 공무원의 열정 등으로 제시해왔음.
 - 제시된 성공요인이 매우 추상적일 뿐더러 애매모호하여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 힘들었음.

-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같은 대표적인 농촌지역개발의 구체적인 성공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핵심 성공요인 분석기법’(CSFs: Critical Success Factors)을 활용하였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차례 종합하여 핵심성공요인 도출.
 - 사업추진주체 및 지원조직 요인,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 인적 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요인, 사업추진 네트워크 요인, 외부환경 요인 등으로 핵심성공요인 구성(119쪽 (표 7-6) 참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역시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후 인구·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성과, 공간개발 성과로 구분(120쪽 (표 7-7) 참조).

-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이 네 가지 주요 성과에 가장 골고루 영향을 미침.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요인’의 경우 인구·사회적 성과 초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전문가 및 예술인을 영입하여 권역사업의 총괄계획가를 맡겨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방문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군의원을 추진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역과 행정의 관심을 높임. 또 사업추진 초기부터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추진력을 높인 경우도 있음.

-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은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방문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경제적 성과를 초래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또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경제적 성과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실천한 경우 주민들의 문화·복지 활동이 활발해지고 공동체성 역시 회복되었음. 이외에 인구·사회적 성과와 공간개발 성과 역시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음.
-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요인’의 경우 인구·사회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예를 들어 역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전문가나 예술가를 영입해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증대하는 한편, 공동체성을 회복·강화시킴. 공동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집단별로 고유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를 제공함. 또 조합원의 자격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여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을 시·군 단위로 확산함.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요인’의 경우 경제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 자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끊임없이 창출하는 곳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구·사회적 성과와 공간개발 성과 등 다양한 분야의 파생적 성과를 초래하였음. 이 외에도, 지역 내 존재하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화하는 것도 경제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음.
- ‘사업추진 네트워크 요인’의 경우 경제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체험프로그램이나 소득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내와 인근 지역 농업 생산자들과의 후방연계 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지를 얻는 성과를 올림. 역외 전문집단과의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는 방문객 수 증가를 초래하는 효과를 냄.
- ‘외부환경 요인’의 경우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몇몇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부가 원하는 기피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소득 시설과 주민 문화·복지 시설을 유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 외

- 에도 정부의 명승 지정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방문객 증가를 초래하기도 함.
- 이 외에 ‘기타 성공 요인’의 경우 시설의 다기능 복합화를 통한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시설 집중을 통한 소재지 기능의 향상과 방문객 증대, 그리고 태양열 시설 구축·활용을 통한 운영관리비 절감 등의 성과를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었음.

(표 7-10) 성공요인의 주요 성과에 대한 영향

성공요인 \ 주요 성과	인구·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성과	공간개발 성과
사업추진주체 및 지원조직 요인	◎	○	△	○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	○	◎	◎	○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요인	◎	○	○	△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요인	△	◎	○	○
사업추진 네트워크 요인	△	◎	○	○
외부환경 요인	△	○	○	△

주: 성공요인이 성과창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는 ◎, 다소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는 ○, 미약한 영향을 주고 있거나 영향이 없는 경우는 △으로 표시.

자료: 연구진 작성.

(표 7-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부분별 성공요인

성과부문 성공요인	인구·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공간개발 성과	기타 성과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의 PM 영입→주민과 지역의 역량강화, 귀농귀촌의 증가 지역 내 주민조직 활용→주민참여 증진과 역량강화 기본계획 수립 시 주요주체 간 역할 분담(추진위원회, 상가협의회, 등하리모임, 공동체협의회 등)→지역공동체 활성화 군의회이 추진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지역의 관심 증대와 미래 청사진 공유 지역 내 각기 존재하던 단체(자치위원회, 발전위원회, 새마을위원회 등)를 남상면발전영농조합법인으로 단일화→지역의 역량 집중 및 강화, 사업추진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주체들의 지속적 혁신→새로운 사업 창출 지역 내 주민조직 활용→주민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숙원혜소 벗어난 목표 설정→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민 스스로도 몰랐던 문화·복지 향상의 계기 마을·권역 소득의 지역 환원→주민 복지수준 향상 및 공동체성 회복 마을 중심부를 문화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위원회 등에 이 해당사 주민 및 행정의 적극적 참여→토지수용 및 공간개발 시 주민갈등 예방 및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 활용→주민 간 갈등해소와 장기적 안목 활용 사전에 사업부지 지점 매입(권역명목)→사업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시 갈등 사전 차단
사업의 목표와 내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경관 유지→젊은 귀농인 유치 마을의 문화활동 촉진→어린이 영화교실 참여 어린이가 성장하여 무지컬학과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숙원혜소 벗어난 목표 설정→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창출 마을·권역 소득의 분배 아닌 재투자→지역사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체험프로그램 다양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숙원혜소 벗어난 목표 설정→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민 스스로도 몰랐던 문화·복지 향상의 계기 마을·권역 소득의 지역 환원→주민 복지수준 향상 및 공동체성 회복 마을 중심부를 문화공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드맵에 따른 사업추진 →사업 시설과 공간 개발 체계적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피시설(축산분뇨처리장) 유치 자활용→에너지 자립마을 실현

성과부문 성공요인	인구·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공간개발 성과	기타 성과
인적자원과 역량강화 시스템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인 활용→지역 역량 강화 사업 대상지 외 인근지역으로까지 조합원 자격 확대→지역민의 관심 증대, 사업의 지속가능성 증대 사업별 사업조직 전문화→사업운영조직의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귀농귀촌 촉진→귀농귀촌인 증가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형성(가시리권역) 	<p>계절 체험객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드웨어 사업일지라도 소득 창출 시설 우선 설치→마을의 소득원 형성(가시리권역) 체육시설 임대(산업단지 직원 대상)→소득 창출(예: 남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인 활용→체험활동 활성화와 방문객 유치 주민조직 간 체계적 역할 배분→주민이 숙련화와 진문화 향상과 고정된 일자리 창출 	<p>로 조성→주민 복지수준 향상 및 공동체성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인 활용→주민의 문화역량, 문화·복지 향상 주민 동아리 활동 촉진→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보유자원과 자원의 활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모든 것을 자원으로 인식→새로운 사업 창출 지역 내 관광자원 연계→자원 간 시너지 창출 및 방문객 증가(예: 정선) 주변 풍력발전단지와의 연계한 태양열조성사업→수익발생 및 운영관리비 절감(예: 거창 남산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자원→동아리 등 주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악조건→차별적인 공간개발 가능성 유휴공동시설 활용(리모델링)→지역주민과 방문객 위한 공간 조성 	

성과부문 성공요인	인구·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 성과	공간개발 성과	기타 성과
사업추진 네트워킹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방연계의 발굴→지역능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역외 전문집단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새로운 지역사업 창출과 사업성공가능성 향상 1사1촌 등 역외 연계→농산물 판매 및 방문객 증가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예: 철도청과 연계한 관광열차)→방문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인 단체와의 네트워크→마을의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주민역량강화와 함께 문화·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 정부사업의 연계추진→오지마을개발 촉진 및 사업효과 증대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난개발 방지, 갈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사업 조직과의 협력→사업시너지 증대(예: everyday 정선5일장)
외부환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피시설의 적극적 유치와 활용→보상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 활용 정부로부터의 '명승' 지정 등 제도적 환경→지역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피시설의 적극적 유치와 활용→보상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 유치 		
기타 성공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다목적화→주민편의 증대와 문화·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집중→소재지 기능 향상 태양열 시설→운영 관리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집중→방문객 편의 증진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공요인 분석의 시사점

- 주민의 조직적 참여와 활용 및 역외 전문가의 역량 활용 필요.
 -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이 이해집단별로 조직화되어 체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상가번영회, 동아리 연합회, 공동체 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를 가진 주민집단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의 갈등 발생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음.
 -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서도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촌권역의 사례처럼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별로 서비스팀, 프로그램팀, 시설팀 등을 운영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함께 주민의 역량과 전문성까지도 증대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음.
 - 외부의 전문가, 특히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영입함으로써 사업프로그램 다양화,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증대와 이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사업 참여 증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제주도 가시리권역의 경우 외부 전문가 영입 후 추가적인 문화·예술인의 귀농·귀촌을 촉발했고 이들 귀농·귀촌인들이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권역의 특정 사업을 전담하면서 해당 사업을 수익성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킴.

- 당면한 주민 숙원 해소가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사업목표 수립과 이에 따른 내용 구성 필요.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권역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당장 필요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음.
 - 우수사례 지역들의 경우 사업목표나 사업내용을 주민숙원에 맞추기보다는 지역이나 권역, 마을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맞추어 수립·구성하는 경우가 많음.
 - 중·장기적인 사업목표 수립과 사업내용 구성을 위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장기 의제를 발굴

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토론하며 사업목표와 내용을 만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인 목표 외에, 우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표 수립과 사업내용 구성이 필요하며,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이 사업목표와 내용으로 중요시 되어야 함. 즉 소득사업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공동체 축제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 조성에도 큰 비중으로 사업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함.

○ 마을과 권역에서도 현대화(Modernization)와 혁신(Innovation)이 중요.

- 지역의 전통문화와 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중요. 단 전통문화를 체험하면서도 체험과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대화하는 작업 필요.
- 체험프로그램, 농업생산을 활용한 가공품과 서비스 등도 매년, 매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 재방문 유도를 위한 지속적 혁신 창출 필요.
- 지형적 악조건, 기후적 악조건도 자원으로 발굴하여 활용하려는 혁신 필요. 지형적 악조건이 눈썰매장으로, 기후적 악조건이 독특한 겨울 축제로 변화 가능.

○ 지역의 후방연계, 역외의 측면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

- 사업 대상지에 갇힌 마인드 탈피 필요. 우리 마을, 우리 권역, 우리 지역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군, 심지어는 인근 시·군까지 참여시키는 후방연계 구축. 이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른 후방연계의 유연성 확보와 사업 지역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 및 지지 기반 구축.
-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상품 개발, 새로운 방문객 유치 등을 위해 역외의 전문조직이나 전문기업들과의 적극적 협력 구축 필요.
- 농촌 지역의 현대화(modernization), 혁신(innovation), 광범위한 후방연계 구축, 역외 지원체계 구축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 청양군의 칠갑산권역(알프스마을)은 농가 중심의 6차 산업화가 아닌 지역 전체가 기업가적 정신을 공유한 기업(enterprise)으로 변모.

○ 교육, 선진지 견학 외에도 주민의 문화역량과 공동체 문화활동이 인

적자원 개발과 역량강화에 중요.

- 보고 듣는 것보다 함께 참여하고 체험함으로써 체득(embodied)하는 것이 주민의 역량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중요.
-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활용, 주민 동아리 활동 증대 등이 중요.

○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이 모두 기피하는 기피시설의 전략적 유치와 활용 모색도 중요.

제 8 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

제8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

제1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과 여건

- 지역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포괄보조 방식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7년간 추진했고, 여러 성과도 거두었음.
 - 포괄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됨. 관련 조직을 별도로 창설하는 지자체도 상당 수 있었음.
 - 2010년 이전과 비교해 농촌 인구는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귀농·귀촌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초가 되는 기초생활인프라의 정비의 양적 증가도 이루어졌음.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경우는 예비-진입-발전-자립의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방의 호응도가 높은 편임.
 - 지역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다보니 다양한 형태의 지원조직이 다수 만들어졌음. 마을활성화지원센터, 중앙계획지원단 등이 대표적임.

- 하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있음. 제도 설계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가 복합적임.
 -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삼분하여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펼치고 사업 대상지에 있어서는 읍·면·동을 구분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의 틀 내에서 포괄적·통합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어렵게 함. 특히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된 군들에서는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의 틀에 편입되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을 호소하기도 함.
 - 중심지, 마을, 역량강화, 인프라 등 4개 사업 유형별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심지와 마을이라는 공간 제한에 묶여

시·군 전체의 지역발전에 긴요한 이슈는 정작 농칠 수도 있게 만드는 문제도 보임. 지역에 따라서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요건이나 역량이 미흡함에도 암묵적으로 거의 모든 읍·면소재지와 마을별로 사업 순서가 정해져 있기도 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는 2015년 이후 개편이 되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통합, 선도, 일반지구의 사업 내용상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경우는 문화·복지, 체험·소득, 경관·생태 등의 불필요한 유형화의 칸막이 탓에 오히려 창의적 사업을 제한하거나 최종적으로 단계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10여 년의 장시간이 걸리는 탓에 주민 갈등이 표출되기도 함.
- 마을활성화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시·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터라 시·군 내지는 마을 단위에서 밀착적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현장 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 유입과 육성을 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상태임.
- 정책 추진 상태 평가 중 환류체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7년 출범한 새정부는 지역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음. 특히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이 강조되며, 지역과 주민, 풀뿌리 조직의 역할과 활동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추진되는 일부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농촌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 경우라면 개편·계승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부처에서 강조하는 정책 추진 동향을 관찰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개편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려 하고, 행자부는 지방소멸을 화두로 삼아 읍·면 허브화 사업 등을 추진하려 함. 모두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오히려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농촌의 가치와 자원 복원, 농촌의 중간지원조직과 자생적 주민활동가의 조직화 등을 통해 차별화할 수 있음.

-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도 사업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임.
 -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지속에 따라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언제까지나 현재와 같은 수준의 중심지, 마을 사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달리해야 함. 스마트 축소형 질적 재편이 요구됨.
 - 4차 산업혁명으로 압축될 수 있는 초연결, 초융합 등 기술 수준의 획기적 발전도 고려해야 할 요인임. 자율형 자동차가 보편화 된다면 중심지와 마을의 통합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재편이 필요함.
 -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보편화는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도시와는 차별적인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획기적 전략도 필요함.

제2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 설정
 - 농촌정책의 변화하지 않는 목표는 농촌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그 정책 목표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기여하도록 해야 함. 이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기 어려운 전제임.
 - 더욱이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정책의 목표 실현에 있어 거의 절대적인 비중과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주민이 행복한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등가치적 기초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마침 새정부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도 국토 어디서나 등가치적 생활여건을 보장해야 함.
 - 현재까지의 농촌정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가장 소홀했던 영역은 농촌 가치의 복원이나 확산과 관련된 것임.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유산 자원의 발굴과 복원, 확산 등이 필요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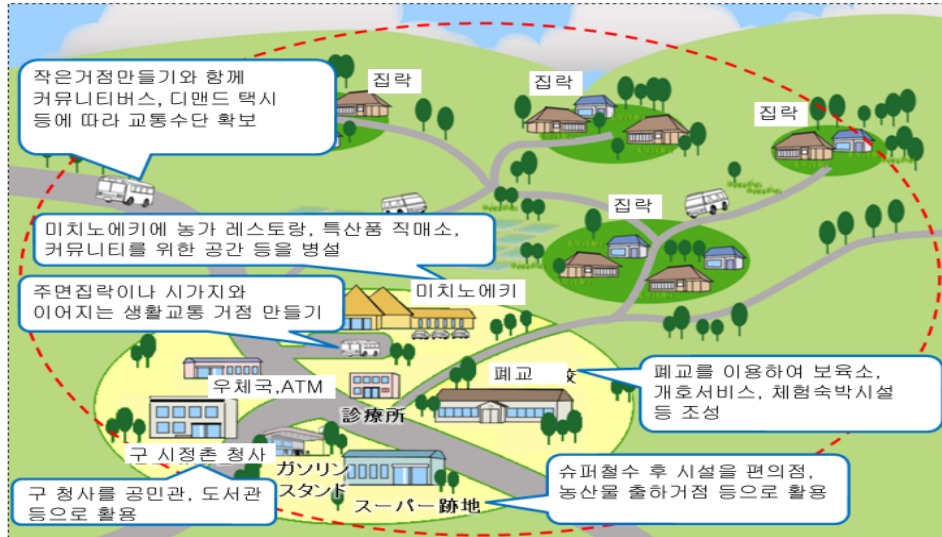
- 전국 어디에 살든지 농촌 주민에게 편리한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중심도시-중심지-작은 중심지-마을’ 등의 정주체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 기존의 중심지활성화사업은 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등의 구분을 탈피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사업비 한도를 확대하되 하한선을 정해두고 활동에 따라 사업비 가산을 하는 방식을 도입함. 무엇보다 배후마을과의 연계성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함.
- (가칭)농촌작은중심지육성사업을 통해 읍·면소재지 이외에 이격된 소생활권의 작은 거점을 두어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심지에의 접근이 제한적인 배후 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단계별 마을만들기사업 유형은 통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순화함. 그러나 역량 단계별 지원 방식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마을에 따라서는 사업기간을 단축 가능하도록 유연화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함.
- 기존 새뜰마을 사업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취약 마을 개조사업으로 승계하여 추진함. 전국적 공모 절차는 폐지하고 시·군의 자율적 선정을 존중함.

(표 8-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재편

구분	기존('15~'18)	개편('19~)
중심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일반/선도/통합지구) 추진 ▪ 유형별 사업비 차등 (60억원, 80억원, 1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사업 유형 일원화 중심성 강한 거점 육성 ▪ 농촌지역 최상위 거점 기능(고차 서비스) 강화 ▪ 배후지역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더욱 강화
작은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중심지는 역할 미흡, 읍·면소재지가 아니라더라도 중심지 기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 거점 육성 ▪ 고차 중심지 기능 보완하는 동시에 이용 빈도 높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 집약 ▪ 단계별 사업 추진 방식 * 1단계: 거점 형성 → 2단계(선택): 배후 연계
마을 단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유형 중규모(5억원) 사업 중 택 ▷ 중규모 사업 완료 후 종합개발 사업 (10억 원) ▷ 복수 마을 공동사업으로 권역종합개발 사업(4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유형 통합 가이드라인 간소화 ▪ 내용 제약 없이 마을의 역량 단계에 따라 계획을 수립, 추진 가능
취약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內 개별 주택 정비·지원 사업 부재 * 폐가 철거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자원으로 취약마을에 대한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취약마을은 지역 자율 선정

일본의 작은거점 및 향토집락 생활권 육성 사례

- ‘작은 거점’은 농촌에서 상점, 진료소, 공공시설 등의 생활 서비스 시설이 도보권의 중심지구 내 일정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곳을 말함. 시설의 공간적 집중, 중심지와 배후 마을의 접근성을 중시함.
- 일본의 작은 거점 만들기는 현재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농림수산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등 여러 부처의 시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



- 주1: 실선의 타원 안에 작은 거점이고, 여러 개의 마을이 산재한 지역에서 일상생활 및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기능을 작은 거점 내 보행권역에 집적시킴.
- 주2: 점선의 타원 안에 향토집락생활권으로서 작은 거점과 주변의 마을을 커뮤니티 버스 등으로 연계시키는 권역임.
- 자료: 임상연·변필성(2014)이 國土交通省(2014b)의 내용 일부를 번역하여 정리한 것을 변필성 외(2014: p.151)에서 재인용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보완

- 그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가장 부족한 부분은 시·군 포괄보조사업이면서도 중심지-마을 등 공간 중심의 사업에 치우쳐 시·군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과 농촌 가치 복원과 확산이라는 관점을 갖춘 사업이 부족했다는 점임. 따라서 농촌성, 농촌다움 복원 등을 추구하는 창의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공간적으로 마을, 읍·면, 시·군 전체를 막론하고 혹은 복수의 시·군이 참여해서 농업 유산의 보전, 산림이나 하천의 보전, 전통적 농촌 경관의 복원, 교육·문화·복지 등의 특화복지모델 실현 등 여하한 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 지역활성화 사업을 도입함. 특히 이는 균등하게 일정 사업비를 일반농산어촌사업 대상지인 123개 시·군 전체에 균등 배분한 후에 성과 판단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촉진함. 역량강화 사업비를 활용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함. 나아가 중간지원조직의 성격과 관련하여 보다 정교한 역할 분담 논의가 필요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 실행, 모니터링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각 과정별로 성격을 달리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 탐색해보아야 할 것임.
-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기획, 조정, 사후관리하는 전담지원부서를 마련하도록 유도함.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자치적인 조직화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둠.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NPOs 등 다양한 주민조직의 사업 참여를 촉진해 시설운영 등 사후관리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RAISE 기능의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를 도모함. 사업의 전 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성과관리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인구, 토지이용 및 시설입지

- 현황,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한 자원의 분포와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베이스라인 정보부터 누적적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함.¹⁴⁾
-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가 필요함. 아무리 포괄보조라 하여도 자체적인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시·군 스스로 RAISE 등을 활용해 성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 모니터링 요청 시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완료 지구의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타 용도 전환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R&D 강화가 요구됨. 중앙정부 정책 설계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기도 함.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 데이터의 구축과 관리임. 또한 그 중 우수사례에 대한 세밀한 현장 연구들의 축적도 필요하며, 공공건물이나 교통·교육·문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생활환경과 서비스 제공 방식의 기술적 측면의 연구 누적도 필요함. 더불어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 기획하여 실험해보고 그것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도 기획될 필요가 있음.

14) 일본에서도 지방창생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정보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창생본부에서 운영하는데, 지역이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SAS)를 개발·제공한다.

RAISE 문제점 및 개선 과제

- 구축 목적에 불일치하는 시스템 구현으로 인한 활용성 저하
 - RASIE의 구축 목적은 ①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산어촌 활용정보 DB구축 ②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③지자체의 지역개발 기획 기능 지원 도모임.
 - 그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데이터는 불완전한 상태이며 구조화 되어 있지 않아 자료 파악이 어렵고, 농산어촌 활용정보 DB는 극히 미비하거나 통계청의 일부 자료만 활용할 수 있음.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구조화되지 못한 메뉴 체계와 사용자 친화적이지 못한 인터페이스여서 사용하기 어려움. 특히 지자체의 지역개발 기획 기능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개선 방안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자료 수집 측면) 과거의 문서 파일 형태의 자료를 구조화된 DB로 빠른 시일 내에 변환하고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필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한 정보는 시각화 및 자료 검색이 용이하도록 변경.
 - (시스템 구조 측면) 현재 RAISE 구조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기능이나 메뉴들이 덧입혀져 일관성과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뉴얼을 통해 시스템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연계 측면) RAISE는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사업 지구의 위치, 내역사업들의 위치, 마을의 지점에 마을의 현황 정보 등에 불과함. 향후 RAISE는 공간정보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공간정보(스마트팜맵, 농진청의 흙토폴라, 산림청의 FGIS, 통계청의 SGIS, Vworld의 다양한 주제도 등) 과 연계하여 지역의 정보를 다층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에는 농촌 마을(행정리)에 대한 수치 지도를 구축하여 통계자료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 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볼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쪽에서는 테이블 형태로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두 번 세 번 무엇을 클릭해야 할지도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직관적인 상황과약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본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Dash-board 형태로 표출되어 자료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활용 측면) 관리자 측면에서 사업 실적 파악 용도로만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수요자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필요함. 예컨대, 지자체에서 지역의 정보를 검색하고 부족한 자원이나 인프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자료 집계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KOPSS(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UPIS(도시계획정보서비스)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 최종적으로는 RAISE를 통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비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해야 함.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와 개선 방안 - 전문가 및 시군 공무원 의견 요약>

구분	문제점	개선 방안
사업 부 문 별 이 슈	[농촌중심지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으로 건립한 시설의 활용도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해당 시설이 관광소득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 주민 조직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후마을에 연계시설 건립 지원방안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사업 예산의 일부를 중심지의 시설과 연계된 배후마을 시설 건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 중심지와 배후마을 통합적 개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선도/일반 등 중심지 유형 구분의 실효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처럼 일반/선도로 구분하거나 배후마을 연계 강화형, 거점 형성형 등의 기능별 유형으로 변경 또는 하나로 단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별 사업비 차등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단계별 또는 중심지의 규모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창조적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사업의 경우 권역 내 사업비 배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단순 배분이 아니라 권역 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시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사업의 경우 사업 유형 칸막이(종합, 문화·복지, 경제, 환경, 신규마을)로 인해 창조적 발전 계획 수립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사업의 세부유형 구분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단계별 마을사업 완료까지 너무 긴 사업기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사업을 완료하려면 10년인데, 이를 마을 역량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시·군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창의사업의 경우 기존 마을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평가기준을 따라야 해서 실제 창의성을 발현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창의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예: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에서는 시·군 창의사업을 물리적 시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콘테스트 방식으로 직접 창의사업 발굴 ▪ 실제 SW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및 예산) 도입 	
추진 절차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자율 포괄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맞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자율성' 체감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공무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경쟁·공모 방식으로 인한 발전 소외지역 발생 ▪ 공모 방식의 경쟁 심화로 과도한 용역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고려 필요. 공모경쟁을 완화하는 한편 성과평가는 강화 → 사업비의 일부라도 공모가 아닌 실질적 포괄보조사업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지 변경, 시설물의 입지 변경 자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과 현장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중심의 평가에서 참여 주체의 역량 등의 평가로 전환 ▪ 주민들이 충분히 학습·훈련하고, 활동경험을 축적하는 한편 나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제공 ▪ 예비계획서 준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계획서 내용 기준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계획(기획부서)과 실시계획(사업부서) 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기획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두 계획간 내용 불일치를 기준으로 페널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협의로 인한 시·군 자율편성사업 취지 퇴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사업 유형별 담당관 제도 도입
사업 관리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위주의 사후 관리 체계 ▪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농관원)의 사업 모니터링으로 인해 현장 점검 및 사업 관리 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 대한 단순 점검에 그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주민만족도, 외부 유인도 등 성과측정지표 등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 ▪ 정부합동평가(국·도정 합동평가) 또는 시·군종합평가 등 시·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가의 지표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지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사업 없는 시설 운영 방식의 지속가능성 부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및 물품관리위탁법」 지침 개정으로 위탁자의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 내 소득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갈등과 사후관리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갈등이 사후관리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주민갈등관리 방안 필요
추진 주체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담당자의 포괄보조사업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획 및 사업성 평가 단계에 코치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및 지원 ▪ 시·군 공무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추진위원회 변경에 따른 계획 변경 ▪ 추진위원회의 대표성(대의성) 부족 ▪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변경에 따른 사업의 본래 취지 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실수요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과 수요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한도로 인해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컨설팅 업체의 계획 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를 통해 중간조직 육성 유도

신규 사업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R&D 예산 부재로 인한 사업 개선·발전을 위한 기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내 R&D 예산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세분화로 인해 포괄보조사업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함 ▪ 소규모 공간중심 사업이 아닌, 시·군 전체에 걸친 이슈중심의 사업 발굴·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시·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시·군 특성화 사업유형 개발 ▪ 이슈 단위 공동체(육아, 가공, 교육 등) 사업 유형 추가와 지원
기타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정보(홍보) 전달 문제 (사업 초기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참여도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홍보 강화 - 행정 중심의 정책홍보체계(행정→지역리더) 방식에서 대국민 홍보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ISE 활용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ISE의 일반 접근 강화 필요 ▪ RAISE를 활용한 간략 예비계획서 작성 및 자체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지침, 사업시행과정의 가이드라인,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등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분석과 정리를 통한 단계별 가이드라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농촌형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참고문헌>

- 강상균, 2004, SOC 프로젝트의 핵심성공수행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민간사업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경영학박사 청구논문.
- 강석보,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분석 등 발전방향 수립, 제주시.
- 김강섭, 전택기.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4), pp. 59-66.
- 김경량, 최윤상, 홍성규,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농촌계획, 12(2), pp.65-73.
- 김봉원, 2016, 우수사례의 유형별 특징과 시사점, 지역과 발전(Vol. 25, pp.9-11.), 지역발전위원회
- 김영주, 은희창, 최영완, 박현용, 이영규, 최민화, 김현미, 2014,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정연, 김은순, 2013, 기초생활권 중심지 정비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일반농산어촌지역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4), pp.133-152.
- 김제안, 채종훈, 2010,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23(2), pp.869-888.
- 박수진, 나주몽, 송인성. 201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역량과 주민협력에 관한 연구 - 전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45(1), pp.67-95.
- 변필성, 임상연, 김명수, 2014,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 송미령 외,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이동필, 성주인, 김정섭, 박주영, 원병석, 2008, '창조적 광역발전'시대의 농식품부 사업 광역화 및 체계화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송미령 외, 2013,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과제, 제11차 지역정책포럼 발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정도채, 유은영, 이정해, 2016, 농업·농촌 정책지원을 위한 통

- 합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기초연구(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송미령, 성주인, 정도채, 정문수, 민경찬, 2017,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 추진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알프스마을(충남 청양군), 2015,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계획서(2015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신청서).
 - 원광희, 2016,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개발 전략, 『농어촌과 환경』, 132, pp.81-93.
 - 유병규, 김동열, 2011,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성공·실패 사례와 핵심 성공요인(CSF), 경제주평, 11(39), 현대경제연구원.
 - 양주필, 김정옥, 강창엽. 2016,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 농림축산식품부.
 - 이민수, 2014, EU의 농촌개발사업 평가체계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21(3), pp.271-305.
 - 이상호, 20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동북아관광연구, 7(1), pp.177-195.
 - 이성우, 윤성도, 2008, 농업·농촌 정책 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모형 연구, 농촌계획, 14(4), pp.97-108.
 - 이한성, 2006, AHP를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의 설정, 농업경영정책연구, 33(1), pp.183-197
 - 정광석, 2016,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마을공동체 이슈프리즘(2016. 1. 15. Vol.2.), 행정자치부 한국지역진흥재단.
 - 지역발전위원회, 2016,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평가, 내부자료.
 - 최영완, 2011, 지역유형을 고려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평가 및 개선방안, 농업생명과학연구, 45(6), pp.227-235.
 - 최양부 외, 1982, 2000년대를 향한 강진농촌정주생활권개발 기본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경수, 20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점검을 위한 평가지표 적용사례, 농촌계획, 13(2), pp.121-132.
 - 한국농어촌공사, 2018(예정), 영암군 왕인촌권역 역량강화사업, 내부자료
 - 홍철 외, 2013, 국민행복과 지역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 지역발전위원회.

- IDEA Consult and ECORYS-NEI, 2005, Indicators for the Evaluation of the EU's Rural Development Programs Task 1 to 5,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DG Agriculture.

<참고 웹사이트>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sie.go.kr)

<참고 통계>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10, 2015

부록

<부록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전문가용)
<p>안녕하십니까?</p> <p>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농촌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군·구 자율편성(포괄보조)사업의 하나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지도 벌써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의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해야할 점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합니다.</p> <p>조사 내용은 관련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전문가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디 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7년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연구 책임: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 T. 061-820-2351) (담당 연구진: 김광선 연구위원 / T. 061-820-2361)</p>	

SQ1. 귀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정보는 분석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명		직장 및 직위	
세부 전공 명		농촌정책 관련 연구 또는 업무 경력	약 ()년
농촌정책 추진 실태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지역(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① 경기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 ⑤ 전북 ⑥ 전남 ⑦ 경북 ⑧ 경남 ⑨ 제주 ⑩ 세종	
HP 전화 번호	(- -)	설문조사지 작성을 완료하신 분께는 추후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립니다.	

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의 성과 평가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기초생활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인구 유지, 공동체 활성화, 계획적인 개발, 지역특화발전 도모 등을 목표(목적)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이 이러한 **목표(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주요 목표(목적)별로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목표(목적)	효과 전혀 없음 ← → 효과 매우 높음 해당 점수(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주민소득 증대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3) 어메니티 증진(경관, 주거공간 등의 개선 포함)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 인구 유지(도시민 유입 포함)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 공동체 활성화(지역역량강화 포함)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6) 계획적인 개발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7) 지역특화발전 도모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8) 기타 주요 목적(직접 기입:)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9) 이상의 사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의 종합평가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참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목적)>

(a) **일반농산어촌개발 중장기계획(안)(2013~2019)**: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 도모

(b)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c)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2. 앞의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유형별 사업부문들이 앞서 제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부문 주요 목표(목적)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 효과 전혀 없음		→→ 효과 매우 높음	
	해당 점수를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중심지 (농촌중심지)	마을 (창조적마을)	역량강화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
(1) 주민소득 증대	()점	()점	()점	()점
(2)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	()점	()점	()점	()점
(3) 어메니티 증진(경관 주거공간 등의 개선 포함)	()점	()점	()점	()점
(4) 인구 유지(도시민 유입 포함)	()점	()점	()점	()점
(5) 공동체 활성화(지역역량강화 포함)	()점	()점	()점	()점
(6) 계획적인 개발	()점	()점	()점	()점
(7) 지역특화발전 도모	()점	()점	()점	()점
(8) 기타 주요 목적 (직접 기입:)	()점	()점	()점	()점

3. **[설명 1~3]**을 읽은 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설명 2]**와 같은 기존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설명 1]	<p>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금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직전에는 ① 농촌마을종합개발, ② 산촌생태마을조성, ③ 어촌종합개발, ④ 소도읍육성, ⑤ 거점면소재지개발사업, ⑥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⑦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⑧ 전원마을조성, ⑨ 신규마을조성, ⑩ 농촌생활환경정비, ⑪ 주거환경개선, ⑫ 농촌농업생활용수, 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⑭ 지표수보강개발, ⑮ 소규모용수개발, ⑯ 개축지구지원 등 16개 이상의 개별 단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p>
[설명 2]	<p>이들 다양한 개별 단위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기 전에는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1) 개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의 부재와 사업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 (2) 부처 간 또는 동일 부처 내 사업들 간 조정·부족, (3)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저하, (4) 사업 간 유사·중복성 심화, (5) 소규모 분산 투자 심화, (6) 적절한 평가 및 환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p>
[설명 3]	<p>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존의 다양한 개별사업이 통합된 결과이지만 현재 ① 농촌 중심지 활성화 통합지구, ②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③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④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 ⑤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⑥ 창조적마을만들기 경제(체험), ⑦ 창조적마을만들기 경제(소득), ⑧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 ⑨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종합개발, ⑩ 창조적마을만들기 삼립휴양치유마을(18년 추진 확정: 산림청 소관), ⑪ 시·군 창의, ⑫ 시·군 역량강화, ⑬ 기초생활인프라정비(농촌생활환경정비), ⑭ 기초생활인프라정비(농촌빈집정비), ⑮ 기초생활인프라정비(농업기반정비) 등 실제 세부적으로는 15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지역들은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 지역은 기존과는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소관부처가 되었습니다(부록 5 참조).</p>

[질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2010년 이전과 비교할 때 현재는,

3-1. (1) **개별 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 목표의 부재와 사업간 체계적인 연계 부족**이라는 문제가,

- ① 훨씬 악화되었다. ② 다소 악화되었다. ③ 비슷한 수준이다. ④ 다소 개선되었다.
- ⑤ 매우 개선되었다.

3-2. (2) **부처 간 또는 동일 부처 내 사업들 간 조정부족**이라는 문제가,

- ① 훨씬 악화되었다. ② 다소 악화되었다. ③ 비슷한 수준이다. ④ 다소 개선되었다.
- ⑤ 매우 개선되었다.

3-3. (3)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저하**라는 문제가,

- ① 훨씬 악화되었다. ② 다소 악화되었다. ③ 비슷한 수준이다. ④ 다소 개선되었다.
- ⑤ 매우 개선되었다.

3-4. (4) **사업 간 유사·중복성 심화**라는 문제가,

- ① 훨씬 악화되었다. ② 다소 악화되었다. ③ 비슷한 수준이다. ④ 다소 개선되었다.
- ⑤ 매우 개선되었다.

3-5. (5) **소규모 분산 투자 심화**라는 문제가,

- ① 훨씬 악화되었다. ② 다소 악화되었다. ③ 비슷한 수준이다. ④ 다소 개선되었다.
- ⑤ 매우 개선되었다.

3-6. (6) **적절한 평가 및 환류체계 부재**라는 문제가,

- ① 훨씬 악화되었다. ② 다소 악화되었다. ③ 비슷한 수준이다. ④ 다소 개선되었다.
- ⑤ 매우 개선되었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前後)를 비교할 시, 시·군의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주체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다음 항목별로 동의하는 수준을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평가(√ 표)해 주십시오.

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변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후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전적으로 동의함
(1) 기획부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사업부서가 다양화 되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3)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의 역할 분담이 강화되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 행정 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팀이나 관련된 새로운 조직이 창설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 시·군 행정 내에 부서 간 협조·협력체계 구축이 증가하였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되었다.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7) 민간부문 또는 제3섹터 부문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8)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과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9)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조직의 형성·운영이 증가하였다.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0)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1) 시·도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증가하였다.	①...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2) 기타 사업주체 변화(오른쪽 빈칸에 직접 기입)	() ()

5.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사업유형별**로 ① 중심지 개발(중심지활성화), ② 마을·권역 개발(창조적마을만들기), ③ 역량강화(시·군 역량), ④ 기초생활인프라 정비로 구분할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추진 전과 비교할 때) 가장 확대된 사업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가장 축소된 사업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장 **확대**된 사업유형 (①~④ 중 한 가지만 선택) ☞ ()번
 (2) 가장 **축소**된 사업유형 (①~④ 중 한 가지만 선택) ☞ ()번

6. 농촌지역개발사업을 **기능별**로 ① 기초생활기반 확충, ② 지역소득 증대, ③ 지역경관 개선, ④ 지역역량강화로 구분할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추진 전과 비교할 때) 가장 확대된 사업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가장 축소된 사업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가장 **확대**된 사업기능 (①~④ 중 한 가지만 선택) ☞ ()번
 (2) 가장 **축소**된 사업기능 (①~④ 중 한 가지만 선택) ☞ ()번

7. 과거 추진되었던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어촌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전원마을조성, 주거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등의 농촌지역개발사업들과 비교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기본·시행계획)의 구속력 또는 실행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업계획의 구속력·실행력이 매우 높아졌다. ② 사업계획의 구속력·실행력이 다소 높아졌다.
 ③ 사업계획의 구속력·실행력이 과거 농촌지역개발사업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④ 사업계획의 구속력·실행력이 다소 약화되었다. ⑤ 사업계획의 구속력·실행력이 훨씬 더 약화되었다.

I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점과 개선 수요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내역사업의 세분화로 인한 경직성 | ② 중앙정부(부처)의 간섭이나 통제 |
| ③ 도(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이나 통제 | ④ 국비지원의 감소 |
| ⑤ 시·군에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한계 존재 | ⑥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복잡함 |
| ⑦ 사업 계획 및 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량 부족 | ⑧ 계획적인 개발 추진에 한계 존재 |
| ⑨ 주민 참여 활성화 촉진에 한계 존재 | ⑩ 예산편성 절차의 복잡함 |
| ⑪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잦은 계획 변경 | ⑫ 사업대상지의 부적절한 입지 |
| ⑬ 적절한 성과평가체계의 부족 | ⑭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체계의 부족 |
| ⑮ 사업추진과정의 불법 및 편법 만연 | ⑯ 기타(직접 기입:) |

9. 다음은 2017년 기준으로 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 내역사업(①~⑪)별 국비지원 예산총액 및 비중입니다. 예산비중의 증감이 사업량 비중의 증감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아래 표에서 ‘향후 바람직한 비중’ 컬럼의 괄호()에 향후 예산비중(사업량 비중)을 어느 정도로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세부 **내역사업별로 향후 바람직한 예산사업량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 단, 각 괄호에 기입하신 전체 비중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유형별 사업부문	세부 내역사업	'17 국비지원 총액 (백만 원)	세부 내역사업의 현재 비중	향후 바람직한 비중 %
농촌 중심지 활성화	①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49,830	5.9%	() %
	②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396,411	46.7%	() %
창조적 마을 만들기	③ 마을단위종합개발	14,038	1.7%	() %
	④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14,835	1.7%	() %
	⑤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6,511	0.8%	() %
	⑥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26,273	3.1%	() %
	⑦ 마을단위신규마을	16,007	1.9%	() %
	⑧ 권역단위종합개발	139,655	16.4%	() %
시군 역량	⑨ 시군역량강화	10,333	1.2%	() %
	⑩ 시군창의	26,923	3.2%	() %
기초생활 인프라	⑪ 기초생활인프라	148,225	17.5%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총액		849,041	100.0%	(100.0) %

1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별 사업부문인 (1) 농촌 중심

지 활성화, (2) 창조적마을만들기, (3) 시·군 역량, (4) 기초생활인프라 외에 **향후 추가해야할** 필요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사업부문 유형**이 있다면 아래 괄호()에 기입해 주십시오.

☞ 추가 필요한 사업부문 유형: ()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도입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유형별 사업부문(중심지, 마을, 역량강화, 기초인프라)이나 내역사업 세분화로 시군의 사업계획 및 추진이나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통합 또는 세분화**되어 시·군에 제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 ① 어떠한 세분화도 없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계획과 예산편성에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 ②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형별 사업부문과 세부 내역사업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유형별 사업부문만 제시하여 관리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사업 구분은 없어야 한다.
- ④ 현재보다도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⑤ 기타(직접 기입:)

12. **[설명]** 201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식품부 소관)이 도입될 당시, 이외에도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 사업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과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이상 국토부 소관), 그리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행자부)이 함께 도입되어 최근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사업 중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 사업은 이른 바 '3+1 체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록 4]**과 같이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 사업이 보다 다양해지고 소관부처도 추가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 보더라도 **[부록 5]**의 두 번째 표와 같이 지역특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사업의 소관부처로 추가되었으며, **[부록 6]**과 같이 향후에는 창조적마을만들기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산림휴양치유마을이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질문] 본 조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 하더라도 소관부처·청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으로 다양화되었으며, 넓게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사업 중 시·군·구 자율

편성 포괄보조 사업 역시 **사업이 다양화**되고 **소관부처청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 사업의 변화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역의 특성 및 차이를 고려하는 바람직한 변화이다.
- ② 부처·청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바람직한 변화이다.
- ③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
- ④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 지역의 사업추진 혼란 및 제약을 초래하는 변화이다.
- ⑤ 변화의 결과 및 영향이 어떠한든,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 지역에 대한 고려이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부처·청을 주로 고려한 변화이다.
- ⑥ 기타 의견(직접기입:)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추진 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성 검토 지표의 적절성**을 최소 0점부터 최대 10점을 평가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성 검토 지표를 빈칸에 기입해 주십시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의 사업성 검토 지표	주요 내용	전혀 적절하지 못함	매우 적절함								
		←	→								
		해당 점수(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사업대상지 입지의 적절성	중심성 및 생활권 분석, 부지확보 수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추진 의지	시장군수, 공무원, 지역주민, 추진위원회 등의 사업추진 의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투자계획의 적절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역량강화	지역주민과 사업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노력, 마을역량진단, 현장포럼과 같은 사전준비단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추진체계	발전협의회, PM단, 중간지원조직, 추진위원회와 협의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기대효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기대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유지관리	지속 및 실현가능한 시설물과 S/W 계획 수립 여부,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과 구체성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정책협조도	사업포기, 대상지 및 주요사업 변경, 예산불용, 국정과제 이행 협조도, 공간정보시스템(RAISE) 협조 실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이외 추가가 필요한 사업성 검토 지표	(a) <지표: > / <주요 내용: >										
	(b) <지표: > / <주요 내용: >										
	(c) <지표: > / <주요 내용: >										
	(d) <지표: > / <주요 내용: >										

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별 사업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할 때 **성과지표로서의 적절성**을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평가하여 괄호()에 해당 점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0점(전혀 적절하지 않다) ←← →→ 10점(매우 적절하다)

성과지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 역량	기초 생활 인프라
		마을·권역 종합개발	문화· 복지	경제 (체험·소득)	환경 (경관·생태)	신규 마을		
1)주민 소득 변화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2)고용 변화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3)경관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4)정주여건 주민 만족도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5)문화·복지시설 이용량 변화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6)관광객 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7)사업과 관련해 결성된 주민조직 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8)사업 관련 조직에 대한 주민 참여도 (가입자 수, 비율)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9)지역의 인구 변화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10) 문화, 복지, 평생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수 변화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11) 추가가 필요한 성과지표 (오른쪽 빈칸에 직접 기입)								

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우수사례 또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다면 아래에 지역(사업지구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해당 사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업명도 함께 기입해 주십시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성공사례 지역(사업지구 명): ①____, ②____, ③____

☞ 사업 명: ①사례의 사업명 - _____, ②사례의 사업명 - _____, ③사례의 사업명 - _____

16. 직접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와 선진국의 유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 및 성공사례를 고려할 때, 어떤 요인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표에 제시된 '성공요인 예시 항목'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요인**으로서 적절한지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또 빈칸에 예시 항목 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 있으면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성공요인 예시 항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요인으로서 적절성	
	← 전혀 적절하지 못함	→ 매우 적절함
(1) 사업 대상지의 입지적 이점	0...1...2...3...4...5...6...7...8...9...10	
(2)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0...1...2...3...4...5...6...7...8...9...10	
(3)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0...1...2...3...4...5...6...7...8...9...10	
(4) 시군의 지역발전 비전 또는 목표와의 연계 추진	0...1...2...3...4...5...6...7...8...9...10	
(5)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	0...1...2...3...4...5...6...7...8...9...10	
(6) 사업계획의 적절하고 충실한 수립	0...1...2...3...4...5...6...7...8...9...10	
(7)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0...1...2...3...4...5...6...7...8...9...10	
(8) 마을리더 또는 지역리더의 강한 리더십	0...1...2...3...4...5...6...7...8...9...10	
(9)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0...1...2...3...4...5...6...7...8...9...10	
(10) 전문가(전문기관)들의 참여 및 협력	0...1...2...3...4...5...6...7...8...9...10	
(11) 민간기업의 참여 및 협력	0...1...2...3...4...5...6...7...8...9...10	
(12)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사전 교육	0...1...2...3...4...5...6...7...8...9...10	
(13) 사업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주체들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0...1...2...3...4...5...6...7...8...9...10	
(14)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0...1...2...3...4...5...6...7...8...9...10	
(15) 사업완료 후 사후 관리	0...1...2...3...4...5...6...7...8...9...10	
(16) 이외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성공요인 (오른쪽 빈칸에 직접 기입)	<	>

17. 끝으로, 사업기획/선정/집행/평가/환류 등 추진과정이나, 사업내용, 정부지원 방식, 예산운영 방식, 사업관리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과제라 생각하시는 내용을 아래 빈 칸에 제시해 주십시오.

개선과제 명	주요 내용

<부록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담당자 설문조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공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이라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시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현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군·구 자율편성(포괄보조)사업의 하나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된 지도 벌써 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해야할 점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합니다.

조사 내용은 관련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의 개인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디 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길 바라며 설문조사 작성은 **9월 30일 이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컴퓨터로 설문작성이 가능합니다.)

2017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연구 책임: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 T. 061-820-2351)

(담당 연구진: 김광선 연구위원 / T. 061-820-2361)

SQ1. 귀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정보는 분석 결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명		시·군 명	
부서 명		직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업무 담당 기간	약 ()년 ()개월	HP 번호	(-)

* 설문조사지 작성을 완료하신 분께는 추후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HP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효과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기초생활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인구 유지, 공동체 활성화, 계획적인 개발, 지역특화발전 도모 등을 목표(목적)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이 이러한 **목표(목적)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주요 목표(목적)별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요 목표(목적)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매우 잘 달성하고 있음
	←	→
해당 점수(번화)에 √표해 주십시오.		
(1) 주민소득 증대	0...1...2...3...4...5...6...7...8...9...10	
(2) 기초생활(인프라)수준 향상	0...1...2...3...4...5...6...7...8...9...10	
(3) 어메니티 증진(경관, 주거공간 등의 개선 포함)	0...1...2...3...4...5...6...7...8...9...10	
(4) 인구 유지 및 증가(도시민 유입 포함)	0...1...2...3...4...5...6...7...8...9...10	
(5) 공동체 활성화(지역역량강화 포함)	0...1...2...3...4...5...6...7...8...9...10	
(6) 계획적인 개발	0...1...2...3...4...5...6...7...8...9...10	
(7) 지역특화발전 도모	0...1...2...3...4...5...6...7...8...9...10	
(8)이상의 사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의 종합평가	0...1...2...3...4...5...6...7...8...9...10	
(9)기타 주요 목적(오른쪽 빈칸에 직접 기입)	()	()

2. 위와 같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귀 시·군 농촌지역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고 판단되는 사업유형은 무엇입니까?(한 가지만 √표)

- | | |
|--------------------------|-------------------------|
| ① 농촌중심지활성화 | ②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마을 단위' 사업 |
| ③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권역 단위' 사업 | ④ 시·군 역량 중 '시·군 창의' 사업 |
| ⑤ 시·군 역량 중 '시·군 역량강화' 사업 | ⑥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업 |
| ⑦ 기타(직접 기입: _____) | |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前後)를 비교할 시, 귀하의 시·군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해당 항목의 변화 수준을 평가해 주십시오(√표).

시·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변화	변화 수준		
	←← 크게 감소함	변화없음	→→ 크게 증가함
(1) 시·군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예산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2) 시·군의 사업구성 및 예산편성 자율성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구성의 복잡성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4) 사업선정을 위한 시·군 간 경쟁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5) 정부의 사업지침이나 규정, 사업추진 과정의 복잡성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6) 사업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과정의 난이도와 비용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7)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부평가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8) 시·군 내에서 사업 간 또는 지역 간 연계 효과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9)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의 가능성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10) 전반적인 농촌지역개발정책의 개선정도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11) 기타 주요 변화(오른쪽 빈칸에 직접 기입)	(_____)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전후(前後)를 비교할 시, 귀 시·군의 경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주체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다음 항목별로 변화도를 평가해 주십시오(√표).

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변화	변화 수준		
	←← 크게 감소함	변화없음	→→ 크게 증가함
(1) 기획부서의 역할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2) 사업부서의 다양화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3)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의 역할 분담 및 부서간 협조·협력 체계 구축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4) 행정 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팀이나 관련된 새로운 조직의 창설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민간부문 참여도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정도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6) 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참여도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7)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조직의 형성·운영 및 부민들의 발언권이나 영향력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8) 중앙정부의 영향력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9) 시·도의 영향력	⑤...④...③...②...①...①...②...③...④...⑤
(10) 기타 사업주체 변화(오른쪽 빈칸에 직접 기입)	()

II.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

5. 선생님께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체계나 방법, 관련 제도, 정부 지침이나 규정, 사업 내용 등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또는 어렵게 시·군 지자체에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를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해당 점수에 √표).

(0점 →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전달되고 있음 / 10점 → 아주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전달되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수요, 사업 대상지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귀 시·군에서 주로 활용 해온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1순위와 2순위 항목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방법: ()번 / 2순위 방법: ()번

〈보 기〉

- ① 주민 추진위원회의 모임 활성화 지원
- ② 시·군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실시
- ③ 용역업체 또는 컨설팅조직을 통해 파악

- ④ 담당 공무원이 추진위원회, 현장포럼 등에 직접 참가해 파악
- ⑤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 행정주도의 회의 활용
- ⑥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역 내 제 3섹터 조직(마을기업, 공동체 회사, 사회적 기업 등) 활용을 통해 파악
- ⑦ 기타(직접 기입: _____)

7. 지금까지 귀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경험을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높은 성과를 내거나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요인의 중요성을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표). 또 제시된 요인 외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고려해야할 항목이 있으면 빈칸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높은 성과 또는 성공을 위해 중요한 요인	중요도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매우 중요함
(1) 사업 대상지의 입지적 이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3) 시·군의 사업추진 의지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 시·군의 지역발전 비전 또는 목표와의 연계 추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 관련 사업과의 연계 추진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6) 사업계획의 적절하고 충실한 수립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7)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8) 마을리더 또는 지역리더의 강한 리더십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9)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및 전문가(전문기관)들의 참여·협력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0) 사업시행의 관리·감독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1) 사업완료 후 사후 관리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12) 이외 고려해야할 중요한 성공요인 (오른쪽 빈칸에 직접 기입)	<	>

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단계별로 각각 두 가지만 선택해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예비계획: (,)번 / 기본계획: (,)번 / 시행계획: (,)번

- ① 내역사업의 세분화로 인한 계획수립 경직성
- ② 중앙정부(부처·청)의 간섭이나 통제
- ③ 도(광역시단체)의 간섭이나 통제
- ④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자체역량 부족

- ⑤ 컨설팅 업체의 계획수립 지원 부족
- ⑥ 계획수립 절차와 단계의 복잡함
- ⑦ 계획수립 시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 ⑧ 주민들의 계획수립 단계 참여 부족과 주민 갈등
- ⑨ 중간지원조직,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네트워크 부족
- ⑩ 사업계획 수립에 드는 과도한 비용
- ⑪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자원 특화형 사업계획 수립의 제한
- ⑫ 위원회 등 사업 관련 주민조직 구성의 어려움
- ⑬ 리더의 부재나 리더의 역량 부족
- ⑭ 기타(직접 기입: _____)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표).

- ① 내역사업의 세분화로 인한 사업추진의 경직성
- ② 중앙정부(부처·청)의 간섭이나 통제
- ③ 도(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이나 통제
- ④ 사업추진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 ⑤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지역의 자체역량 부족
- ⑥ 사업추진 절차와 단계의 복잡함
- ⑦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
- ⑧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 ⑨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부족과 갈등
- ⑩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법·편법의 가능성
- ⑪ 리더의 부재나 리더의 역량 부족
- ⑫ 기타(직접 기입: _____)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 완료 이후 또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표).

- ① 정부의 사업평가체계 경직성 및 부적절성
- ②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한 사후관리 예산 부족
- ③ 사업의 사후관리를 책임질 주체의 불명확성
- ④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부족
- ⑤ 사업 준공 후 주민들의 관심 저하
- ⑥ 사업 준공 후 지속할 만한 프로그램 부족
- ⑦ 중앙정부(부처·청)의 간섭이나 통제
- ⑧ 도(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이나 통제
- ⑨ 주민들 간 갈등 또는 지역 내 갈등의 발생
- ⑩ 리더의 부재나 리더의 역량 부족
- ⑪ 사업추진의 불법·편법으로 인한 법적·행정적 문제
- ⑫ 본래 계획과 다르게 추진된 사업 결과로 인한 문제
- ⑬ 기타(직접 기입: _____)

11. 기존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단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소관 부처청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으로 증가하였으며, 포괄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유형별 사업부문이나 세부 내역사업 역시 다양화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선생님께서 시·군 지자체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역의 특성 및 차이를 고려하는 바람직한 변화이다.
- ② 부처·청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바람직한 변화이다.

- ③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
- ④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 지자체의 사업추진 혼란 및 제약을 초래하는 변화이다.
- ⑤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 지자체에 대한 고려이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부처·청을 주로 고려한 변화이다.
- ⑥ 기타 의견(직접기입: _____)

Ⅲ.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향후 수요

12. 지금까지의 사업추진과 비교할 때, 귀 시·군에서 보다 더 확대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12-1번). 그리고 해당 사업유형을 기존에 비해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 역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12-2번).

12-1. 지금까지와 비교하여 향후 더 확대하여 추진하기 원하는 사업유형은?(한 가지만 √표)

- | | |
|--------------------------|-------------------------|
| ① 농촌중심지활성화 | ②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마을 단위' 사업 |
| ③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권역 단위' 사업 | ④ 창조적마을만들기 중 '산림휴양치유마을' |
| ⑤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 ⑥ 시·군 역량 중 '시·군 창의' 사업 |
| ⑦ 시·군 역량 중 '시·군 역량강화' 사업 | ⑧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업 |
| ⑨ 기타(직접 기입: _____) | |

12-2. 위의 사업유형을 선택한 이유는?(한 가지만 √표)

- ①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커서
- ② 우리 시·군의 사업추진 역량(단계)에 맞는 사업이어서
- ③ 주민들의 요구가 큰 사업이므로
- ④ 사업완료 직후 시설, 인프라 등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 ⑤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가 원활하여서
- ⑥ 우리 시·군의 농촌지역 발전전략과 가장 잘 조화되므로
- ⑦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과의 조화 및 연계를 위해
- ⑧ 기타(직접 기입: _____)

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통합, 선도, 일반 지구), 마을단위 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권역단위 종합개발, 신규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시·군 창의, 시·군 역량강화,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귀 시·군에서 필요한 세부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 유형이나 사업 내용을 아래 괄호에 간략히 제시해 주십시오.

☞ 추가 필요한 세부 사업 유형이나 내용: (_____)

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도입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유형별 사업부문이나 세부 내역사업 구분으로 시·군의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이나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통합 또는 세분화되어 귀 시·군에 제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표)

* 유형별 사업부문: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 역량, 기초생활인프라 등의 구분 의미

* 세부 내역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가 통합지구, 선도지구, 일반지구 등으로 세분화된 것이나 창조적마을만들기가 종합개발,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권역단위종합개발 등으로 세분화된 것을 의미

- ①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계획과 예산편성에서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 ②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유형별 사업부문과 세부 내역사업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유형별 사업부문만 제시하여 관리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사업 구분은 없애야 한다.
- ④ 현재보다도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⑤ 기타(직접기입: _____)

15. 아래의 각 서술 항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선의 방향이나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이 중 귀 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표)

-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② 예비계획서 준비 절차를 간소화 하고 내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 ③ 예비계획서 내용보다는 지역·주민·참여주체 등의 역량강화 실태를 중심으로 사업선정을 해야 한다.
- ④ 사업선정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을 고려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 ⑤ 공모경쟁을 완화하고 성과평가는 강화해야 한다.
- 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과 현장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 ⑦ 사업추진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⑧ 개별 시·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시·군 특성화사업 유형을 발굴·확대해야 한다.
- ⑨ 중심지, 권역, 마을 등의 공간단위 공동체 중심의 사업과 달리 육아, 교육, 가공 등 이수 공동체 중심의 사업 유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 ⑩ 일부 120억, 80억, 60억 등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의 지원규모를 줄이고, 대신 사업 대상지를 늘려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16. 끝으로 현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 귀 시·군이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문제점, 또는 가장 필요한 개선수요(정책수요)를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부록 4>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 사업(포괄보조금사업)

< 포괄보조금사업(31+6개)지원대상 >

◇ 31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내역사업(예시)	
시·도 자율편성사업	문화부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 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④ 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작은 영화관 등
		⑤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림부	⑦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 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⑪ 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 등
		⑫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농진청	⑬ 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산림청	⑭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⑮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⑯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관리 등
	산업부	⑰ 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⑱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⑲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⑳ 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㉑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㉒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지역생태계 복원 등
		㉓ 생태하천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㉔ 노후상수도 정비	50~70%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㉕ 대중교통 지원	70~90%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㉖ 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㉗ 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	㉘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㉙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	
고용부	㉚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7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㉛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국토부	㉜ 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㉝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주거환경 개선 등
	행자부	㉞ 특수상황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림부	㉟ 일반농산어촌 개발(농림부, 해수부)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㊱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안전처	㊲ 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자료: 기획재정부, (2017, 2018)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016.4, 2017.4.

주: 균특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부록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123개 시·군

-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지역
 -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도서)은 제외

구 분	123개 시·군
경기(10)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기획재정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2017.4.

○ 지역특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소관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합계	113개 시·군 / 1,154개 읍·면	31개 시·군 / 124개 읍·면
소계	<92개 시·군 / 963개 읍·면>	<10개 시·군 / 93개 읍·면>
전담 시군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시	태안군, 고흥군, 신안군, 여수시, 완도군, 진도군, 울릉군, 거제시, 남해군, 통영시
소계	<21개 시·군 / 191개 읍·면>	<21개 시·군 / 31개 읍·면>
중복	강릉시, 삼척시,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고창군, 부안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사천시, 하동군, 창원시, 제주시, 서귀포시	
	* 중복 시·군은 해양수산부 소관 읍·면을 제외한 전체 읍·면	강릉시 주문진읍, 삼척시 원덕읍, 보령시 오천면·주교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고창군 심원면, 부안군 변산면, 위도면, 진서면, 보성군 회천면, 장흥군 안양면, 회진면, 강진군 마량면, 신전면, 해남군 송지면, 영광군 낙월면, 포항시 구룡포읍, 호미곶면, 경주시 감포읍, 영덕군 강구면·죽산면, 울진군 죽변면·후포면, 사천시 서포면, 창원시 구산면·진동면, 하동군 금성면, 제주시 구좌읍·한림읍, 서귀포시 성산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2016.12.

주: 2017년 1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의 2018년도 신규사업, 2017년 계속사업, 기 준공지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

<부록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개요(2017년, 2018년 계획)

사업유형			총사업비	사업기간
농촌중심지활성화			(통합지구) 120억 원 이하 (선도지구) 80억 원 이하 (일반지구) 60억 원 이하	5년 이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단위	종합개발	10억 원 이하	5년 이내
		공동문화·복지	5억 원 이하	5년 이내
		경제(체험·소득)	(체험) 5억 원 이하 (소득) 2억 원 이하 * 체험, 소득 중 1개만 선택 가능 * 국비 56%, 지방비 24, 자부담 20 (사업부지는 100% 자부담)	5년 이내
		환경(경관·생태)	5억원 이하	5년 이내
		신규마을	1.5억~36억 원 이내 (사업규모에 따라 호당 0.3억~0.4억 원 차등 지원)	5년 이내
	권역 단위	종합개발	40억 원 이내	5년 이내
	산림휴양치유마을(*) (산림청)		(기반) 5억 원 이하 (종합) 10억 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	시·군 단위	시·군 창의	10억 원 이하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	2.5억 원 이하(0.5억 원 단위 신청)	1년
기초생활인프라정비			실소요액	1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설명회 자료, 2016.12.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 모음(2017~2004), 2017.1.

목 차	소 속	성 명
제1장 서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제2장 정책 및 연구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김정섭 심재헌 최지선
제3장 농촌지역 발전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제4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제6장 설문조사를 통해 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심재헌 최지선
제7장 우수사례 지역의 성공 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제8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선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연구과제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	
발 행 일	2017. 11
발 행 인	이 용 직
발 행 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